

9-26-2001

노인목회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선교에 관한 연구

Wan Jong Lee 이완종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Biblical Studies Commons](#), [Christian Denominations and Sects Commons](#), and the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이완종, "노인목회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선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1.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N EVANGELIZATION OF LOCAL COMMUNITY THROUGH THE MINISTRY PROGRAM FOR THE OLD

written by

WAN JONG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Jeong Kii Min

Moon Sang Kwon

Seyoon Kim

September 26, 2001

**AN EVANGELIZATION OF LOCAL COMMUNITY
THROUGH THE MINISTRY PROGRAM FOR THE OLD**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WAN JONG LEE

SEPTEMBER 2001

노인목회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민종기 교수

이 완 종

2001년 9월

ABSTRACT

An Evangelization of Local Community through the Ministry Program for the Old

Wan Jong Lee

Doctor of Ministry

2001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is about the ministry program for the senior citizens, which shows the effective directions of evangelizing localities and helps a local church stand on its identity as an influential church and find its growth and vitality

There are three parts in this paper. The first part(Chapter1-4) studies the biblical, theological and ministerial principles about aging people to help the ministry for the old. Since this ministry should be based on the service of the local community in which it is located, through the study on the historical service of society the ministry for the old is seen as having the practical value of societal services. And since the problems of senior citizens are rooted in demographic trends, changing family relations and social changes, there comes the study on the role of a church and the importance of the ministry for the old.

Second part (Chapter 5-6) analyses the 'Salom Crusade', which is a program to evangelize the local community by Kyunju Jungang Presbyterian Church and which is developed as a ministerial program in the unique surroundings of Kyungju.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ocal community, its birth and practical effects are surveyed and studied along with new directions.

Finally, the initiatives that can make the Korean churches and local communities coexist are proposed to establish the evangelical and effective local communities.

Theological Mentor : Jungsuck Rhee, PH. D.

Jeong Kii Min, PH. D.

Seyoon Kim, PH. D.

헌 사

"I will exalt you, my God the king; I will praise your name for ever and ever
Every day I will praise you and extol your name for ever and ever"
(Ps 145:1~2)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논문진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성심으로 지도해 주신 이정석 교수님께 감사하며 논문구성과 방향에 도움을 주신 민종기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현장에서 목사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고 저의 목회사역에서 선한 멘토(Mentor)이며 늘 좋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경주중앙교회 김창선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목회현장에서 늘 가까이 교제·격려·기도로 동역하는 '한누리'와 '삼마' 가족들과 논문 마무리를 위해 마음과 시간적인 배려를 베풀어주신 평촌교회 박유신 목사님과 동역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학위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조에 충실해 준 아내 해정과 우리 가정의 진품(眞品) 영범이와 명품(名品) 영훈이에게 그리고 부족한 종이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 배후에서 기도해 주신 양가의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저의 정성을 드립니다.

2001년 9월
이 완 종

목 차

ABSTRACT	ii
현 사	iii
표 목 차	x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노인에 대한 신학적 이해	5
제 1 절 성경에서 본 노인에 대한 이해	6
1. 성경에서 본 노인	6
2. 노인이해의 양면성	8
3.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년의 삶	9
제 2 절 종교개혁자들의 노인이해	11
1. 칼빈의 노인이해	12
2. 크리소스톰의 노인이해	14
제 3 절 노인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15
1. 의학의 발달과 인간수명의 연장	16
2. 노년기의 발달과제	16
3. 노년기의 특징	17
가. 신체적 특징	17
나. 지적 특징	19
다. 성격적 특징	19
제 4 절 노인에 대한 기독교 교육학적 이해	20
1. 노인교육의 의미	21

2. 노인교육의 목적	22
3. 노인교육의 원리	23
4. 노인교육의 목표	24
5. 노인교육의 내용	25
제 5 절 노인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이해	26
제 6 절 요약 및 결론	29
제 3 장 노인목회의 존재이유에 대한 고찰	31
제 1 절 사회봉사의 개념에 대한 성경적 고찰	31
제 2 절 사회봉사에 대한 구약 성경적 이해	34
제 3 절 사회봉사에 대한 신약 성경적 이해	36
제 4 절 사회봉사에 대한 신학적 이해	37
제 5 절 사회봉사에 대한 역사적 이해	38
1. 초대교회의 사회봉사	39
2. 중세시대의 사회봉사	40
3. 근대시대의 사회봉사	41
4. 19, 20세기의 사회봉사	41
제 6 절 요약 및 결론	42
제 4 장 노인목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	44
제 1 절 노인문제와 발생배경	47
1. 노인문제의 개념	47
2. 노인문제의 발생배경	48
가.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	48
(1) 출생률, 사망률 저하	48
(2) 노인인구의 성비	49
(3) 고령인구의 증가	50
나. 가족관계 요인의 변화	51

(1) 노인의 소가족화	51
(2) 노인의 별거 지향	51
(3) 자녀의 노인 부양의식 약화	52
(4) 여성의 취업활동 증가	52
다. 사회적 요인의 변화	52
(1) 노후 생계비 문제	53
(2) 노인의 취업욕구 증가	53
(3) 보건, 의료서비스욕구 증가	54
(4) 노인의 여가욕구 증가	54
제 2 절 노인목회의 중요성	55
제 3 절 노인학교와 노인 프로그램	56
제 4 절 노인목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	58
1. 노인들의 영적 욕구 충족	59
2. 노인문제를 전 교인들에게 교육	60
3. 노인교육 프로그램 마련	60
4. 노인들에 대한 봉사활동 전개	61
제 5 절 노인목회에 대한 교회의 참여	62
1. 경로당(노인정)에 대한 교회의 참여	62
2. 평신도를 통한 지역사회봉사	63
제 6 절 요약 및 결론	65
제 5 장 지역사회선교를 위한 노인목회 프로그램	67
제 1 절 노인목회 프로그램의 사례	67
1. 대구 남산교회의 노인선교	67
가. 목회간호선교	67
나. 노인선교(목요선교회)	67
(1) 예배	68
(2) 프로그램	68

(3) 자원봉사자	68
(4) 선교	69
2. 영세교회의 실로암부	70
가. 설립 배경	70
나. 구성원	71
다. 예배와 교육	71
라. 구역편성과 심방	72
마. 실로암부를 위한 의료선교회	73
3. 정릉교회의 경로대학	74
제 2 절 경주중앙교회의 살롬행진	75
1. 경주시의 일반현황	75
가. 연혁	75
나. 행정구역	76
다. 노인복지시설	76
라. 종교기관	77
마. 인구	77
바. 노인인구	77
2. 경주중앙교회의 약사와 목회신학	78
가. 경주중앙교회의 약사	78
나. 경주중앙교회의 목회신학	79
(1)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교회	79
(2)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교회	80
3. 살롬행진	80
가. 배경	80
나. 목적	81
다. 활동 내용	81
(1) 경로당봉사	81
(2) 교인들의 재정적 참여	82

(3) 자원봉사자 교육	84
제 3 절 노인목회 대상자 설문조사 및 분석	86
1. 설문조사	86
2. 설문분석	86
가. 일반적인 질문	86
나. 경제적인 질문	89
다. 건강에 대한 질문	92
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질문	93
마. 노인대학에 대한 질문	96
바. 지역복지와 자원봉사에 대한 질문	98
제 4 절 자원봉사자 설문 및 분석	101
1. 설문조사	101
2. 설문분석	101
제 5 절 요약 및 결론	109
제 6 장 노인목회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	111
제 1 절 설문조사 및 분석	111
1. 설문조사	111
2. 설문분석	112
가. 일반적인 질문	112
나. 샬롬행진의 영향력에 관한 질문	112
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질문	117
라. 교회출석에 관한 질문	118
제 2 절 평가	120
1. 내부적인 평가	122
가. 노인대학의 성장	122
나. 교회 인적자원 활용	122
2. 외부적인 평가	123

가.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	123
나. 신앙생활에 대한 의지	124
3. 노인을 위한 봉사자 유의사항	125
제 3 절 발전적인 سالم행진을 위한 노력	127
1. 지역교회가 연합하는 سالم행진	127
2.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سالم행진	128
3. 노인수련회로 이어지는 سالم행진	129
제 4 절 요약 및 결론	130
제 7 장 결 론	133
제 1 절 시대적 요청과 노인목회	134
제 2 절 연구결과 및 제안	136
1. 연구결과	136
2. 제안	137
가. 사랑의 현장 갖기 운동 실천	137
나. 지역교회연합을 통한 노인선교	138
다. 사회목사제도의 도입	139
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만들기 운동	140
부 록	142
참고문헌	152
VITA	157

표 목차

<표 1> 1960-2020년 인구성장추이	94
<표 2> 노인인구성비	50
<표 3> 평균 가족원수	51
<표 4>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활동 내용	55
<표 5> 노인정 활성화 방안	63
<표 6> 경주시 연혁	76
<표 7> 경주시 노인복지시설	76
<표 8> 경주시 종교기관 현황	77
<표 9> 경주시 인구현황	77
<표 10> 경주시 60대 노인인구	78
<표 11> 경주시 70대 노인인구	78
<표 12> 경주시 80~90대 이상 노인인구	78
<표 13> 사랑의 현장 갖기 대상 경로당	83
<표 14>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85
<표 15> 성별분포	87
<표 16> 연령분포	87
<표 17> 종교분포	88
<표 18> 가정구성형태	88
<표 19> 주거형태	89
<표 20> 월 생활비	90
<표 21> 생활비 조달방법	90
<표 22> 취업여부	91
<표 23> 취업 시 원하는 일	91
<표 24> 취업급료	92
<표 25> 건강상태	92

<표 26> 질병에 대한 대처방법	93
<표 27> 노인복지시설 입주	94
<표 28> 노인복지시설 입주형태	94
<표 29> 경로당 출입경험	95
<표 30> 경로당에서 보내는 시간	95
<표 31> 경로당에서 갖는 프로그램	96
<표 32> 교회 노인대학 참석여부	97
<표 33> 노인대학에 원하는 프로그램	97
<표 34> 경주시 노인복지에 대한 만족도	98
<표 35> 무료로 필요한 도움항목	99
<표 36> 지역 노인들이 교회를 향한 요구사항	99
<표 37> 노인문제해결의 주체	100
<표 38> 자원봉사자의 봉사회수	101
<표 39> 봉사자 성별분포	102
<표 40> 봉사자 연령분포	102
<표 41> 부모님과의 동거여부	103
<표 42> 목회자의 노인목회 실시에 대한 지지도	104
<표 43> 노인목회에 중점을 둘 사항	104
<표 44> 경로당봉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105
<표 45> 경로당봉사 연중확대실시	105
<표 46> 연중확대실시 경우 봉사참여도	106
<표 47> 주간봉사시간	106
<표 48> 한국교회 사회봉사 참여정도	107
<표 49> 복음전도와 사회봉사와의 관계	107
<표 50> 교회의 사회봉사 참여목적	108
<표 51> 사회사업 전담목사의 필요성	108
<표 52> 경주에서 생활한 시간	112
<표 53> 샬롬행진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113

<표 54> 경주중앙교회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113
<표 55> 샬롬행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14
<표 56> 샬롬행진이 지역 노인들에게 주는 도움의 정도	114
<표 57> 샬롬행진이 지역 노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가	115
<표 58> 샬롬행진을 접한 횟수	115
<표 59> 샬롬행진이 해를 거듭할수록 내실이 있다고 보는가	116
<표 60> 샬롬행진과 경주중앙교회의 부흥과의 관계	116
<표 61> 샬롬행진이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었는가	117
<표 62> 봉사자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118
<표 63> 봉사자에게 더 원하는 것	118
<표 64> 교회에 출석한 경험	119
<표 65> 교회출석을 권유한다면	119
<표 66> 교회출석의 장애물	120
<표 67> 본인이 교회출석이 어렵다면 후손들은	120
<표 68> 노인대학 출석과 전도된 노인	122
<표 69> 샬롬행진을 통해 전도된 새 가족	124
<표 70> 경로대학 수련회 일정표	13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20세기에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산업구조나 국민경제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그리고 인구학적인 변화도 함께 가져왔다. 경제성장과 의학이 발전되고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확장으로 의료자원이 대중화되어 감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한국의 노령인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 7월 1일을 기하여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처음으로 총인구의 7퍼센트를 넘어서면서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총인구의 7.1퍼센트(337만 1000명) 선으로 높아졌다. 2022년에는 노령인구 비율이 14퍼센트를 넘을 전망이다. 올해 부양연령층(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년 피부양층은 10명이지만, 2030년에는 3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1) 유엔은 노령인구 비율이 7퍼센트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퍼센트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분류한다.

1996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자가 69.5세, 여자가 76.6세로 높아졌고 2020년에는 남자가 74.9세, 여자가 79세 정도로 높아지리라 전망한다. 이러한 예측이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하더라도 노인인구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시되고 있다.2) 따라서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는 출산인구의 감소와

1) 김영수, "한국도 이젠 고령화사회," 조선일보, 2000년 7월 11일, 30.

2) 맹용길, 노인복지목회론, 노인교육목회연구시리즈, vol. 2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78.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국가와 사회로 하여금 예견하게 하는 만큼 노인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슈이며 창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노인문제란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하나의 부산물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된 적은 없었다. 현대에 들어와서 선진 서구사회에서 노인 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산업혁명 이후의 일이었다. 그 때부터 사회의 산업화가 가속되었으며 인구이동·핵가족화 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자가 노인목회를 주제로 잡은 이유는 교회가 노인들이 속할 가능성이 가장 큰 조직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노인들을 교회예배에 인도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교회시설을 빌려주고 있는 반면 노인들을 위한 구제사업에는 인색한 측면이 있다.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노인환자가 입원한 병원이나 가정을 방문하지만 늘 집에 있는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이나 무의탁 노인, 지역사회의 어려운 형편의 노인들에 대한 관심부족 그리고 재가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인들로 하여금 노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게 하여 교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를 향한 노인목회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공경의 실천적인 삶을 바탕으로 21세기 건전한 노인목회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여러 가지 목회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행하는 지역사회봉사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바른 모습을 심고 교회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관계요, 하나님을 위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임을 되새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까지 노인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상당수 있는 것은 교회가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자의 논문이 가지는 차별성은 본 논문에서는 지역사회의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섬김과 돌봄과 양육을 통한 교회의 지역사회선교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것이다. 노인목회를 실시하여 지역노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역의 소외된 노인과 무의탁 노인, 시설노인들에 대한 봉사와 섬김으로 지역사회에서 굳건히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경주중앙교회의 노인목회 프로그램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커다란 이슈로 등장하게 될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교회의 지역사회봉사를 통해 찾는 것이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노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새로운 방향에서 출발한 노인목회 프로그램에 대한 하나의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주중앙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지역사회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인 '살롬행진'이라는 담임목사의 통찰력 있는 목회신학과 지역사회선교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서론에 이은 2장에서는 노인목회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살피면서 특별히 노인 혹은 노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통해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인의 의미와 노인 이해에 대한 양면성, 즉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쇠약과 은퇴의 측면을 고찰하려 한다. 그리고 교회사와 종교개혁자들이 바라본 관점에서 노인이해는 어떠했는지를 살피고 다양한 신학적 학문을 배경을 중심으로 하여 신학적인 측면에서 노인은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의 성취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려 한다.

3장에서는 노인목회 존재이유에 대한 고찰로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해 살피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들어왔던 말씀과 삶의 불일치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사회봉사의 성경적, 역사적 이해를 통해 '사회봉사'에 대한 각각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약적으로, 신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시대에 맞게 있어 왔던 사회봉사에 대한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노인목회와 사회봉사와의 관계성 그리고 노인목회를 뒷받침하고 하나의 목회영역으로 존재하게 하는 이유로서의 사회봉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노인목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 노인문제의 개념과 노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인구학적 요인과 가족관계의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내용들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21세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행해야만 하는 노인목회의 중요성과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노인학교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현실을 살펴본 후 앞으로 노인목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미래에 노인목회에 대한 교회적인 참여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노인목회 프로그램이 완성되기까지 근간이 된 경주시에서 교회의 위치와 지역사회 분석을 통한 목회신학과 본 연구자가 시무했던 교회에서의 경험과 자료를 근거로 하여 노인목회 프로그램인 '살롬행진'에 대한 전체적인 설문을 조사분석하여 노인목회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평가하려고 한다. 더불어 본 연구자의 지도 아래 연장하여 실시한 노인목회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소외된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회의 관심과 돌봄 그리고 양육에 기초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지역에서의 위치를 살펴볼 것이다.

6장에서는 2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한국교회가 노인목회를 위해 지향해야 할 비전, 노인선교의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노인목회 혹은 지역사회 속에서 일반목회를 위한 연구자의 한국교회에 바라는 몇 가지의 제안을 통해 공감대를 찾아보고, 전체적인 결론을 맺고자 한다.

본 논문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지역적 특수성에 의한 목회 프로그램이었다는 한계와 담임목사가 아닌 부 목사의 입장에서 목회하고 연구하였기에 여러 가지 제한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노인문제를 목회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노인목회와 교회성장 혹은 노인선교에 대한 대안을 통해 건강한 교회의 모습과 지역사회에서 자리 매김을 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 2 장

노인에 대한 신학적 이해

전통적으로 노인이란 감소가 증가를 초월하고 능력과 기회가 평창하기보다는 쇠퇴하는 일생의 한 단계를 뜻하지만 노년에 대한 정의는 신체적 및 사회적 의미에서 노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사회의 태도와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이나 노년에 대한 정의를 한 마디로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상원 소속 노화 특별위원회는 1984년에 노인과 노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여기에서 55세 이상은 'older population', 65세 이상은 'elderly', 75세 이상은 'aged', 85세 이상은 'very old'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는 의학적 목적보다는 행정적인 목적에서 연령만을 가지고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³⁾ 생물학적으로 노화는 적어도 사춘기부터 이미 시작하여 일생을 통해 지속되며 사회적으로는 문화적 배경과 세대에 따라 다르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노인이란 직업으로부터의 은퇴라는 의미로 정의되고 있지만 이러한 해석에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문제를 상업화, 핵가족화의 부산물로 간주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적인 조치를 성의껏 취하고 있지만 노인들에게 만족을 줄만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교회사와 종교개혁자들이 바라본 노인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노인목회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학문적 이해, 즉 심리학적 이해와 기독교 교육학적인 이해로 노인들도 똑같은 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고 기독교 윤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 주신

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노인교육목회연구시리즈, vol. 1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187.

생명의 귀중함을 알아서 노인목회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성경에서 본 노인에 대한 이해

1. 성경에서 본 노인

범죄로 타락하기 이전, 에덴동산에서의 인간의 삶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모르는 낙원의 환경 속에 나타난다. 실낙원 이후 창세기의 족보자료에는 아담이 930세(창 5:5), 므두셀라가 969세(창 5:27), 홍수 때에 600세였던 노아도 홍수 후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창 7:6; 9:28~29). 하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100세 이하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모습도 보여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으며(창 12:4) 그 후 100년을 더 살고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 것”이 175세였다(창 25:7~8). 모세도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낸 뒤 비로소 80세에 그의 형인 83세의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애굽의 바로 앞에 나섰으며(출 7:7) 그 후 40년 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신 34:7)”고 했다.

어쨌든 모세 이후 명시적으로 100세 이상을 산 사람은 극소수로 여호수아(110세, 수 23:2; 24:29)와 유다 왕 요아스 왕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일백 삼십 세라”(대하 24:15)는 기록을 볼 수 있다.

구약과 신약시대에 살았던 인간의 평균수명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구약의 경우 유다 왕들의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44세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다윗왕이 나이 많아 죽을 때 70세였고(삼하 5:4~5; 왕상 2:10~11) 유다 왕으로 가장 오래 통치한 므낫세가 67세로 자연사했다(왕하 21:1, 18).

한편 성경에서 은퇴연령은 구약의 레위인들의 경우 회막이나 성전의 일을 맡아

할 때 50세까지 하도록 규정에 나타난다(민 4:30; 8:25; 참조).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며 원칙이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지켜진 것은 아니기에 다른 직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 또한 레위인들이 은퇴했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는 후배들을 돕는 일을 했으며(민 8:25~26), 신약의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노년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도 은퇴 후에 계속된 보조 직무의 수행으로 여겨진다(눅 1:8~23).

성경은 인생을 연속적인 몇 가지 단계들로 구분하며 노년을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로 기술하고 있다. 보통 어린이, 성인(13세부터), 노인으로 구분하든지 네 단계인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결혼한 남녀), 노년기로 나누며(렘 51:22) 노년의 경우 보통 노인과 나이가 아주 많은 고령자를 다시 구분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렘 6:11). 그럼에도 레위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서약한 몸값, 즉 인생의 단계에 따른 몸값 계산 규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나이와 인생의 단계와 연결하여 노년에 대한 기준을 가늠해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서는 인생을 네 단계로 구분하고 남녀의 서원한 값을 각기 규정하고 있다. 20~60세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 5~20세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은 10세겔, 1개월~5세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은 3세겔, 60세 이상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은 10세겔이다.

이러한 구분에서 볼 때, 해리스(J. G. Harris)가 제시한 60세가 지난 여자의 가치는 남자만큼 그 비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약시대에 여성이 남성보다 노년기에 더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주목할 만하며 남녀 공히 60세가 지나면 은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

신약시대에도 노년의 기준 나이를 찾기 어려우나 구약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예수님이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네가 아직 50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요 8:57)”라는 질문에서 당시 50세가 노년의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상의 자료들을 검토해 볼 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인으로서의 전환은 빠르면 50세에서 시작하여 늦어도 60세부터는 노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4) J. G. Harris, Old Age,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5 (N.Y. : Doubleday, 1992), 10-12.

2. 노인이해의 양면성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점차 쇠약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노인의 표시로서 성경과 고대 중동세계는 무엇보다 흰머리(백발)를 언급한다. 말년에 사무엘은 “보라, 나는 머리가 희었고...(삼상 12:2)”라고 말하고 있다. 흰머리와 함께 노년은 시력, 청력, 미각과 치아의 약화 내지는 상실과 함께 기운이 약해져서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고(속 8:4) 불면증, 걱정, 욕망의 감퇴를 경험하며 고독과 소외의 두려움(시 71:9)을 느끼게 된다.⁵⁾ 전도서에서 노년의 죽음에 이르는 쇠약의 과정을 시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전 12:1~8). 특히 전도서 12장 6절과 7절에서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씀은 청년들에게 노년의 실상을 깨우치면서 창조주를 경외하며 살아야 할 인생의 지혜를 깨우치고 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노년은 인생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상실의 단계로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종국으로 이해된다. 고대 중동세계와 성경의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노인은 인생을 살아온 그 경험과 지혜 때문에 존경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욥 12:12; 32:7 참조).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년을 배경으로 한 장로의 직분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노년이 죽음과 상실의 단계이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노년은 인생노정의 복된 순례의 과정이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시기임을 깨우치고 있다.

먼저 성경은 “너는 쎌머리(히브리어 ‘세바’)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19:32)”고 명령한다. 이러한 노인존경에 대한 명령은 그 표현을 달리하여 십계명의 제 5계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노인이 존경받는 것은 단순히 흰머리나 흰 수염 때문만은 아니다. 존경받는 백발도 있고 존경받지 못하는 백발도 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잠 16:31)”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반하여 “늙어도 어리석으며 백발로도 악한 사람이 있다(왕상 2:9; 전 4:13; 시 119:100 참조)”는 것이 또한 성경의 증언이다. 여기에 또한 성경적인 노년이해에 대한 양면성이 나타나 있다.

5) J. W. Wolff,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역 (왜관 : 분도출판사, 1976), 216.

노년의 백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노인은 존경을 받고 노년은 복된 인생의 단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노인이라고 언제나 슬기롭고 옳고 인자한 것은 아니다. 악인도 장수하며 노년에 건강하고 평안히 임종을 맞을 수 있다(욥 21:7 이하; 시 73:4~5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년의 특징은 분명히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쇠약과 은퇴의 단계를 가리킨다. 생물학적인 노년의 삶은 전도서의 비유와 같이 허무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때 노인의 백발은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의 성취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식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위되는 노년의 삶은 가치 있고 존귀하며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년의 삶에는 중요한 사명과 할 일들이 주어져 있다.

3.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년의 삶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인의 삶은 결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며 소외와 슬픔과 상실의 시기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표현을 시편 92편 14절 이하에서 읽을 수 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와 정직하심을 나타내 리로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년의 삶에 대한 이해는 복음선교를 위해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갔던 사도 바울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는 고백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노년의 인생은 생물학적으로는 노쇠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속 사람의 생명이 약동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시기로 파악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후 5:1)는 것이 성경적인 노년의 인생관이다.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년의 삶의 모습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증언하며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시기이다. 흰머리의 노년은 슬퍼하고 기피할 것이 아니다. 오는 백발을 막아보려는 생각도 부질 없는 것이며, 백발을 검게 물들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성경적으로 보면 오래 사

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발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그분의 은총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달는 점이 중요하다.

둘째로, 성경에서 노인은 존경을 받아야 하며, 노인의 존재는 그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랜 삶은 경험을 통하여 노인에게는 후생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노인을 존경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노인이 그의 사명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인정하고 마련해 드리는 일일 것이다. 노년의 역할은 가정에서 어른 내지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책임에 있다. 성경에서는 특히 지혜문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잠언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도시생활이 복잡해지고 핵가족시대가 됨으로 노년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자녀들에게 적절한 부모공경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에서 볼 때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년의 부모는 어떤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 주어야 하며 자녀들이 노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받는 길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성경에서는 노인을 지혜의 원천이고 공경의 대상이며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복 받을 행위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노인들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공경하고 돌보아 주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기독교인들은 노인을 존경하고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흠모하며 노인들의 실생활의 곤란을 보살펴주고 그들이 평안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

베른하르트 랑(Bernhard Lang)은 성경세계와 연관된 주변세계의 문서자료들, 즉 엘레판틴 문서나, 수메르 문서, 고대 바벨론 자료 등에서도 자녀들의 부모공경 사상이 고취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특히 누지(Nuzi) 문서에 나타나는 양자 입적 자료들과 우가릿(Ugarit) 문서에서 발견되는 아들이 늙은 부친에게 행해야 하는 2가지 효행수칙 등을 검토해 볼 때 성경의 세계와 그 주변의 세계에서 노년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공경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중요하게 밝히고 있다.⁶⁾

결국 베른하르트 랑에 의하면, 성경의 세계에서 양로문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십계명 중의 다섯째 계명, 즉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몸과 재물로 부모를 섬기며 노년의 부모를 돌보아 드리는 일과 연결되는 의미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약시대 예수께서 부모에게 드릴 것임에도 ‘고르반’되었다고 핑계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잠 19:26; 마 15:3~9; 막 7:9~13).⁷⁾

그러므로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노년에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생각은 재고해야 한다. 경제력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을 존경하고 노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인류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노년의 부모는 자녀의 효도를 막아서는 안 될 것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자녀들이 기쁘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노년의 또 하나의 의미일 것이다.

넷째로, 성경의 노인은 그 임종에 즈음하여 그 후손들에게 노래(신 32장)나 유언(창 49:1~28; 삼하 23:1~7; 왕상 2:1 과 비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며 감사하고 후손들이 바른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했으며 무엇보다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며 주목할 만한 노년의 특징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인은 이 땅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해주는 귀중한 사명과 특권이 주어진 것이다. 노년의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 배후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특히 임종에 이르러 그 자손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노인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이다.

제 2 절 종교개혁자들의 노인이해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한 구약성경에서는 노인을 주로 모발 및 수염이 희어지고 기력이 쇠하여지는 시기를 지칭했으며, 신약성경에서는 생산의 능력이 없는 생리적 노령과 연령자를 말하고 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노인을 존경하고 영예롭게 여기며,

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54.

7) Ibid., 54.

지혜자이고, 보호의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존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으로써 종교적 삶의 본질이다. 노인은 무조건적인 존경과 명예를 보증해 주지 않는다. 거기에는 반드시 고결하고 경건한 생활이 수반되어야 한다. 노인은 지식의 보고(寶庫), 전통의 수호자로 간주된다.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학적 인식은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의 보호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깨달음이 단지 성경신앙에서 상속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 개념은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황제에 대한 개념, 즉 약한 사람들, 특별히 노인들과 여인들과 어린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머리'라는 황제에 대한 개념에서 상속된 것이다.⁸⁾ 중세 교부들은 주로 교회와 수도원에서 구제하는 당시의 많은 수도원은 섬기는 사역과 책임에 관계되었고 초기의 수도원은 일종의 병원과 숙박시설을 겸하고 있어서 많은 병자와 노약자들이 찾아와 치료를 받았고 갈 곳 없는 이들의 숙소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구빈원의 시초가 된 것이다.

기독교 신학적인 전통은 역사적으로 노인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한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었고 노인을 경히 여기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의미는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특히 물질적으로 돌보아 드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징벌이 내려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성경적인 내용을 기초하여 여기에서는 교회사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하여 노인이해의 측면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칼빈의 노인이해

칼빈은 종교개혁 운동을 신학적으로 성공시킨 프랑스가 낳은 걸출한 신학자이다. 칼빈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였음을 강조한다(창 1:26).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다양성을 갖게 하셨다.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우둔한 자와 재능 있는 자 등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8) 박영호, 기독교 사회복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130.

노인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고 그렇게 이해했다. 칼빈은 복지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살아가는 노인들을 돌보는 의무를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 칼빈은 철저히 복지적인 관점에서 노인을 이해하였다.

칼빈은 레위기 19장 32절을 주석하면서 “노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있는 자연법이다”라고 하였다. 많은 노인들이 경솔하기도 하고 음탕하기도 하고 그들의 흰머리가 항상 지혜롭고 존경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노인의 나이가 존경스러운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칼빈은 상당히 노인을 존경한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장수와 축복의 삶은 부모를 존경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인데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노인의 현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노인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물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좋아한 사람은 아니었다. 칼빈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주석에서 “노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된 것이 없다”고 보았다.¹⁰⁾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과정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어떠한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보았다. 이는 칼빈이 노인을 존경하는 것 같은 이해의 측면이 있음에도 노인을 경미하게 여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기독교의 발전사에 있어서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패하고 썩는 것을 말한다. 칼빈은 일차적으로 노인을 경멸적인 나이로 보았지 시대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다. 칼빈의 주장에 따르면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노인의 의미는 전체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아야지 신체적인 노쇠의 의미로 보아서 안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적인 강조는 지속적이고 전체적인 크리스찬의 삶에서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해석은 시편 92편 12절에서

9) G. S. 워커, 칼빈과 교회,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299.

10) K. Brynolf Lyon, Toward a Practical Theology of Ag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37.

15절까지를 분석한 것으로부터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시편 92편의 말씀을 보면 크리스찬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융성하고 영적이고 영원한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찬의 삶은 짝이 트는 삶이요, 살찌우는 삶인데 비록 노인의 나이가 우리의 신체적인 삶의 생기나 물기가 말라버려도 그러한 것이 노인의 나이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이 노년에 있어서의 인생의 성취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제공해 주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년을 하나의 축복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칼빈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칼빈에 있어서 노인의 성취는 전반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에 대한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칼빈에 있어서 노인은 고통의 시간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에게 가해진 고통이지만 이것은 점진적으로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더욱 강화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관점을 영원한 것으로 돌리는 것이 된다. 칼빈에 있어서 노년의 나이를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은 양심과 평온하고 고요한 심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의로움을 갖춘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칼빈의 주장에 의하면 신성으로 인하여서 훌륭하고 좋은 나이가 우리를 무덤에 갈 때까지 잘 지켜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이 평안하고 고요하게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에 있어서 선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인내심을 수반하는 평안을 상태라는 것이다.

2. 크리소스톰의 노인이해

크리소스톰은 인간의 삶을 영혼의 힘을 강화시킬 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특히 영혼의 힘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크리소스톰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설교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하나의 경주에 비유했다.¹¹⁾ 경주에 임하는 자는 주위의 어떤 사물에도 관심을 두지 않으며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상이다. 경주가 처음에 잘 달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긴장

11) Ibid., 44.

하여 끝까지 잘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 칼빈의 경우에서와 같이 크리스찬의 삶은 지속적인 발전, 지속적인 전진의 삶이어야 한다.

크리소스톰은 신체가 쇠퇴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쇠퇴하는 것이지만 결코 우리의 삶의 중심 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성취가 더 많다. 성취한다는 것이 영혼의 발전의 표식으로서 단순히 몸 하나가 쇠퇴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다. 크리소스톰의 관점은 어떠한 나이에서든지 간에 그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영혼의 성취라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는 인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영혼을 가꾸지 못한 자들이 결국에는 슬픔의 수확을 거둘 수밖에 없다. 크리소스톰은 이러한 영적인 발전의 가능성은 예수를 믿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청년의 나이에 억눌렀던 열정을 나이가 들면서 풀어놓아 주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 어른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며, 삶 속에서 질서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해했다.

크리소스톰은 성취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이에 있어서 특별한 것이며 노인의 영혼은 젊음의 열정의 증거이고 청년다운 열정의 증거로 보았다. 이 점은 분명하게 감정의 지배를 받는 젊음의 열정과 차별화가 될 수 있다. 노인의 완숙이라는 것은 결국 감정을 완전히 종속화 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에 따라서 그 영혼이 결국에는 자유로워져서 보다 완벽하고도 정열적으로 고차원적인 것들로 돌릴 수가 있어야 한다. 노인의 성취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의 표식이며, 발전의 표식이며, 진보의 표식이다. 그것은 결코 신체나 육체나 정열들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영혼의 성장이요, 발전이요, 진보의 상징이다.

제 3 절 노인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노인문제를 다루고 노인목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노인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식 내지는 이해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한 분야로 노인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긴 시기인 노년기의 삶의 질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기 때문이다.

1. 의학의 발달과 인간 수명의 연장

21세기의 세계를 특징지어줄 요인들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인구의 노령화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이미 오래 전에 구미 선진국의 인구모형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에서 다른 형태, 즉 원통형태로 변형되어 어린이보다 성인의 수가 더 많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65세 이상의 인구수효도 현저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부양 받아야 할 노인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과거와는 달리 전혀 다른 사회적인 문제들을 제기해 주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서는 우선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노인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나 기타 그와 인접한 분야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노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단순히 이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수명을 어떻게 인간다운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노인인구증가에 관련된 문제는 교회도 점차적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이다. 우리는 교회의 노령화현상을 구미 각 국에서 이미 보아오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미래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오직 가시적인 접근으로는 부족할 것이므로 미시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2. 노년기의 발달과제

노년기에도 심리 사회적 위기가 있다는 것은 이 시기에도 엄밀히 말하여 발달적 변화와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의 발달과제를 말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자아통합이다.

노년기에도 발달적 변화가 진행된다고 할 때 노년기에 처한 사람들이 실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 추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늙음이 주는 전(全) 존재적인 차원에서 다가오는 상실에 끊임없이 직면하면서도 그

곳에서 새로운 도전과 적응을 모색하는 삶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주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용기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자세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자아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노인으로서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적응도 무시할 수 없는 노년기의 과제 중의 하나이다. 자녀양육의 역할은 이미 상실되었고 경제적인 주도권도 자녀에게 옮겨진 상태에서 이제는 상징적인 집안 어른의 위치와 조부모로서의 역할에 만족해야 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적응시켜 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이때 성취해야 할 힘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과거의 인생여정에서 경험한 실패들이나 좌절들과 같은 직면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인생에 대한 보다 유연한 태도가 요구된다. 그러한 자세는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게 해주고 새로운 성장의 방향을 인식하게 해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일된 인생철학을 가질 때 이러한 일은 가능해진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노년기에 경험하는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와 감소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일도 노년기에 성취해야 할 무시할 수 없는 과제이다. 실제로 자신의 신체적인 변화에 자신을 적응시키지 못할 때 노년기의 안정된 삶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뉴먼(B. M. Newman)은 노년기의 발달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인으로 유연성, 개방성, 그리고 지적 복합성을 들고 있다.¹²⁾

3. 노년기의 특징

가. 신체적 특징

노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영역이 바로 신체적, 생리적 변화 내지는 쇠퇴라고 할 수 있다.¹³⁾ 어떻게 보면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심리적인 변화나 특성들은 노화과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외모, 활력, 유연성, 민첩성, 또는 성적기능의 쇠퇴는 노년의 삶을 제한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일은 정상적인 신체적 노화현상과 노년기에

12) B. M. Newman, 현대발달심리학, 박아청 역 (서울: 형설출판사, 1995), 398-399.

13) 김태련, 장휘숙,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1999), 384.

질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신체적인 퇴화를 구분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노년기에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하나 이상의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들을 구별해서 다루는 일은 중요하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신체적인 변화를 보면, 첫째는 감각기관의 퇴화를 들 수 있다.¹⁴⁾ 그 중에서도 시각과 청각의 감퇴가 대표적이다. 이미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 시각기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감소하고 색채 변별능력도 쇠퇴하기 때문에 노년기의 시각의 정확도는 현저히 감소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안경을 사용하게 된다. 청각기능의 감퇴는 소리의 높고 낮음의 구별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데 그 중에서도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후각과 미각의 기능도 이 시기에 급격히 퇴보하는데 60세 이후에 그 속도는 더 빨라진다.

둘째는 신체기능의 저하나 퇴보를 들 수 있다.¹⁵⁾ 우선 노년기의 특징인 신체부위의 특징인 신체부위의 전반적인 활동이 감소하면서 휴식상태에서 사용되는 산소 소모량인 기초 대사량이 감소된다. 호흡기능의 저하로 공기 흡입량도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호흡기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셋째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심장기능의 저하도 나타나며 이와 관련된 질병들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넷째는 노년기의 쇠퇴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경험되는 것은 아마도 소화기능의 감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소화효소와 위액분비의 감소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하여 치아의 상실이나 쇠퇴는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의 영양섭취에 위협이 된다. 앞에서 지적한 것 외에도 나이를 먹으면 수면시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인지기능과 정서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 본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을 한 마디로 특징지으라고 하면 전체적인 기능의 저하와 감퇴로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인간의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쇠퇴는 보편적인 현상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발달의 원리 중 하나인 '발달은 개인차가 있다'는 사실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노

14) Ibid., 386.

15) 김태숙, 장휘숙, 388.

1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73.

화현상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노화의 속도는 분명히 개인차가 있다.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이 노년기의 신체적인 쇠퇴를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적응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이 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지적특징

지능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며 동시에 가장 필요로 하는 조건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지능이란 한 인간이 일생동안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아야 한다.

지능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능은 선천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면서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능의 발달곡선이 20세를 전후하여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다.¹⁷⁾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지능은 나이를 먹으면서 쇠퇴되어 간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연령증가와 함께 지적으로 퇴화한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지식과는 다른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연령에 따른 지적능력의 변화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지적능력은 나이를 먹으면서 분명히 변화하지만 그러나 그 변화가 전반적인 지적능력의 저하라기보다는 어떤 측면은 퇴보하지만 연령변화와 함께 오히려 증가하는 지능의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비록 노년기에 처해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지속적인 지적능력을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지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암시해 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다. 성격적 특징

연령의 변화가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한 분명한 결론은 없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소질과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적인 요인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17) Ibid., 72.

노년기에 볼 수 있는 신체적인 힘의 약화와 문제해결 능력의 저하, 은퇴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생활의 위축과 무기력, 또한 이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상실감 등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성격특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노년기에 첨가되는 성격적 특성들¹⁸⁾ 중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우울증적 경향의 증가이다. 이는 노년기에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는 조심성과 의존성의 증가를 들 수 있다.¹⁹⁾ 감각기관의 기능이 감퇴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신경을 쓰게 되면서 조심성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셋째는 오래된 물건과 대상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간다는 것을 들 수 있다.²⁰⁾ 지나 가버린 과거를 되돌아보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도 한다.

‘성공적인 노화는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에릭슨의 이론은 우리에게 귀중한 지혜를 암시해 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인생의 각 단계를 건강하고 비교적 만족하게 살아온 사람은 노년기에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²¹⁾ 이런 주장은 결국 우리에게 삶의 어떤 순간도 그냥 버릴 수 없는 귀중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순간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제 4 절 노인에 대한 기독교 교육학적 이해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교육이 만들어 낸 것이다”라고 말했다.²²⁾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사회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간 노인계층은 교회교육에 있어서 망각지대의 하나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교회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성숙한 인격(예수 그리스도를 닮은)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우며 세상 끝 날까지 주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노인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학

18) 김태련, 장휘숙, 발달심리학, 404.

19) Ibid., 404.

20) 윤진, 성인,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1985), 5.

2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75.

22) 김근홍, 한독 노인복지이해 (서울: 학문사, 1999), 455.

(Andragogy)의 대두로 교육의 개념이 인구,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²³⁾ 우리는 그간 아동과 청소년교육에 치중하여 오면서도 은퇴기 이후의 삶에 대한 교육은 거의 배제하여 왔다.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육체적인 쇠퇴와 함께 격변하는 생활형태에 적응할 수 없어 크게 좌절하고 실망하며 자포자기하여 능동적으로 살아온 인생을 아무렇게나 끝맺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교회는 이 노인계층을 향한 새로운 전망이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회가 지금 노인들을 위한 복지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고 또 시설이 시작된 것이 사실이다. 교회는 언제나 소외된 자와 약자를 먼저 돌보도록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 왔다. 교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첫째는 교회의 교육적 차원에서 노인들을 도와야 하며, 둘째는 노인의 복지문제에 우리의 정성을 묶어 그들의 고통을 덜도록 실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는 노인교육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교육의 의미

노인교육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상황, 즉 노인들이 당하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은 노인이 되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경험을 통해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노인들은 노인의 환경에 접어들면서 자기의 위치를 점검하게 되고 정체성을 묻게 된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며 현재와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를 느끼며 한참 일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나 활동하는 문제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더 좋은 일터나 바람직한 다른 자리를 찾는 것과는 달리 아무 곳에서도 환영하지 않으며 오라고 하는 곳도 없이 죽음을 향해서 가며 식구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아야 하든지 적어도 자기의 도움을 전과 같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장차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답을 하려고 할 때 교육의 필요성은 강하게

23) Ibid., 455.

요구된다. 단순히 무료함을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지식을 쌓아서 앞으로 적용할 시기를 찾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필요한 지식을 배우거나 자기를 지탱하고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것을 배우거나 아니면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등의 문제에 대답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지혜가 마련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지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알려는 과정이 곧 교육과 연결된다.

한편 노인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거나 앞서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노인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인들로 하여금 주변환경에 적응하는 기술을 터득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아무데도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자포자기하거나 인생을 실패한 사람으로 단정하고 허송세월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인들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은퇴한 상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지 않고 또는 혼자서도 자기 일을 꾸려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의 교육은 분명히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자기 자신의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자기의 결단이든지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²⁴⁾

2. 노인교육의 목적

노인교육에 있어서 노인들의 교육적 욕구를 파악하여 노인교육의 목적내용, 방법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노인교육의 효율성과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때 욕구란 개인이 느끼고 있는 결핍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한 희망조건을 의미한다.²⁵⁾ 즉 욕구는 개인이 무엇인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결핍상태로서 필요의 개념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필요로 인하여 관심이나 흥미가 초래된 후 결핍상태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동인이나 동기로 발전된다. 필요로부터 관심, 흥미, 욕망, 동기가 구체화된 상태가 요구된 상태이다.

24) 맹용길, 노인복지 목회론, 140.

25)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편, 노인복지편람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5), 204.

노인교육은 인생전반에 걸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문화에 대한 인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노년기 인생의 말년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년기의 삶의 질을 적극 향상시키고 노인들로 하여금 급속한 사회변동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노인들의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사회적응, 다른 연령집단과 연대감을 통해 노년기를 보내도록 하는 목적을 갖는다.

3. 노인교육의 원리

전인교육으로서의 노인교육은 “평생”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특히 현재의 노인세대에게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인교육의 방법은 타 연령 계층에 대한 것과는 달라야 하는데 그 이유는 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노인들의 특성 및 과업 그리고 교육적 욕구가 다른 연령집단과 확연하게 구별되기 때문이며, 각자가 경험한 인생의 모습이 다르며, 노년기 교육의 목표와 학습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노인교육의 원리는 학습자의 연령 및 경험과 학습자가 지니는 내외적인 특성과 학습자의 성숙정도 등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고 실천되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관심을 기본전제로 다음과 같은 노인학습의 원리가 추출된다.

첫째는 ‘자발성의 원리’이다.²⁶⁾ 노인교육은 강압적, 타율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노인들의 흥미에 입각한 자발성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므로 교육방법에서도 이러한 장점을 살려야 할 것이다. 둘째는 ‘경로의 원리’이다.²⁷⁾ 노인학교(경로대학) 교사는 일반 정규적인 학교의 교사와 달라야 한다. 이것은 교사에 비해 학생들의 연령이 높고 특정분야에 있어서 교사보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에게는 투철한 경로의식이 필요하며 예의바르고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는 ‘사제동행의 원리’이다.²⁸⁾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사이에 기본적인 동등관계가 형성되고 그 같은 합의를 전제로 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 노인교육은 일방적인 지시나 학습자의 맹종이 아니라 상호공동으로 모색되어야 하고 교사는 항상 협력자로서의 역할기능을 해야 한다. 넷째는, ‘생활화의 원리’이다.²⁹⁾ 노인학교의 교과과정은 노인들

26) 박재간, 노인문제와 그 대책 (서울: 이우출판사, 1979), 105

27) Ibid., 104.

28) 박재간, 104.

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일상의 문제중심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개별화의 원리'이다.³⁰⁾노인들은 특히 개인차가 심하다. 노인들의 지적인 능력, 신체적 건강, 학력, 경험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학습이해 속도와 해석의 차이가 다르다. 이러한 노인교육의 특징은 일반 성인교육, 즉 첫째, 대화를 통한 문제의 접근과 해결책 모색방법, 둘째, 작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방법, 셋째, 강연 또는 세미나, 넷째, 역할분담의 연기를 통한 교육방법, 다섯째, 견학을 통한 교육방법, 여섯째, 영화를 보여준 후 토론하는 방법³¹⁾ 등은 유사하지만 노인교육의 경우 교육 참가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보다 더 강조된다. 그에 따라 노인들의 특수한 환경과 그들의 문제점을 사전에 세밀히 분석한 다음 그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노인들 스스로 문제의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4. 노인교육의 목표

노인은 현 사회에서 교육의 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양로의 대상 또는 복지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의 차원에서 볼 때 기독교교육이 '태에서 무덤까지'를 그 범위로 하고 있는 한 노인교육은 가장 소중한 종말적 시기으로써 계속되어온 교육의 추수기라고도 할 수 있다. 동시에 삶을 끝맺음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대체적으로 노인교육 목적은 이미 설정되어 사용하고 있는 교육목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이란 각 학습자 자신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보다 더 성숙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다.

노인교육의 목표를 정할 때에는 노인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동시에 사회가 바라는 것을 합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노인들의 욕구에 대해 조사한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는데 칼슨(R. W. Carlson)이 조사한 '바람직한 노인 상'³²⁾은 다음과 같다.

29) 박재간, 104.

30) 박재간, 104.

31) 김근홍, 한·독 노인복지이해, 462.

32) 고용수, "노인을 위한 교육과정 작성 지침", 노년학을 배우시다, 윤경남 외 (서울: 홍성사, 1994), 224.

하나, 계속해서 배우고 변화와 새 생각에 열려 있는 자
 둘,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
 셋, 의견이나 행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자
 넷,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아는 것
 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는 자
 다섯, 내일을 두려워하기 보다 기다리는 자
 여섯, 일의 긍정적인 면을 볼 줄 아는 자
 일곱,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과 교통할 수 있는 자
 여덟, 다른 사람에게 줄 능력이 있는 자
 아홉,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지닌 자
 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는 능력이 있는 자
 열 하나, 자신을 잘 돌보는 자
 열 둘, 유머 감각이 있어서 그 눈에서 빛이 나는 자

행복한 노인이란 어린이처럼 욕심없이 순수한 창조적 놀이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한 겸손과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확신을 갖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다.

노인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긍정적 자아상을 갖도록 자기생활에 만족함과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협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러 왔노라.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고 하신 삶으로 노년생활의 방향을 잡아가도록 돕는 일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육체적 쇠약과 함께 떨어지기 쉬운 영적 생활을 늘 깨우쳐서 보다 깊은 주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노인교육의 내용

노인교육의 내용은 노인의 위치를 파악한다면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신체적 영역, 종교적 영역 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³³⁾ 노인목회를 의식하면서 노인복지 측면에서 정리해 놓은 것을 수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³⁴⁾

하나, 연령에 따른 신체의 생리적 변화와 이에 적응하는 방법
 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최신동향

33) Ibid., 228.

34) 고용수, 497.

셋, 젊은이들과의 세대차이를 알고 이에 적응하는 방법
 넷, 정년퇴직 후에 새로운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려는 태도 갖기
 다섯, 배우자, 동료들의 사망에 따른 생활방법의 조정과 소외감이나 허무감을 극복하는 방법
 여섯, 동년배 노인들과 친교유지
 일곱, 가정, 직장, 사회에서 일과 책임을 합당하게 물려주는 방법
 여덟, 노년기에 알 맞는 간단한 운동
 아홉, 건강유지에 알 맞는 섭생방법

여기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노인들이 어른들의 품위를 지키는 것과 여가활용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인복지도 좀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노후보장에 관한 것,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것,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것 등 당장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노인과 식생활이든지, 교통안전이든지 성인병 예방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여 노인들이 '이것은 나를 관리하는데 당장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갈급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이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제 5 절 노인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이해

실천신학의 한 분야이면서도 실천적 이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윤리학은 학문의 특성상 실천이라든지 아니면 실천방법을 구체적으로 찾도록 요구하게 된다. 그것을 간결하게 정리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노인목회에 관한 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이웃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또는 사회구조적 관계이다.³⁵⁾

개인적 관계는 대단히 소박하고 실제적이고 우리의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건들을 대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선한 사마

35) 맹용길, 노인복지목회론, 79.

리아 사람 비유에서 볼 수 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눅 10:25~37).

이 비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웃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즉, 전자는 살리라는 말로서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후자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이웃을 찾아서 내가 이웃이 되는 것이다. 둘째, 만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셋째, 만난 이웃에게 가까이 가서 문제해결에 들어가는 것이다. 넷째, 만난 이웃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기본적 욕구가 가장 요구되는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 더 나아가 나그네라는 상징적 이름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기본적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윤리학은 우선적으로 도와주라고 제시한다. 노인목회에서도 기본적 욕구가 심한 정도에서 우선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나, 만나는 순간마다 해야 할 것이다.

자기가 먼저 사랑하고 도와줄 것을 제시하는 기독교윤리학은 그렇지 않을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으신 것을 상기하게 된다(마 23:4). 야고보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있다(약 2:15~16). 즉,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하고 할 수 없을 때 그 길을 안내하여야 한다.

노인목회와 기독교윤리학의 관계에서, 특히 미시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뿌리를 찾고 그 기반 위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노인목회가 독자적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노인목회 실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 더욱 분명한 신앙기반을 가지고 이웃에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는 실천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윤리학은 뿌리가 되어 이 기반을 통해 노인목회가 더욱 확실하고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³⁶⁾

노인목회와의 관계에서 기독교윤리학의 역할은 교회생활이 우선 그것의 대안적 사회(alternative society)로서 그리고 변화시키는 본보기(transformative example)로서 작용하며 그러한 삶으로 연장되게 한다. 즉, 기독교윤리학은 교회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노인목회에 적용되고 확대되고 응용될 수 있게 하여 대안적 사회나 변화시키는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노인들은 바로 교회생활의 일부분이며 함께 하는 이웃이며 우리는 그 이웃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윤리학은 노인목회와의 관계에서 통합적 목회를 하게 한다. 즉,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치유하는 것(curing or sanctity of life)과 이웃이 만족감을 가지고 기쁨과 편안함을 갖게 하는 것(caring or quality of life)을 실천하게 한다. 목회는 철저하게 봉사(diakonia)이다.³⁷⁾ 이것은 다음의 성경말씀에 근거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마 23:8).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
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
기는 자(diakos)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 23:9~12).

36) Ibid., 83.

37) 맹용길, 84.

기독교윤리학은 노인목회와의 관계에서 사회개혁에 협력한다. 이것은 거시적 의미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미시적 의미에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정의실현, 평화실현, 피조물의 질서보전과 회복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적이고(supportive), 보충적이고(supplementary), 대리적인(substitutive) 접근방법을 통해³⁸⁾ 도움을 줄 수 있다. 노인목회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클라이언트³⁹⁾로 수용하고 도움을 주려고 한다. 즉,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려고 한다. 또 다른 여러 학문들과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방법과 기술과 기법을 가능한 한 넓게 수용하여 활용하게 한다. 이것은 연결망(networking) 개념에서 활용하게 한다.

기독교윤리학은 노인목회에 관계하여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는 동기를 부여하고 물에 빠져 있는 사람과 같이 기본적인 욕구를 가진 노인들에게 교회의 정신과 방법으로, 그리고 교회의 맥락에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직접 서비스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독교윤리학은 미래의 차원에서 노인목회가 노인을 클라이언트로 수용하게 하고 서비스의 방법과 기술과 기법을 찾게 한다.

제 6 절 요약 및 결론

노인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교회사에서 본 노인과 종교개혁자들의 노인이해를 살폈다. 칼빈은 노인을 인생의 성취의 단계로 이해했고, 크리소스톰은 연혼의 성장과 발전과 진보의 차원에서 노인을 이해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바른 이해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신학이론들에 근거하여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은 노인들은 쓸모 없고 무능한 지나가 버린 시대의 사람들로 대우하는 우리의 문화적 풍토를 하루 속히 극복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에 근거하여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 놓은 심오하고도 값진 지혜들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현명함을 회복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노인이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에 밀

38)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 (서울: 한울, 1992), 181.

39) 사회복지에서는 수혜자를 의미하고, 상담학에서는 내담자를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전문적인 용어이기에 사회복지에서는 그대로 클라이언트라 쓴다.

려 사라져 가는 퇴물이 아니라 존경과 하나님께 은총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하나의 객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개혁자들도 성경에 말하는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노인들도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 연령에 맞게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윤리학 측면에서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한 생명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노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정성을 다해 돌보라는 것이다.

노인문제는 목회적 차원에서 앞으로 심각한 도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교회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그 분야에서 일할 전문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노인문제를 다각도로 다룰 수 있는 기구나 조직의 구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노인목회는 교회공동체가 노인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선한 생활의 보상이며 경험과 지혜의 소유자이며 존경받을 자로 깊이 인식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3 장

노인목회의 존재이유에 대한 고찰

교회의 사회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삶의 본질을 표현한다. 또한 사회봉사는 선포된 말씀이 실천되는 신호이자, 앞으로 오실 주님과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그의 나라를 가리키는 징조이다.⁴⁰⁾ 교회의 사회봉사의 신학적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심(servanthood)으로 표현된 '디아코니아'의 이해로부터 비롯된다. 디아코니아란 '섬긴다'(serve)라는 말에서 온 '봉사'(service) 혹은 '사역'(ministry)의 개념으로서⁴¹⁾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 모범을 보이셨고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삶의 한 표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는 이 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에 그래도 가까운 실체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동시에, '봉사'라는 개념이 용어적으로 성경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본 다음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봉사에 대한 근거들을 검토하여 그것을 토대로 행해진 초대교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행해진 사회봉사의 역사적 이해를 살펴며 노인목회를 위한 사회봉사에 대한 전(前) 이해 차원과 노인목회를 행할 존재이유를 사회봉사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제 1 절 사회봉사의 개념에 대한 성경적 고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라는 일반개념에 적절한 구약 히브리말은 찾기가 힘들지만 그러한 사회의 여러 가지 실체들은 구약성경에 나타나 있고 그것들을 가리키는 히브리말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

4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교회사회봉사총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140.

41) Ibid., 153.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모임은 가족공동체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족장들의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그들이 부리는 사람들과 그들이 접촉하던 이웃사람들까지 포함하기에 그 나름대로 하나의 작은 사회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족장들의 사회'는 아직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전의 사회로서 족장들과 그 직계 가족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는 것이어서 기독교사회봉사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구약성경에 나타난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벨 아비'('아무개 아비의 집'/창 12:1)라고 한다. 이보다 조금 더 큰 것을 히브리어로 '미슈파하'(이를 보통 우리 개역 성경은 '족속'으로 옮기고 있다/창 24:38)라고 한다. 이는 넓은 의미로서의 '씨족'(사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종족'(사회), '부족'(사회)으로 볼 수 있는 사회가 있는데 이를 구약 히브리말로 보통 '쉐벨'('지파'/수 7:1)라고 한다.⁴²⁾

출애굽기에 이르러 우리는 야훼신앙을 중심으로 한데 뭉친 사람들의 모임인 이스라엘을 만나게 된다. 이 사람들의 고유명사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말고도 '암 야훼'('야훼의 백성')라고도 불린다.⁴³⁾ 그밖에 어떤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를 '카할'('회중', '대회')이라 불렀는데 나중에 이는 야훼께 종교의식을 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쓰이게 된다.⁴⁴⁾

한편 신약성경에 나타난 의미를 살펴보면 '근처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헬라어 '페리오이코스'(Περιοικος)가 있으며 '근방의 또는 가까운 사람'을 뜻하는 '호 플레시온'(ὁ πλησιον) 등이 있다.⁴⁵⁾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사회란 단순히 근처에 가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사람의 언약에서 볼 때 이웃과 형제라는 말도 동의어임을 알 수 있듯이, 두 개념 모두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관계로 설명되는 가장 가까운 사회관계를 표시한다.

신약에서의 사회란 주로 구약의 언급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⁶⁾ 특히 예

42) Roland de Vaux, 구약시대의 생활풍속, 이양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26.

4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113.

44) Ibid., 114.

45) 차기천, 지역사회선교를 위한 봉사 프로그램 가이드 (서울: 도서출판 좋은생각, 1994), 20.

46) 마 5:43; 19:19; 22:39; 막 12:31-34; 눅 10:27; 행 7:27; 롬 13:9-10; 갈 5:14; 히 8:8-11; 약

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웃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신다(눅 10:25~37).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이웃에 대한 친절이 사랑의 결과임을 강조하였고, 이웃이 되는 자는 자비를 베푸는 자임을 정의하심으로, '이웃'이란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또한 이웃의 문제를 자신들의 절박한 문제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에 동참함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나 가리킨다(마 25:31~46).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에 근거하여 이웃과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주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봉사는 의무로서 주어진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 사랑의 전(全) 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실천적인 봉사는 하나님나라의 궁극적인 건설을 목표로 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적 행위의 핵심이며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갖는 소망이다.

'사회'의 경우와는 달리 '봉사'에 해당하는 개념은 구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봉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발'이다. 이 '아발'에서 '섬기는 사람' 곧, '종'을 뜻하는 '에벵'이 나온다. 재미있는 것은 구약성경에 '섬긴다'라는 동사는 271번 나오는데 비해, '종'이라는 명사는 거의 세 배 이상 많은 800번이나 나온다는 점이다.⁴⁷⁾

'아발'을 우리가 '섬기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때, 이는 구약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무리의 사람들을 위해 정해진 기간이나 또는 한평생 일함을 뜻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이 낱말이 때로 구약에서 사람의 사람됨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서 '일하다'를 뜻한다는 점이다.⁴⁸⁾

'섬기다'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는 '샤랄'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하는데 쓰이는 경우를 말고는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가리킨다. 또 '누구 앞에 서다'라는 뜻을 가진 '아말릴네'가 있는데 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잘 모시기 위해 그 윗사람 앞에 서서 명령을 받아 하는 몸가짐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여호

2:8.

4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114에서 재인용.

48) 박동현, "성서마당: 처음 땅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땅에 갈 사람이 있어야지" 살림, 1992년 2월호 187.

수아가 모세에게(신 1:38),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왕하 4:12),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왕하 5:15),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겔 44:11),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궁에서(단 1:5) 그리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단어가 ‘봉사’를 뜻하는 ‘디아코니아’(διακονια)와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두류오’(δουλω)가 있다. 이 단어는 ‘노예가 되는 것’,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직자로서의 자선적이면서 전례상으로 바치는’ 봉사를 나타내는 ‘레이투르기아스’(leitourgias)가 있다.⁴⁹⁾

이상에서 볼 때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회봉사’의 기본 바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신앙생활의 일치된 삶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언자들도 이를 지적하고 깨우쳐 주었던 것이다.

제 2 절 사회봉사에 대한 구약 성경적 이해

구약시대의 사회봉사의 기본 바탕은 이스라엘의 종교의식과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본문으로 아모스 5장 21~24절, 이사야 1장 10~17절, 예레미야 7장 1~15절을 들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종교의식은 제 아무리 성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곧 종교의식에 대한 비판과 사회에 대한 비판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스라엘사회의 ‘섬김’은 한 마디로 사회적 약자들을 섬김이라고 줄여 말할 수 있다. 이는 한 사회에 하나님의 평화, 곧 ‘모든 면에서 이지러짐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는 자신을 지킬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을 잘 모시고 그들의 편을 들어 치켜 세워 주어야 함을 뜻한다.

이들을 섬기는 것이 곧 사회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사회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을 잘 섬기기로 한 것은 그냥 예언자들의 말로만

49) 차기천, 지역사회 선교를 위한 봉사 프로그램 가이드, 22.

된 일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된 것이기도 하다(출 20:24~23:12). 그 근본 흐름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이는 또한 불우한 이웃과 사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공동체적 생활에 대한 가르침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사회봉사가 우선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웃을 위한 사랑과 관심인 것으로 돌보라는 말씀이고, 이러한 봉사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돌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돌보아 주어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로부터 무시당함과 억울함과 외면 등을 당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법률 전반에 걸쳐 약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사회에서 처음에는 종교적인 의미를 지녔던 제도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로 제도화된 경우들을 구약성경 가운데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일조이다. 십일조제도의 그 기원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사회봉사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신명기 26장 12~15절을 들 수 있다.

삼 년마다 거두어들이는 십일조를 레위인과 떠돌이 나그네였다가 이스라엘사회에 정착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을 먹이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십일조가 종교의식규정에 어긋나는 것, 곧 부정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신명기 26장은 이렇게 십일조가 쓰일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어서 흠 있어서는 안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신명기 5장 12~15절에 나타난 안식일 제도 역시, 옛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구약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아 그 본래의 뜻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아무튼 이스라엘사람들은 이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관련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애굽과 관련시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흔히들 안식일 계명을 종교적인 면으로만 풀이하지만 사실은 신명기 5장에서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우리는 안식일이 일차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들인 종들과 나그네들의 휴식까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놓칠 수가 없다.

구약에 나타난 사회봉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한국교회의 사회봉사가 일단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겨냥한 것이어야 할 것을 가르쳐준다. 둘째, 떠돌이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특히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공로가 있고 기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총체적인 것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약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을 좋게 만드는 일을 찾아 하나감으로써 보다 넓고 적극적인 의미의 사회봉사를 해야 함을 가르쳐준다.

제 3 절 사회봉사에 대한 신약 성경적 이해

신약성서의 전체 이야기는 '봉사'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⁰⁾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사건에서 구체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섬김의 사역과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사역을 통해 오늘의 지상의 교회가 서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선교적인 과제를 남겨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이 서 있는 자리는 곧 사회봉사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봉사라는 말을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에 따라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행하는 봉사를 말한다. 봉사의 근원이 되는 최초의 봉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봉사를 의무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봉사하는 자로서 살았으며 봉사의 교훈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웃사랑에 대한 사랑을 계명과 복음의 핵심으로 가르치고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실천을 봉사라는 말로 일반화시켜 표현했다.⁵¹⁾

섬기는 일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마 4:23)이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씀전파와 이 말씀의 내용인 사랑과 구원을 실천하는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도와 봉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사랑과 정의와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으면 반드시 그것이 실천되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 복음전파는 그것 자체로서보다는 실천됨으로써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⁵²⁾

교회가 행하는 사회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의 모습으로 사회와 세계를 향한 복음의 선포행위로 실천하여야 한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려 할 때에만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고전 9:19-23). 그래서 교회의

50) 고용수, 사회봉사를 위한 교회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4), 458.

51)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 11-12.

52) Ibid., 31.

본질적인 모습은 사회봉사, 곧 종의 모습에서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⁵³⁾ 그러나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전도와 봉사가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중심주의가 행위나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못했던 교회사적 전통이나 신학도 봉사를 등한히 하게 된 원인이다.⁵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핵심은 하나님나라였다. 하나님나라가 왔다고 전하는 일이었다. 그러면 하나님나라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가난한 자들이 해방되고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의를 위해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기쁨을 얻는다고 말한다.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따라 실천하는 모든 행위들은 선교행위이며 봉사활동이다. 즉 사회구원을 위한 실천의 행위가 봉사라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봉사는 선교의 목적과 과정으로서의 봉사이며 그래서 선교적 봉사라고 할 수 있다.⁵⁵⁾

제 4 절 사회봉사에 대한 신학적 이해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강조는 20세기 신학자들의 표현 속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왔다. 본 웨퍼는 그의 저서 옥중서신에서 ‘종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는 이웃을 위해 존재할 때만이 진정으로 교회”라 부를 수 있다. 성직자는 세속인들의 삶의 문제에 지배자의 성격이 아니라 돕고 섬기는 자세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⁵⁶⁾

리차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5가지 유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인 “변혁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역사 속에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책임을 가장 분명하게 잘 표현했다고 설명했다.⁵⁷⁾ 윈터(Gibson Winter)는 기술

53) 고용수, 사회봉사를 위한 교회교육, 458.

54) Ibid., 13-14.

55) 고용수, 16.

56) Dietrich Bonhoeffer,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N.Y. : Macmillan Co., 1967), 203-204.

57) H. R. Niebuhr, Christ and Culture, 김재준 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2), 190

사회 속에서 교회가 지닌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교회를 하나의 기구적 교회로서의 '제도성'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역사적 책임을 지닌 하나의 '공동체적 교회'로서 '종된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⁵⁸⁾

그가 말하는 종된 교회란 인간의 모든 구조 속에 절대성을 가장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투쟁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고통과 아픔을 나누면서 자유 안에서 미래를 창조하도록 부름 받고 있는 공동체로 규정짓는다. 하비콕스는 교회는 '하나님의 전위대'라고 규정짓고, 하나님의 집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며 교회는 종이요, 종의 신분이 지닌 첫째 특징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 다른 분의 집안에 살고 있음을 강력하게 강조했다.⁵⁹⁾

이같이 종으로서의 교회이해는 교회와 사회의 양자관계 속에서 새로운 선교와 봉사의식을 유발시킨다.⁶⁰⁾ '세계는 하나님의 위대한 활동 무대'⁶¹⁾라고 말한 호켄다이크(J. C. Hokendijk)의 말처럼 교회가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세상이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근거는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복음의 정체성 때문이다. 기독교복음은 육체와 영혼, 개인과 사회, 신앙과 생활, 현세와 내세를 구분하지 않는 전체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수평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강조한다(마 22:37~40). 성경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비하여 부차적인 것으로나 그것과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보질 않는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요일 4:20).

제 5 절 사회봉사에 대한 역사적 이해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교회가 근본적으로 저 위에서 무엇을

58) Gibson Winter, *The New Creation as Metropolis* (N.Y. : Macmillan Co., 1963), 55.

59) H. Cox, *세속도시(The Secular City)*, 손명걸 외 5인 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4), 179.

60) 고용수, *사회봉사를 위한 교회교육*, 457.

61) J. C. Hokendijk, *흘어지는 교회* (The Church Inside Out), 이계준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40.

했고 막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저 아래서 무엇을 했느냐는 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기독교 교회역사의 보다 본질적인 부분은 신앙과 사랑이 결합되고 남을 위해 봉사를 실천한 인물이나 사건들을 서술하는 일일 것이다. 교회의 권력과의 관계나 사회적인 비중을 서술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더 적합한 교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⁶²⁾ 교회의 봉사활동은 교회봉사가 요구되는 시기마다 많은 곳에서 무수한 사람들에 의해 수행된 폭넓은 운동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 초대교회의 사회봉사

초대교회에서는 예배(leiturgia)와 봉사(diakonia)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한 '애찬'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 있다. 물론 초대된 대상들은 대체로 기독교 신자들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고아나 과부들을 위로하고 돕는 행사가 많았다(행 6:1~6).

최초로 나타난 봉사활동이 구제사업이었고 이를 전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구제를 위한 사역자(실제는 전도자로 활동 : 스테반-6, 7장, 빌립-8장)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바빠서 봉사하는 일까지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자 과부들에게 식량을 배급해 주는 봉사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일곱 사람을 뽑게 된 것이다(행 6:3). 이 전통은 사도시대를 지나 로마제국에서의 지하교회나 콘스탄틴 황제 이후의 카톨릭 교회, 동방교회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다.⁶³⁾ 이미 4, 5세기의 로마제국 교회들이 가난한 이들을 한 곳에 불러모아 수용시설을 갖추고 돌보는 수용소 제도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집 없는 외부인들을 자고 먹게 하는 수용시설로 출발했으나, 차츰 여행객들의 수용시설 이외에도 고아들의 수용소, 환자들의 수용소, 노인들의 수용소들이 생겼으며, 이것이 고아원, 병원, 양로원들이 생기게 된 유래였다.⁶⁴⁾

봉사활동을 직제로 만든 것은 바로 초기 카톨릭 교회 봉사활동의 특징이었다.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로 개종부터 박해시대에 교회가 하던 사회봉사를 이제는 기독교적이라고 자칭하는 국가가 담당하겠다고 나서게 되었다.⁶⁵⁾ 이 때 교회의 사회봉사활동

62)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 91.

63) 김기원, 기독교 사회복지론 (서울: 대학출판사, 1998), 90.

64) Ibid., 99.

을 통해 해낸 업적은 놀랄만한 것이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고통을 줄이고 돌보는데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인원과 물질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행위가 의롭게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은 사회봉사사업을 결정적으로 고양시켰다.

로마제국이 망하고 아직 제국교회가 해체되기 이전인 5세기 무렵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았던 시대에 이미 봉사사업을 담당하는 승려족이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금욕적인 이상과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사상이 융성하게 된 것은 조직적인 봉사활동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었다.⁶⁵⁾

봉사라는 말은 특히 6세기, 7세기에 수도사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돕던 수도원의 이름이었다. 이것은 기관에 의한 봉사사업이 처음부터 이를 책임지는 어떤 공동체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⁶⁷⁾ 그것이 또한 시대가 변해도 해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또 봉사직이 이 시기에 세속화하고 관직화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봉사의 사명이 현금사상과 봉사의 윤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2. 중세시대의 사회봉사

중세사회로 접어들면서 기독교 사회봉사는 더욱 기관화 되어갔다. 기독교 자선정신은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이 중심이 되어 학교, 병원, 구빈원을 설립하였고, 고아, 과부, 노인, 병자,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구제활동을 전개했다. 당시 주요한 자선사업형태는 신자 상호간의 상호부조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신자를 방문하고 석방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며, 고아와 기아의 보호였다. 주요 자선기관으로는 사원 숙박소, 구빈원, 십자군, 기사단 공익 전당포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구빈원과 숙박소는 그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능의 전문화로 15세기에는 정신병원, 성아 교육원 등의 시설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세에는 고대사회에서처럼 교회가 빈민을 돌보고, 병원 등의 기관이 사랑의 행위를 전하는 중심지가

65) Ibid., 98.

66) 김종연, “한국교회 사회봉사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 (신학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6), 22.

67) Ibid., 22.

되지 못했다. 그것은 감독중심의 봉사활동이 타락한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⁶⁸⁾

한편 중세에는 여러 수도원들이 생겨남으로써 고대사회의 봉사기관이었던 외부인 숙소, 빈민 수용소, 고아원, 유아원, 양로원 등의 사업을 계승할 수 있었다. 베네딕트 수도원과 같은 수도원 생활의 개혁이나 새로운 수도원들의 설립은 봉사활동을 크게 부흥하게 만들었고 수도원과 수도회 또한 도시별로 조직된 조합들의 봉사사업을 통해 놀라운 활동들을 했다.

3. 근대시대의 사회봉사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사회제도와 조직의 대변혁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사용되었다. 하나는 구민법을 중심으로 한 빈민구제였고, 다른 하나는 경제, 교육, 의료제도의 개선으로 빈곤을 예방하는 방법이었다. 전자를 보완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 자선조직협회였다.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는 처음으로 독일에서 발생하여 영국에 소개되었고 다시 미국에 전해졌다. 독일에서 1788년 함부르크시에서 구제사업조직이 나타났고, 영국에서는 1896년 런던 자선조직협회가 결성되었다. 미국에서는 런던 자선협회에 관여했던 영국의 구르틴(S. H. Gurtin)목사가 1873년 버팔로시에 이주하여 1877년 자선조직협회를 창설했다.⁶⁹⁾

4. 19, 20세기의 사회봉사

교회의 사회봉사는 늘 가난하고 고통 당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구호해 주는 사업들로 발전했다. 병원, 고아원, 양로원 외에 난민 구제사업, 피난민 구호사업, 유치원, 청소년 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감옥에 갇힌 자를 돕는 기관, 미혼모나 독신 여성들, 윤락녀를 돕는 사업 등으로 발전했다.

이 시기의 봉사의 개념이나 교회사적 전통 속에서도 항상 사회구호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었다. 차츰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사회적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러한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변혁시켜야 한다는 생각

68) Ibid., 94.

69) 최순남,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교회의 역할" 기독교사상, 1995 3월호, 67.

과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영향을 주고,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봉사나 선교의 활동이 나타나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음운동이나 종교사회주의운동, 혹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나오는 책임사회운동이 교회의 봉사활동이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선교적 봉사로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 와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에 휩쓸리고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비 성경적이라고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기존교회 밖에서 노동자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 이들에게 선교하면서 노동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산업선교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은 교회의 봉사를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제3세계의 교회들이 민족해방과 사회혁명사상 과정을 통해 해방신학적, 정치신학적 경험들을 갖게 되면서 봉사의 문제를 구조 개혁적인 사랑과 정의의 문제로 점점 더 부각시키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개인을 사랑하는 봉사가 사회정의 실현을 비난해서도 안되고, 사회변혁의 행위가 개인에 대한 사랑을 잃어서도 안 된다.

제 6 절 요약 및 결론

이 장에서는 사회봉사의 성경적·역사적 이해를 살펴보았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그리고 신학적인 이해를 통해 살펴본 성경의 이웃사랑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인간에게 한 것도 아니며, 노예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안에 있는 인간에게 한 말씀이다. 그것은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들 된 자의 이해에 호소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고정된 율법 같은 것이 아니다. 그 뜻은 상황과 더불어, 즉 일정한 상황에 처한 인간에게 그 상황을 통해 전달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를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미이다. 기독교의 사회봉사는 노예의 복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결단이다.

5절의 사회봉사의 역사적 이해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시대 시대마다 상황과 지역의 형편에 맞는 사회봉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커다란 물결로 다가오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문제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고 우리 시대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봉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제 4 장

노인목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

복지의 개념을 교회의 기능과 연관시켜 살펴보면 교회 내적인 영성훈련 기능과 외적인 사회복지 기능이 있다. 교회가 본질적인 기능을 무엇으로부터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⁷⁰⁾

첫째는 에클레시아(eklesia)라는 어원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에클레시아는 그 자체가 교회라는 헬라어로 '부름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용어의 주된 의미는 교회의 내적인 기능인 예배와 영성 훈련으로 성도 자신의 불가지적 복지의 기능을 강조한다.

둘째는 코이노니아(koinonia)라는 어원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코이노니아는 보통 '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헬라어의 뜻은 '친구로 사귀다', '서로 나눠 가진다'는 것으로 어떤 물건을 공동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며, 성도들의 신앙적 교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안에서 영원한 형제로 언제나 서로가 살아있는 인격적 교제를 가지며, 공유하고, 공생하고,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셋째는 디아코니아(diakonia)라는 어원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디아코니아는 보편적으로 '섬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해석은 '봉사', '준비하는 일', '구제', '부조' 등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교회가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봉사는 선교를 위한 수단이나 그 자체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용어는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며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사회봉사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봉사와 지역사회를 돌본다는 의미에서 목회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사업에 인간이 참여하여 일하는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노인도 목회의 구체적인 대상이

⁷⁰⁾ 김장대, 기독교 사회복지학 (서울: 도서출판 진흥, 1998), 30.

며 지역사회봉사를 통해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를 누릴 권한이 있다.⁷¹⁾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을 위한 선교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인학교(경로대학)와 경로식당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내용의 프로그램은 참으로 다양하다. 그렇지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건강에 관한 것이 가장 많고 가장 우선적인 것 가운데 하나로 취급된다. 둘째는 오락적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다시 말하면 소풍, 등산, 체육대회 등이다. 셋째는 교양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교양이라 함은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한 것도 되지만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글 배우기, 국악 배우기, 찬송 부르기, 민요 배우기, 성경공부, 각종견학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등이다. 끝으로 잔치의 성격을 지닌 프로그램이다. 잔치의 성격을 띠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계속되는 활동을 통해 연속성을 찾을 수도 있다.⁷²⁾

교회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 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노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며 그들이 사는 동안에도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선교적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노인을 대할 때에 그것을 일차적으로 해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노인이나 그렇지 않은 노인을 구별할 필요는 없으며 그들 모두에게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가운데 예외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선교적이어야 한다.

교회는 노인들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⁷³⁾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은 바로 서비스의 유형들을 말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또는 운용을 하는 가운데서 전체적인 의미로라도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⁷⁴⁾

한국교회 노인학교 연합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73회 총회에서 노인선교 대책 수립방안의 하나로 발의돼 창립되었으며,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 79회 총회에서 총회사회부 산하기관으로 인준되었다. 이 연합회는 이후 1991년이래 1998년 말까지

71) 맹용길, 노인복지목회론, 19.

72) Ibid., 156-158

73) Melvin A. Kimble et al. ed., Aging, Spirituality, and Religion: A Handbook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20.

74) 맹용길, 노인복지목회론, 158.

매년 각 한 차례씩 전국 노인학교 지도자 교육세미나와 '세계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노인학교 연합체육대회를 각각 개최해 오고 있다. 현재 조직은 교계, 학계 등 각 계 인사로 구성된 12명의 자문 위원회에 주로 교계 인사가 주축이 되어 임·역원직을 맡고 있으며 별도로 교육훈련부와 연합사업부를 설치, 연례행사를 집행하고 있다. 연합회에 가입한 교회는 1999년 3월말 현재 248개이다.⁷⁵⁾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전국 노인학교연합회가 조직되어 매년 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모임을 갖고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하여 운용에 관한 논의를 하는데, 단순히 모여서 강연을 듣고 친교모임을 갖는 수준보다는 21세기 노인목회의 보다 넓은 비전을 가지고 전문인을 양성하는 기회로서의 모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⁷⁶⁾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찾고 교회지원의 프로그램 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나타내야 한다. 또 이러한 프로그램이 교회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아야 하고 노인들의 가족에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하며 어떠한 유의점이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세대 노인들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시기를 살아온 분들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나라를 빼앗긴 국민으로 온갖 탄압과 빈곤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었으며, 민족상잔의 비극도 겪었고, 군사정권 하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는 긴장과 불안 속에서 오로지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희생하여 온 분들이다. 현세대 노인들은 평생동안 가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의 노력을 해왔건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세대이다.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도, 노후연금의 혜택도 없이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난과 질병, 고독감과 역할의 상실과 소외로 인해 찾아오는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국제화, 정보화, 핵가족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와 아울러 노인문제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요인의 변화에서 생겨날 뿐 아니라 사회적요인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어렵다.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는 인류사회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문제이기에 그 해결방안을 찾는데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

75) 원준자, "한국 노인복지정책 개선방안과 교회의 역할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풀러신학대학원, 1999), 155.

76) 맹용길, 노인복지목회론, 158-159.

한 국가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러한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정부의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보완정책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 볼 수도 없기에 보다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많은 노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노인문제의 개념과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한 한국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체계롭게 풀어가야 하며 노인목회를 위해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노인문제와 발생 배경

1. 노인문제의 개념

노인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과 노인문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노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관적 판단이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또는 기능적 상태에 따라 또는 일정한 연령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문제는 노인이 살고 있는 사회환경과 생활태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실'이라는 개념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노인이 되면 누구나 경험하는 심신 쇠약은 노인을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의존하도록 만들며 심신기능의 쇠퇴는 노동능력을 감퇴시킴으로 노인을 직업생활에서 물러나게 하여 결과적으로 소득상실을 가져오게 되며 그로 인해 자기역할과 지위도 상실되어 사회 심리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곧 노인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체로 개발도상국에서의 노인문제는 빈곤문제와 건강문제가 급선무이다.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호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경제문제나 의료보호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고, 주로 여가 및 사회참여, 고독감 등의 사회 심리적 문제가 노인복지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으로 노인문제가 빈곤문제로부터 건강,

사회참여, 고독감문제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정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것과 아울러 한국교회가 이러한 노인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이다. 물론 교회가 노인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책임질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의 명령이기도 하다. 그래서 2절 이후에 교회에서 행할 노인목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노인문제의 발생 배경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발생은 약화되어 가는 현대 노인의 활동능력과 가족들의 부양기능을 보호하고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사회지원체계가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

(1) 출생률, 사망률 저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른 현대인의 생활수준향상과 개선된 보건의료서비스는 출생률과 사망률을 줄이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 노인인구의 절대수와 비율의 증가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이후 산업경제가 발전되고 보건의료서비스와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출생률, 사망률이 대폭 줄어들고 국민의 평균수명이 상승되어 결과적으로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1960년대에서 2020년대까지의 인구성장추이를 보면⁷⁷⁾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출생률의 저하로 인한 젊은이 부족으로 인한 인력난을 들 수 있고, 사망률의 저하로 자연인구 증가율의 저하와 노인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의 커다란 문제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77) Ibid., 131.

〈표 1〉 1960-2020년 인구성장추이

인구변화	단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총인구	천명	25,012	32,241	38,124	42,869	46,789	49,683	50,586
출생률	%	4.21	2.99	2.34	1.56	1.42	1.13	1.00
사망률	%	1.21	0.95	0.67	0.58	0.61	0.72	0.97
이민률	%	-	0.04	0.10	0.05	0.04	0.04	0.04
자연 인구 증가율	%	3.00	2.04	1.67	0.98	0.81	0.41	0.03
인구 성률	%	3.00	2.00	1.57	0.93	0.77	0.37	-0.01

표 보기 : * 자료는 통계청 자료임.

- 1) 총인구 / 각 연도 7월1일 기준.
- 2) 자연인구 증가율 / 출생률-사망률.
- 3) 인구성률 / 출생률-사망률-이민율

(2) 노인인구의 성비

노인인구의 성비(sex ratio)는 아래의 <표 2>에서 보는 것처럼⁷⁸⁾ 저 연령층일수록 성비가 높았고 고 연령층일수록 성비가 낮았다. 1990년 60~64세의 초기노인의 성비는 83.3%이었는데, 80~84세 노인의 성비는 39.1%이었고, 85세 이상은 24.9%로 아주 낮아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4배가 더 많았다. 이로써 우리나라 후기 고령노인자 중에서 여자가 절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높아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80세 이상까지 장수하는 것이 좋으나 만일 병이 나서 간병인이 필요할 때 가족이나 친척이 돌보지 못한다면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보호대책이 큰 문제가 된다. 가난하고 병들어 허약한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보호대책과 의료서비스, 장기간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78) 통계청,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8권 고령자, 1993.

〈표 2〉 노인인구성비

연령	1970	1980	1990
전 연령	100.8	100.5	100.7
60 ~ 64	83.3	83.2	74.7
65 ~ 69	71.6	72.5	71.6
70 ~ 74	62.1	61.5	64.5
74 ~ 79	53.2	47.8	51.3
80 ~ 84	45.9	36.4	39.1
85세 이상	39.8	26.9	24.9
60세 이상	69.8	67.3	64.8

(3) 고령인구의 증가⁷⁹⁾

사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지난 세월동안 노인인구의 괄목할만한 증가를 가져왔다. 60세 이상의 인구가 1960년대에는 14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5.5퍼센트였는데, 1990년에는 33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7퍼센트가 되고 2000년에는 500만 명으로 10.7퍼센트가 되고, 2020년에는 1천만 명에 육박하여 전체인구의 19.5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의 우리나라 전체인구 증가는 4천 300만 명에서 5천 100만 명으로 약 18퍼센트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는 199퍼센트가 증가하여 전체인구의 11배나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도 1990년에서 2020년 사이에 214만 명에서 633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85세 이상의 고령 후기 노인의 급증이다. 1990년에 28만 명이 안 되었는데, 2020년에는 무려 1백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80세 이상의 고령 후기 노인이 많아지면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과 심신장애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약화되어 자립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의존성 허약한 노인(frail elders)수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79) Ibid., 135-136.

들의 생계보호와 장기간호대책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나. 가족관계 요인의 변화

(1) 노인의 소가족화

근래에 와서 가족계획의 영향과 출산율의 저하로 평균 가족원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것처럼⁸⁰⁾ 1960년의 5.7명에서 1990년에는 3.7명으로 감소했고, 2000년에는 3.2명으로 예측했다. 가족원수의 감소는 곧 가정의 핵가족화를 의미하고, 이는 가족의 부양기능약화를 뜻하며, 가정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여성들의 과중한 부양부담을 나타내기도 한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중풍 또는 심신장애로 누워지내는 노인 등 가정에서 허약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표 3> 평균 가족원수

연 도	1960	1970	1980	1990	2000
평균가족원수	5.7	5.2	4.6	3.7	3.2

자료: 경제기획원,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확정 결과보고, 1987.
경제기획원, 인구동태 및 장래 인구추이, 1989.

(2) 노인의 별거지향

최근 우리나라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가 계속되면서 노인들이 자녀들과 별거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들의 별거율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군(郡) 단위의 지역에 사는 노인이 시(市) 단위의 지역에 사는 노인이 훨씬 많다. 전통적인 효도관이 강하게 남아 있을 농촌지역에 혼자 혹은 노부부만 살아가는 노인이 많은 이유는 농촌 청장년들의 도시 진출로 노인들만 농촌에 남아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앞으로 2000년대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노인수명의 연장과 핵가족화의 심화로 혼자서 사는 고령노인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심신 쇠약으로 자립 자조의 능력이 없을 때 각종 질병의 상태에 놓이

80) 통계청, 139.

게 될 때, 옆에서 돌보아 줄 가족이 없으므로 이들을 위한 보호대책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3) 자녀의 노인부양의식 약화

정부는 노인들의 부양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매년 효행자를 발굴, 포상하고, 어버이날 및 경로주관을 설정하여 경로 효친사상을 양양하고 여러 규정을 만들어 노부모를 자녀가 부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가 핵가족화와 더불어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자녀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자녀들의 가족관이나 효도관도 달라지고 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자녀들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부모와 자녀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부부와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자녀들의 부양을 받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4) 여성의 취업활동 증가

전통적으로 노인들의 부양은 가정에서 살림하고 있는 며느리나 딸들, 즉 여성 가족원들이 담당해 왔다. 이와 같이 노부모를 가정에서 밤낮으로 돌봐주던 여성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가정밖에 나가 취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족의 노인부양능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여권신장과 교육수준의 향상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겪고 난 이후로 여성의 취업기회가 확장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국제무역 경쟁시대에 접어들어 산업발전에 필요한 여성 노동력이 요구되고 있어 많은 기혼여성의 직장진출이 앞으로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들이 여성가족원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 사회적 요인의 변화

농경사회에서 노인들은 비교적 높은 지위, 역할, 권력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일어난 보건의료기술, 경제적 생

산 기술, 도시화, 교육의 대중화 등은 노인의 역할과 신분을 위축시키고 많은 노인문제를 가져왔다.⁸¹⁾

(1) 노후 생계비 문제

노후의 생계비는 연금이나 공적부조의 사회보장제도, 취업소득, 저축, 재산, 또는 자녀로부터의 도움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미 성숙되어 있고, 고령자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노후를 위한 저축이나 재산을 모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후 경제생활을 거의 자녀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취업에서 오는 소득으로 보충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노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인·가족기업연금 제도의 확충과 고령노동자의 정년연장 및 재취업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늦어도 중년기부터 본인의 노후를 위한 재산축적이나 연금신탁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보장대책이 필요하다.

(2) 노인의 취업욕구 증가

노인에게 취업기회를 준다는 것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일을 통해 심신건강을 유지하고 뚜렷한 역할을 행사함으로써 노후에 갖기 쉬운 고독감이나 소외감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노인취업은 정년 후 물품의 폐품처럼 취급되는 고령자 노동력을 활용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동시에 은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비를 줄일 수 있다. 정년퇴직 후 일정한 소일거리가 없어 집에서 놀다보면 수입감소는 물론 건강도 나빠져 요즘 노인들은 취업이 보약보다 좋다고 하며 재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요즘 직장에서는 55세를 전후하여 강제로 퇴직시키고 있어 고령자 취업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노인들의 취업기회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81) 통계청, 142.

(3) 보건, 의료서비스욕구 증가

노령기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는 건강이 약화되어 만성질환에 걸리기 쉽게 만들고 심신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의 동작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노인들의 질병 발생률은 비 노인층 발생률보다 2~3배 높고, 의료비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노인의료비부담은 생계비문제와 더불어 노후생활에 가장 걱정되는 문제이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노인의 보건, 의료서비스욕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노인의료비도 증대하게 될 것이다. 의료비의 증대는 결국 국민부담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마련해야 하며, 예방의학의 정착과 노인전문 의료기관의 증대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4) 노인의 여가욕구 증가

노후생활은 곧 여가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 여가의 개념은 젊은이들에게는 노동과 결부시켜 심신의 피로회복이나 기분전환을 의미하지만, 일정한 직업에서 은퇴한 노인의 경우는 매일 매일의 생활자체가 여가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가생활을 얼마나 유용하게 보내는가 하는 것은 노인에게 실로 중요한 일이다.

노인의 여가활동은 취미나 오락, 놀이, 관광, 운동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 봉사, 문화적 활동 등 광범위하다. 우리나라 노인은 서구의 노인들에 비해 경제적 조건이나 건강상태, 그리고 여가에 대한 사회화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여가활동의 참여도가 다양하지 못하다. 그러나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아울러 노인들의 경제적 여건 및 건강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여가활동도 양적,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활동 내용을 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이 동년배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 개인의 종교적인 활동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는 비교적 여가참여가 많았는데 이는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조직의 모임들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60대 초기 노인이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보다 여가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⁸²⁾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에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은 노인들보다는 보다 젊은

82) 이가옥 외, 노인생활의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4), 181.

노인들의 대외적인 활동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활동 내용(단위: %)

구분	전체	성 별		연 령 계 층			
		남	여	60~64	65~69	70~74	75세 이상
텔레비전, 라디오	94.6	95.5	94.0	97.1	97.3	94.5	86.5
친구, 친척 모임	41.0	49.1	35.8	50.7	44.8	34.5	25.5
종교생활	33.6	23.4	40.3	33.0	34.6	39.1	27.5
신문, 책 읽기	27.6	48.6	13.8	36.1	29.5	24.1	15.4
화투, 장기, 바둑	20.0	30.5	13.1	19.0	21.9	24.4	15.4
운동, 등산, 낚시	16.1	26.7	9.1	19.6	20.0	14.6	5.9
정원손질	15.3	14.5	15.8	18.5	18.1	12.1	8.8
외식, 영화, 전시회	8.4	11.0	6.7	9.8	8.4	9.6	4.6
뜨개질, 수예, 바느질	4.2	0.5	6.7	3.3	6.9	4.1	2.0
운동경기 관람	1.3	2.4	0.6	1.7	1.6	1.3	0.1
서예, 악기, 합창, 그림	2.6	4.7	1.2	2.4	3.6	2.0	2.1
우표, 골동품 수집	0.4	0.6	0.2	0.6	0.3	0.2	0.1

제 2 절 노인목회의 중요성

하나님의 교회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노인들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큰 사명이다. 노인에게 종교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종교는 노인들로 하여금 임박한 죽음을 준비하도록 도우며 생활의 유의미성과 중요성을 계속 느끼고 발전하도록 돕는다. 사람이 늙으면 완고해져서 사고방식을 바꾸거나 새로운 신앙을 갖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성령이 역사 하시는 기독교 신앙은 그 완

고함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노인의 완고한 사고방식을 개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넣어주기 위하여 노인목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며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⁸³⁾

이에 대한 노인목회의 근본적인 원리를 살펴보면 첫째는, 노인목회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대상이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인목회라고 할 수는 없다. 대상을 바르게 파악하고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노년기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배려와 도움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이 적중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노인목회는 노인신학을 근거로 해야 한다. 성서에서 말하는 노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노인들이 지니는 죽음에 대한 성서적 의미와 그에 따른 효과적인 노년상담 등의 정립된 신학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교육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노인목회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힌 목회는 영적인 몸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 넷째는, 노인목회의 본질은 봉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도자가 되는 방법은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다. 노인목회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며, 항상 교회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목회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 고통하는 세계가 제기하는 구원의 요청을 피할 수는 없다. 그것이 목회의 본질이고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목회는 노인들이 겪는 고통에 무관할 수 없고 그들의 탄식에 귀를 막을 수는 없다. 노인목회는 노인과 함께 노인의 고통을 짊어지고 노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산업화와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도시화로 말미암은 노인인구를 경험한 현대사회가 보다 더 전문적인 노인목회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제 3 절 노인학교와 노인 프로그램

그레이와 모버그(R. M. Gray and D. O. Moberg)는 교회가 노인들을 위해 할 수

83) 김영모, 남세진, 신섭중, 현대사회복지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2), 179.

있는 원리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계획을 수립한다.
2. 노인들의 불안정, 자신 없음, 소외, 죽음에 대한 공포, 젊은 날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등 노인의 영적 필요에 합당한 계획을 수립한다.
3. 세대간의 사회적, 영적, 사교적 접촉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4. 노인들의 육체적, 물리적 필요에 대해 민감하고 신속히 대처한다.
5. 정부와 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한다.
6.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의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교육, 심방, 기도 등 전반적인 교회활동에 참여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⁸⁴⁾

이러한 요구와 필요성을 교회 밖의 노인들에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관점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할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내의 교회들은 넓은 의미에서 노인 프로그램은 여기 저기서 많은 교회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노인학교는 총회 소속 교회들이 자생적으로 필요에 따라 노인학교를 개설하여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단순한 생각으로 손쉬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전국적인 조직(한국교회 노인학교 연합회)도 갖게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공동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볼 수 있다. 특히 노인학교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복지의 차원에 이르도록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한국교회 노인학교 지도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과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누고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했고,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매우 소망이 있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노인목회가 노인복지목회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각 교회는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노인학교와 그것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고, 교회적인 관심과 지원과

84) 오성춘, "노인문제와 노인목회의 가능성," 안양원로원 준공 기념 세미나 자료집 (서울: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자선 사업 재단, 1983), 33.

협력을 통해 21세기에 지역사회를 선교하는 선교의 방향으로 노인목회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절 노인목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극히 최근의 일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대책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노인학이다. 이것이 독립된 학문, 즉 노인학으로 규정되기까지는 관련 학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선진국에서는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영국, 미국, 프랑스, 덴마크 등 17개국에서는 1940년대 후반부터 노인학회가 구성되고 이 학회들이 중심을 이루어 각종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⁸⁵⁾

각 국의 노인학회들의 연구결과를 상호교류하기 위해서 1950년 7월에 벨기에 리에제(Liege)시에서 제1회 국제노인학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각 국의 전문가 95명이 참석하였고 그중 52명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후 출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부터 오는 전체인구의 노화현상과 노인인구의 급증은 노인학연구의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다.⁸⁶⁾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와서야 인구문제연구소가 개설되고 대한 노인회, 한국 노인문제연구소,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며, 21세기 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게 되어 이제는 많은 대학에서 노인문제를 독립시켜 연구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노인문제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어떠한가?

사회적인 추세에 편승하여 교회 안에도 노년 교우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즘 많은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며 적극 투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노인들이 가지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레이와 모버그는 교회와 노인(The Church and the Older Person)에서 일반적인 문

85) 김신일, "교회성장에 있어서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1995), 137.

86) 홍종각, "노인문제와 그에 대한 교회참여 방안"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4), 137.

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⁸⁷⁾

첫째, 어떤 노인들은 젊은 교인들로부터 자기들이 축출되었다고 느낀다.

둘째, 어떤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셋째, 어떤 노인들은 옷을 잘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넷째, 어떤 노인들은 질병과 신체적 허약 등의 이유로 교회를 떠난다.

다섯째, 많은 노인들은 교회 안의 변화 때문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여섯째, 교회 안에서 노인의 역할 때문에 자주 갈등을 느낀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교회는 노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국 교회의 실정에서 노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의 정당한 실시를 위하여 시도되어야 할 문제이기에 전체 교인을 위한 균형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시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노인들의 영적 욕구 충족

교회의 주된 기능은 사람들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이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노인들의 개인적, 인격적, 사회적 문제를 도울 수 있다. 교회가 사회적인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노인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특별히 교회는 노인이 되면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영적인 것에도 대단한 관심을 갖기에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많은 노인들은 불안정과 무용성,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후회감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에게 전해지는 교회의 메시지는 위로와 확신을 줄뿐만 아니라 연약함에서 탈피하여 더욱 강하게 해 준다. 테일러(Balaine E. Taylor)는 영적 욕구의 첫 단계는 '순수한 마음의 상태, 즉 이기적인 욕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려는 걱정 없는 상태'⁸⁸⁾라고 하였다. 이것이 노인에게 이루어질 때 노인은 자신의 고결

87) R. M. Gray and D. O. Moberg, The Church and the Older Person (Grand Rapid: Eerdmans, 1962), 96-117.

88) Balaine E. Taylor, The Church with Older Adults (Tennessee: Abingdon Press, 1984) 96-97.

한 모습을 갖게 되며, 두려움이 없는 온유함, 소박함, 사랑의 정신, 겸손, 하나님의 신뢰를 드러내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에게 영적 욕구충족은 교회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다.

교회가 노인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노인들에게 더욱 더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요, 교회가 언제나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교회는 영적 충족에 대한 욕구를 망각하지 말고, 노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영적 충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회자는 예배시의 설교나 각종모임에서 노인들의 가지는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많은 노인들은 불안정감과 무용성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후회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전해지는 교회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자아의식과 유용성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죽음에 대한 신앙적 준비를 하게 되며 과거의 실패에 대한 후회를 잊고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된다.

2. 노인문제를 전 교인들에게 교육

교회의 교육과제는 흔히 젊은이 중심이 되기 쉽다. 그러나 노인문제를 모든 교인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즉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이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다 늙을 수밖에 없으니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살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노인공경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 교인을 가르치고 노인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노인교육 프로그램 마련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인격적 적응을 도와야 할 것이다.⁸⁹⁾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각 교회마다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회의 형편에 따라 노년부를 신설하여 교육을 하기도 하며 노인학교나 경로대학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건

89) Ibid., 127.

들이다. 그에 대한 파급효과로 지역에서도 양로원(경로당)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서울의 각 구청에서는 구청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탄생되어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본래 교육이란 인간을 지적으로 항상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격동하는 시대와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때에 사회의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가족관계의 변화의 결과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역할과 적당하고 뜻 있는 활동을 찾게 해줌으로써 만족스럽게 노년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교육형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교육의 목적은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노인들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노인교육을 통해서 스스로가 터득하게 하는데 있다. 그리고 교회의 노인학교는 노인의 신앙과 죽음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신앙교육을 통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통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노인목회와 노인에 대한 교육에 관심의 일환으로 대안을 가져야 한다. 분명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준비와 실천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교육에 투자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는 노인교육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이제까지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교회의 양적인 팽창과 관련지어 비중을 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노년층의 증가는 우리에게 노인층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4. 노인들에 대한 봉사활동 전개

현대사회에는 소외된 이웃들이 많다. 특히 소외되고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할 것은 재가노인, 무의탁 노인, 양로원에 있는 노인 등 많은 이들이 교회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노인복지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노인문제에 관심을 기

울이고 교회가 봉사자들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이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한다면 교회는 가장 효과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큰 일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인들은 물질적인 도움이나 오락보다 우선 신앙적으로 지도하며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며 영적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5 절 노인문제에 대한 교회의 참여

노인목회의 전략은 교회 밖의 지역사회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과 교회 안의 노인교우들을 상대로 하는 것과 교회 안팎의 모든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내의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반면 교회 밖의 노인들에 대한, 즉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지만 우리의 교회들이 돌보아야 할 양로원과 무의탁 노인, 홀로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봉사와 관심은 극히 미약한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며 궁극적으로는 교회부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경로당(노인정)에 대한 교회의 참여

우리나라도 핵가족 제도의 확산으로 무료·유료 양로원 시설의 증가 및 설치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경로당(노인정) 목회는 우선 시설노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다. 교회와 경로당(노인정)이 유대를 갖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노인들과 서로 교제하는 프로그램도 적절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계속해서 경로당(노인정)을 이용하는 숫자는 늘고 있지만 시설이나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극히 저조한 형편이다. 단순히 모여서 이야기하고 놀이를 즐기거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할 노인들이 상당수인 것이다.

경로당(노인정)은 노인복지법의 제도적인 제약으로 노인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교회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경로당(노인정)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욕구체계인 경로당(노인정)과 자원체계인 교회를 조사 분석하여 두체계를 연결시키는 촉매자로서의 목회자의 역할을 통하여 경로당(노인정)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5>와 같다.⁹⁰⁾

<표 5> 노인정의 활성화 방안

목구체계	역할체계	지원체계
노인정 노인	교회 목회자의 역할	교회의 사회복지 서비스
심리적 요구	재원 활용자	재정적 지원
생리적 요구	프로그램 개발자	인적 지원
사회적 요구	의식개혁 및 변형자	물적 지원
법적 요구	지역사회 조사자	이념적 지원
경제적 요구	노인권익 옹호자	제도적 지원

현재 경로당(노인정)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은 유료양로원을 제외한 사설 혹은 지역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생활형편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정기적인 지원이나 경제적인 위기 이후로 복지시설을 찾아오는 개인이나 단체의 지원도 대폭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와 연결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활동이 수반되면 좋은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2. 평신도를 통한 지역사회봉사

한국교회는 많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앞으로 교회가 평신도를 중심으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 노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연 사업으로 생활능력이 없고 보호자가 없는 무의탁 노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교인이나 평신도 단체와 연결하여 매월 정기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봉사위원회를 조직하여 봉사자를 파견하여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단독 세대 노인들과 양로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다. 이러한 봉사자들의 활동은 노인들로 하여금 생활에 대한 의욕을 고양시켜 주고, 외부세계와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전문직종의 종사자로 봉사대를 조직하는 것이다. 의사와

90) 손은희, “노인정 활성화를 위한 교회자원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1985), 60.

약사들의 의료선교회, 이·미용사들로 봉사대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개별적으로 가능한 교회도 있겠지만 지역내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정기적으로 날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에 평신도들이 적극 참여하여 봉사하게 될 때에 교회는 물론 평신도들 자신도 큰 보람을 느끼며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21세에 접어든 한국교회가 오늘 이 시점에서 취해야 할 지역사회선교를 위한 노인목회의 대안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노인목회는 복음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노인목회의 기본 또는 기초에 대한 응답이다. 노인복지는 복음 자체처럼 기쁨을 주고 평화를 갖게 하며 사랑을 느끼게 하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은 동기에서부터 분명하게 복음적임을 나타내야 한다. 노인복지사업은 단순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동정이나 자선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동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중증장애 노인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의 복지사업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노인목회는 배려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노인목회욕구에 대한 이해와 응답이다. 21세기는 지탱, 지속 가능성을 최고의 덕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만이 배려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동시에 교회의 목회방향도 이렇게 정해져야 한다.

셋째, 노인목회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노인들의 욕구충족의 가능성에 대한 응답이다. 노인목회는 허공에 뜬 이론이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 기술, 기법 등을 요구하며 현실 속에 이를 한정시킬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이것은 또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확실한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개방적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노인목회를 하는 마음과 방법을 확실히 드러나게 한다.

넷째, 노인목회는 대안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노인목회의 기본으로써 삶의 양태를 형성하는 기초 응답이다. 사회복지란 일반적으로 보조적이고 보충적이며 대행적인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응용되는 기술, 기법 등이 바로 복음적 실현행위를 가장 적절하게 이행하게 하는 방법이 된다. 즉 복음전파의 대안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이 그 존재이유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음과 연계돼

접목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 6 절 요약 및 결론

본 장에서는 노인목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따라서 결론 부분으로 노인목회를 하나의 '목회'라는 측면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노인의 시기는 위기의 시기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고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것으로 인식되든지 노인의 시기는 다른 인생의 시기보다 여유가 더 없고 긴급하게 느껴지는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⁹¹⁾ 노인들은 지난날을 돌아보기 쉬운데 노인목회는 그 가운데 후회와 좌절과 돌이킬 수 없음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노인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노인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간에 노인이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와 함께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야 한다. 지금 비록 질병과 고통이 있다 해도 그것을 이기게 하고 죽어가며 죽음을 앞에 놓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며 죽음을 통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을 가지게 해야 한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며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임을 깨달게 해야 한다. 교회는 노인들이 비비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교회는 노인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사정하고(assessment) 위탁하고(referral) 연결망을 구축하여(networking) 노인들의 삶이 연속되게 하여야 한다.⁹²⁾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자원으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자원으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노인들에 대한 통합적인 목회를 하는 기관으로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

결국 노인목회도 목회라는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생명사업에 교회가 동참하는 맥락에서 노인들의 안녕과 삶을 지탱하고 지속하는 과정이 평안을 누리도록 서비스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협력하여 목회에 동참할 수 있게 하고 통합적

91) 맹용길, 노인복지목회론, 160.

92) Melvin A. Kimble, Aging, Spirituality, and Religion: A Handbook, 148.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노인목회 이행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요컨대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기에 이 복음은 인간을 살리는 씨앗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심어서 싹을 틔워야 하고 무럭무럭 자라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회사업은 바로 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추진력이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노인복지는 이 사회사업 중 대단히 중요하며 동시에 큰 구성요소로서, 특히 21세기 한국교회가 도전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우선적인 과제임을 우리들 모두가 주지해야 할 것이다.

제 5 장

지역사회선교를 위한 노인목회 프로그램

본 장에서는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몇몇 교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의 실례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중점으로 다루려는 경주중앙교회의 샬롬행진을 소개하고 그것에 대한 설문과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노인목회 프로그램의 사례들

1. 대구 남산교회의 노인선교

가. 목회간호선교

1995년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유급 간호사를 채용하여 교회 내·외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목회간호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계명대학교 부설 동산병원 간호대학에서 목회간호전문훈련을 받은 간호사 1명을 파견 받아 주 2회 담당 교역자와 함께 지역의 장기질환을 앓고 있는 성도와 노환의 성도들 그리고 지역의 노인들을 방문하여 예배와 더불어 건강을 체크하며 물리치료와 병원을 알선해 주고 있다.⁹³⁾ 특히 환자들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건강체크와 전문인의 돌봄에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에게는 좋은 신앙의 말벗이 되므로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된다

나. 노인선교(목요선교회)

대구 남산교회 노인선교회는 지난 1991년 3월 28일 창립되어 목요일마다 350여명의 노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⁹⁴⁾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선교를 처음 실

93) 2001년 대구남산교회 요람.

시하면서 노인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나 연세가 많으시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됨으로 일반 예배에서 설교를 이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목요일로 시간을 바꾸어 본격적인 선교를 실시하게 되었다.

(1) 예배

2001년으로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목요선교회는 노인들의 영적인 성장뿐 아니라 봉사자들의 내실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11시가 되면 어느 예배시간보다 경건하게 진행이 된다. 한 시간 동안 드리는 예배는 찬송과 기도, 담당목사의 말씀과 축도로 진행되는데 예배시간의 분위기는 전혀 산만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하고 엄숙하다.

절기 때에는 자체적으로 절기예배를 드릴뿐 아니라 1년에 두 번씩 세례문답과 세례식과 성찬식을 갖는다. 목요선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만해도 200여명이 넘었다. 예배시간에 따로 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없지만 자진해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10퍼센트 정도가 된다. 처음 이들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 자유분방하였으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 프로그램

목요선교회는 1부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2부에는 20개의 반으로 나누어 반별로 성경공부를 하고 특강 등의 순서를 갖고 함께 점심을 먹고 귀가한다. 식사비용은 교인들이 자원하여 헌신적으로 부담하여 총당되는데 1년에 식사에 드는 비용만 1천만원이 넘는다. 목요선교회에서 이들을 위한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목회간호사를 통해 매주 건강을 진단하고 있으며, 1996년 초에는 목요선교회 회원들을 상대로 X-ray 촬영을 실시하여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치료받게 하였다.

(3) 자원봉사자

목요선교회는 교회의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자원봉사자는 주

94) 문서화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대구 남산교회가 홍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자료를 인용함.

로 원로장로, 시무장로, 권사, 은퇴권사 등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실무를 맡은 40여명의 젊은 집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젊은 집사들의 정성어린 돌보심은 “어느 부모를 그만큼 정성스레 모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자원봉사자는 3팀으로 분류되는데 새벽 6시부터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봉사자, 음식을 나르며 국과 밥을 대접하는 식당봉사자,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다. 이들은 온종일 맡은 일에 매달려 일과가 끝난 후에도 설거지와 정리를 하며 교사들은 결석 노인들을 심방한다.

교사들은 시작하기 20분전에 교사회를 가지며 끝난 후에도 교사회에 보고를 통하여 다음에 있을 행사를 준비한다. 목요선교회는 봉사자들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노인이 쉽게 부를 수 있고 글씨도 보기에 편하도록 새로운 찬송가를 제작하였다.

(4) 선교

봉사자중에서 몇 사람은 돈을 모아 오갈 데 없는 노인에게 방을 얻어주어 생활하게 해 주었다. 또한 매달 홀로 거하시는 노인을 선정하여 교사회에서 무명으로 헌금된 돈을 전달해 주기도 한다. 목요선교회는 특히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이 별세할 때에는 선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이 여러 면에서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교회묘지에 안장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목요선교회의 활동은 그들의 가족들에게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어 선교의 장을 열어 줄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앞으로 국가적인 문제인 노인문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대구 남산교회는 교인들 중에 의료계에 종사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의료선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이 의료선교회는 한 달에 두 번 의료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매월 첫째 주일은 남산교회 내에서 남산교회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과 목요선교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고 셋째 주에는 무의촌 농촌지역, 도시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가능한 남산교회에서 보조하는 교회와 관련하여 무료 의료선교를 실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영세교회의 실로암부

가. 설립배경

영세교회는 1969년 9월 7일 서울 중화동 배밭에서 고(故) 김종수 목사에 의해 지역의 어려운 형제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서울 동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본 연구자가 부 목사로 시무를 했던 교회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산업화 현상으로 이농현상이 급증하면서 많은 농촌인구가 대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영세교회가 출발할 무렵 청계천 주변은 온통 판자촌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일은 청량리 밖 중랑천 변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들의 삶은 비참하였다. 생활수단이라야 막노동이 고작이었으며 청량리 부근 시장에서 지게로 짐을 날라야 하는 형편이었다. 다행히 그 날의 일감이 있으면 하루 일당을 벌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날이 더 많았다. 막상 농촌을 버리고 상경하였지만 그 누구 하나 따뜻하게 대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 또한 사랑을 나눈다는 교회마다 문턱이 높아서 이들이 마음놓고 절대자인 하나님께 호소할 기회마저 없었다.

그 지역 판자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는데 중하층의 사람들, 별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 교회, 그러나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영세교회였다. 서울역 부근의 빈민촌에서, 청계천 변 빈민촌에서, 답십리동 빈민촌에서 거지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국수나 국밥을 대접하기도 하였고 손을 잡고 기도도 해 주었고 교통비도 주었으며 이발도 시켜 주었다. 거지란 말이 그들의 인격과 관계되기에 '어려운 형제'라 부르기로 작정하였다. 어려운 형제들의 몸에서 이상야릇한 냄새가 풍겨 나왔다. 새롭게 교회에 등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면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래서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었고 주변에 영세교회를 모르는 이웃이 없을 정도였다.

1975년 11월 2일 정기 제직회에서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일을 영세교회가 해야 한다는 일과 어려운 형제 때문에 교회성장에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예 따로 예배를 드리든지 2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제직들의 의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일치하여 결

국 모든 성도들이 이들을 포용하기로 하고 함께 예배에 동참시키는 것으로 결정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돕기 시작하였다.⁹⁵⁾

주일에는 예배당 뒷좌석에 30명 내외의 어려운 형제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물질로만 충족시킬 일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건을 알려주어야 한다면서 교육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들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들을 위해 봉사할 봉사자를 선발하고 이들의 공동체 명칭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 중에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명칭이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어려운 형제들에게 상처를 줄까 해서 1981년부터 실로암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실로암부라 부르고 있다.⁹⁶⁾

나. 구성원

현재 실로암부에 출석하여 예배하고 있는 인원은 50-60명으로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 주일 2부 예배시간, 즉 오전 9시 30분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실로암부의 어려운 형제들은 연령이 50-80대의 연령층으로, 어려운 처지를 형태별로 보면 신체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자, 무단가출과 출소자들, 부모 혹은 부부간의 사별로 외롭게 혼자 사는 자, 사업의 실패로 가정이 파산되어 이산가족이 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 예배와 교육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실로암부에 찾아오는 어려운 형제들 대부분이 신앙의 배경이 약할 수밖에 없다. 여기저기서 상처받고 아픔을 골고루 경험한 자들이기에 더더욱 이들의 신앙이 그럴 수밖에 없고 교육의 혜택도 없이 자란 이들이 많아 사리를 판단한다든지 신앙이 인간구원에 어떤 힘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로암부는 일반 교육부서는 아니었지만 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실로암부를 교육부의 체제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교

95) 1975년 11월 2일 영세교회 제직회의록.

96) 김수진, 영세교회30년사 (서울 : 쿤란출판사, 2001), 137.

역자(부 목사)를 따로 두고 봉사자를 두어서 예배와 신앙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실로암부가 초창기에 남다른 소명감을 가지고 소외된 형제들에게 뜨겁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라. 구역편성과 심방

실로암부 형제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주거의 문제이다. 실로암부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우선 봉사자들이 뜻을 모으고 솔선하여 헌금하고 교회의 도움을 얻어 교회부근에 방 2개를 임대하여 임시로 어려운 형제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지역개발에 편승하여 교회주변의 개발로 인해 임대료가 비싼 관계로 이들이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고 또 교회로부터 이들이 멀리 떨어지면 돌봄이나 양육의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어려운 형제들은 국가적인 도움을 받을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도 주민등록 말소와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어려운 형편에도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기로 하고 교회가 결단한 것은 구역으로 묶어서 효율적인 양육과 돌봄을 목적으로 일반구역에 편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로암 부원들이 사는 지역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교회주변인 중화2동, 3동, 묵동, 공릉동, 성북구, 동대문구의 거주자를 소망 28구역으로, 중화1동, 상봉동, 하계동, 남양주시 등 중간거리의 거주자를 소망 29구역에, 비교적 먼 거리인 서울역, 강서구 등에 거주자를 소망 30구역에 편성하였다.⁹⁷⁾

현재 영세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충성 등 4개 교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실로암부의 특성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소망교구에 편성하여 일반 교우들과 똑같이 심방하며 상담하며 양육하고 있다. 비록 거리가 교회에서는 멀지만 현재 영세교회 앞으로 1·6·7호선 지하철이 개통되어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어디에서도 교회로 찾아올 수 있는 그나마 교통 여건이 좋아진 것이 다행이다.

97) 2000년 영세교회 요람, 101~103.

어려운 형제들을 심방하기 위해 3개 구역을 총괄하여 돌볼 수 있는 담당 권사 1인과 차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구역장 3인을 두고 기존의 소망교구를 담당하는 부목사가 이들을 심방하고 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질병, 사고, 장례, 기타 가정의 일들에 대해 담당권사와 구역장에게 비상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호출이 오면 마다하지 않고 정성껏 돌보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이들에게도 커다란 위안이요, 교회가 주는 신뢰라 할 수 있다.

마. 실로암부를 위한 의료선교회

빈곤이란 공통의 경험, 지식, 가치, 미래에 대한 기대 등에 근거한 하나의 생활양식이다. 저소득층 가운데는 대부분은 중한 병에 걸렸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다수의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또는 병원에 다니게 되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정부는 저소득 계층의 의료복지를 위해 의료보호제도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1종 보호 대상자인 경우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자활보호대상자인 경우 외래 입원시 약간의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교회가 공공의료복지도 받기 어렵고 또한 가족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료복지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의미가 있다.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이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의료선교회'를 활용한 의료봉사이다.⁹⁸⁾

이러한 인식아래 영세교회 당회에서는 교회의 설립목적과 사랑을 베푸는 교회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의 차원에서 의료인들로 구성할 수 있는 의료선교회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이는 교회 내에서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평신도들을 개발하여 그 전문직을 통해서 교회와 사회에 봉사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의료선교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침술사, 간호사, 약사, 병리사, 의대생, 약대생들로 구성하여 의료봉사와 친교활동을 전개하기로 하다.⁹⁹⁾

교회내의 여러 전문분야에 전문직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음에도

98) 김기원, 기독교 사회복지론, 448.

99) 1988년 10월 29일, 영세교회 당회록.

불구하고 특별하게 의료선교회를 조직하게 된 것은 교회와 담임목사의 목회신학에 따른 것이었다. 교회가 실로암구역에 편성된 교우들을 돌보아야 하고 노년부에 소속된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실로암구역에 편성된 교우들은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있는 신체의 부자유함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에 따라 생기는 갖가지 질병의 문제를 혼자 혹은 가정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다. 의료선교회의 진료를 받는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약제를 위한 경비가 요청되자 후원회를 조직되어 어려운 형제들을 진료하는 일에 온 교우들이 합심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현재 의료선교회의 자원봉사자는 창립초기에 비해 세분화되어서 내과, 외과, 치과, 부인과, 가정의학, 소화기 내과, 한방, 약사, 간호사 등 발전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의료선교회의 활동으로 인해 실로암구역원들은 마음놓고 교회를 출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의료선교회의 활동으로 전도의 효과가 크다.

3. 정릉교회의 경로대학

정릉교회 경로대학은 사람마다 고령에 이르면 느끼게 되는 고독과 소외감을 덜어 드리며 발전하는 사회 모습과 변천하는 생활에 적응하고 새 세대와 젊은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교회 및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해 1975년에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릉교회 경로대학은 교회에서 설립하긴 하였으나 직접적인 선교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교회의 지역사회봉사와 사회복지(노인교육)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릉교회 경로대학을 통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좋은 감정이 불신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전파됨으로써 많은 선교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많은 '교회 밖'(비신앙적)의 노인들이 정릉교회 경로대학을 통해 교회와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회심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이 있다.

정릉교회가 주관하는 경로대학은 출석 인원만 450여명(100)에 달하고 있다. 정상적

100) 정릉교회 소속 학생 11명, 비신자 학생 130명, 타 교회 소속 학생 21명,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 100명, 여자 350명 수준이다.

인 교육활동 외에 서예부, 등산부, 요가부, 무용부, 율동부, 국악부, 음악부 등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소요되는 운영예산은 1998년 기준 약 2천 2백 97만여 원이다. 중요한 것은 이 학교의 정규 교육활동으로 일상적인 교육내용 외에도 노인에게 특별히 필요한 제반 법률, 건강, 신유(하나님의 치료), 생활정보 등이 각계 권위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이 학교의 '98 강좌내용 중 중요한 교과내용 몇 개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¹⁰¹⁾

• 현대인의 건강관리(당뇨병) • 불변의 원칙을 지키라 • 보본반시(報本反始) • 노인과 가족 • 신유(하나님의 치료) • 즐거운 노인생활 • 대한민국 건국과 민족사적 정통성 • 위로 음악회(클라리넷, 색소폰) • 선조들의 건강비법 • 성인병의 예방과 관리 • 국가 안보 • 유연과 상속 • 문학과 삶(황진이) • 노인복지 • 노년기 황금인생 • 노인생활과 정신건강 • 즐겁게 사는 법 • 세계 노인의 생활상 • 21세기와 전통문화 • 백제 이야기 • 북한의 현실 • 음악과 인생 • 훈민정음 제정에 대하여 • 서양 노인의 문화생활(동서인의 삶의 재미) • 건강관리 6대 요소 • 노인의 신앙과 행복 • 문학과 삶(이광수) • 중국인의 건강생활

제 2 절 경주중앙교회의 살롬행진

이 장에서는 경주중앙교회가 위치한 경주시의 일반적인 현황, 즉 연혁으로부터 전체인구, 노인인구를 60·70·80대와 90대로 구분하였으며 복지시설과 종교기관을 조사하였다. 그러한 지역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6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경주중앙교회가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인 '살롬행진'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실천과정 그리고 지역에서 교회가 교회로써 자리 매김하며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1. 경주시 일반현황

가. 연혁

경주시의 명칭은 오랜 세월과 더불어 그 시대마다 다양하게 변화되었는데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살피면 <표 6>과 같다.

101) 정릉 경로대학, 1999년 정릉 경로대학 요람, 21.

〈표 6〉 경주시 연혁

시대	상고	삼국	통일 신라	고려	조선	1931년	1955년	1955
명칭	사로국	서라 벌	신라	경주(940)→ 계림부(1308)	경주부(1413)→ 경주군(1895)	경주읍	경주시	통합 경주시

※ 경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진 홍보자료임.

나. 행정구역

경주시는 1999년 말 현재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로 되어 있다. 경주시 관내에는 4읍 8면 13동 186법정리 동 300행정리 355통 3,159반으로 편성되어 인구규모도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소도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 노인복지시설

경주시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을 살펴보면 〈표 7〉에 나타난 것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 미약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역의 경제수준과 밀접하기 때문이며 대부분 불교와 유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의 위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표 7〉 경주시 노인복지시설(1999년 말 현재)

시설명	수용인원	대표자	소재지	전화	비고
민제 양로원	58	문순옥	구정동 616	746-3952	무료
천우 자매원	37	박재우	상구리 955	745-4900	유료(불교)
명화 요양원	18	송미호	구정동 616	746-5070	무료
천우 요양원	48	이정숙	상구리 955	745-4902	유료(불교)
은화의 집	29	송미호	구정동 616	746-5070	무료
나자레원	23	송미호	"	746-4827	유료(불교)

※ 경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진 홍보자료임.

라. 종교기관

경주시에 있는 종교기관의 현황을 보면 <표 8>과 같다. 특히 불교의 교세가 강한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불국사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찰의 영향으로 지역에서의 불교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표 8>경주시 종교기관 현황(1999년 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기타	
시설	교직자	시설	교직자	시설	교직자	시설	교직자	시설	교직자	시설	교직자
153	156	10	14	224	376	4	2	1	3	5	5

※ 경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진 홍보자료임.

마. 인구

경주시의 인구는 경주시와 구(舊) 경주군을 1995년에 통합하여 <표 9>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소도시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표 9> 경주시 인구현황(2000년 1월 1일 현재)

행정구역	세대	인구			외국인
		계	남	여	
경주시	96,664	292,480	145,806	146,674	866

※ 경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진 홍보자료임.

바. 노인인구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998년 현재 노인인구의 분포를 연령별로 보면 <표 10>의 60대와 <표 11>의 70대와 <표 12>의 80대와 90세 이상의 인구로 세분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의 인구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90세 이상의 노인이 지역적인 영향으로 노인인구가 경주시 인구의 10퍼센트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평균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교회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목회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표 10> 경주시 60대 노인인구(12,197명)

65세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2412	2379	1974	1802	1763	1767

※ 경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진 홍보자료임.

<표 11> 경주시 70대 노인인구(11,971명)

71세	72세	73세	74세	75세	76세	77세	78세	79세	80세
1736	1270	1276	1015	1168	1280	985	809	744	688

※ 경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진 홍보자료임.

<표 12> 경주시 80~90대 노인인구(80대/3,319명·90이상/462명)

81세	82세	83세	84세	85세	86세	87세	88세	89세	90 이상
673	538	421	446	359	317	247	178	140	462

※ 경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진 홍보자료임.

2. 경주중앙교회 약사와 목회신학

가. 경주중앙교회의 약사

경주중앙교회는 1937년 현 경주제일교회로부터 분립하여 20여 명의 교인에 의해 창립되어 2000년 현재 63년의 역사를 지닌 경북 경주시 황오동 22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경동노회에 속한 교회이다.¹⁰²⁾ 64년의 역사가운데 11

102) 2000년 경주중앙교회 요람.

대에 걸친 담임목사의 단기적인 교체로 인해 어느 하나의 목회신학이 뿌리를 내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던 중 1992년 1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김창선 목사의 부임으로 교회는 장기적인 목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그리하여 부임 전 800명 정도의 출석인원이 장년 1,000명, 교육부서가 600명 정도 모이는 지방에서는 상당히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나. 경주중앙교회의 목회신학

12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김창선 목사는 자신의 목회방향을 장기목회에 의한 교회부흥의 비전을 바라보며 교회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로 정하고 그에 따른 목회방침과 목회계획들을 하나 하나 실천해 갔다. 김창선 목사는 '교회의 모습은 바른 신학에 기초하며 지역사회를 통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라고 강조하면서 '복음주의 신앙전통을 강조하며 장로교 전통의 신앙유산을 이어가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근거한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 모델'을 꿈꾸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였다.

이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에 의한 결과였다. 그래서 교회의 표어를 '화평을 이루는 교회'로 정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회',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그리고 열심히 화평을 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온 교우들로 하여금 이 일에 전력하도록 목회의 방향을 이끌어 갔다. 그러한 목회신학에 따른 성도들의 실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교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며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 과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다.

(2)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교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 하라”(롬 12:18)는 말씀을 통한 교훈이다. 목회신학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과정이다. 이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바른 관계형성을 근거로 한 수평적인 이웃을 향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회요, 평화의 공동체로서 평화를 생활화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성장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에는 더욱 더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개인적인 영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을 견고히 하기 위한 담임목사의 목회신학이다.

3. 샬롬행진

가. 배경

샬롬행진은 본 연구자가 1995년부터 5년 동안 부 목사로 근무했던 경주중앙교회의 지역사회선교를 위한 목회 프로그램이다. 1992년 담임목사로 부임한 김창선 목사의 독특한 목회 프로그램으로 경주라는 지역적 상황에 맞는, 교회와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고 함께 지역사회를 세워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경주시는 옛 신라의 도읍지로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에 편재된 인구 약 30만 명의 소도시로 예로부터 유림(儒林)과 불교가 왕성한 지역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이며 국보급 유물이 있는 ‘불국사(佛國寺)’라는 거대한 사찰의 영향으로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리고 지역적인 정서로 보아 불교의 영향과 유림의 영향, 즉 유림의 3대 산맥인 경주 김씨 종친회, 경주 최씨 종친회, 경주 이씨 종친회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도시로 유림의 영향으로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김창선 목사는 교회의 표어를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부터 현재까지 평화에 관한 주제로 일관하여 설정하고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화평을 이루는 교회’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화평을 누리

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정하고 생활표어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교회'(롬 5:1),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교회'(롬 12:18)가 되기 위해 교인들에게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해 경주중앙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성도들이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다. 103)

두 번째 목적은 유럽이 왕성한 도시에서 지역의 유럽의 배경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른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교인들을 향해 '조상도 모르는 사람들, 어른도 몰라보는 사람들, 제사도 지내지 않는 상놈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팽배한 지역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활동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임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른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교회의 남 선교회와 여 전도회원들을 자원봉사자로 세워서 경주시내 경로당 16개소로 파송하여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통해 봉사하기로 하였다.

경로당을 택한 목적은 첫째는 어른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비록 노인들의 세대는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도 봉사자들의 봉사를 통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르게 심어 '우리는 교회에 나가지 못해도 너희들(자손들)은 교회에 가려면 경주중앙교회로 나가거라'는 인식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간접적인 전도를 위한 것이다.

나. 목적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 내에서는 구역을 중심으로 전도활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경로당(노인정)을 중심으로 소외된 노인들을 섬기고 봉사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전하고 노인들에게 참소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활동내용

(1) 경로당봉사

103) 경주중앙교회 요람에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교회 표어를 요약하여 글로 표현한 것임.

(가) 경로당조사 및 선정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교회가 경주시청 가정복지과에 의뢰하여 추천된 경주 시내 55개의 경로당 중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이 생활하고 있는 경로당 16개소를 선정하여 1년 간 남선교회가 3개소를 담당하고 여전도회는 13개소를 담당하게 하고 여전도회에서는 팀을 둘로 나누어 경로당 봉사자와 무의탁 노인들을 돌보는 봉사자 팀으로 나누어 봉사한다.

살롬행진의 활동은 교회의 제직회 중 '사회봉사위원회' 주관으로 전반기 7주, 후반기 7주 등 1년 총 14주를 실시한다. 여기서 경주중앙교회에서 사랑의 현장 갖기 운동을 통해 봉사하고 있는 경로당들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이 총 16개 경로당(노인정)이다.

(나) 자매결연

경로당과 무의탁 노인을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1년 간 자매 결연하여 봉사한다. 그러나 1년의 단순한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자매결연을 맺고 5년 간 꾸준히 봉사하도록 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2) 교인들의 재정적 참여

살롬행진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연 약 2천 5백만 원으로 그 출처는 살롬행진을 위한 교회내의 신용협동조합(지금은 교회 신협에서 지역 신협으로 바뀌어 짐)에 '살롬구좌'를 개설하여 얻어지는 수입과 여전도 회원들의 '살롬바자회' 수익금, 이웃사랑주일 헌금, 교회의 사회봉사위원회 편성예산 등이다. 재정적인 규모와 출처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살롬행진 구좌개설

모든 교우들이 살롬행진을 위한 '사랑의 구좌'에 동참한다. 경주중앙교회의 경우 특별히 부자가 있는 교회도 아니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우들도 없는 공무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매우 평범한 교회이다. 그래서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구좌 당 3천 원으로 부담이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수

입되는 예산은 연평균 350만 원 정도로 대부분의 교우가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3> 사랑의 현장 갖기 대상 경로당¹⁰⁴⁾

번호	자매기관	경로당	주 소	전화번호	인원(명)
1	2여	황남	황남동 487-4	773-3006	82
2		대한	사정동 127	773-5632	20
3	3여	황오	황오동 371-17	772-4609	132
4		동부	황오동 7-2	743-3512	64
5	4여	중앙시장	성건동 342-36	743-5841	50
6		북성건	성건동 53-1	743-9476	68
7	5여	인교	인왕동 735-5	772-1557	15
8		선덕	황오동 29-18	749-0930	31
9	6여	주공1	황성동 295	773-8485	40
10		중앙	노서동 129-1	749-6226	78
11	7여	금학(남)	동처동 732	772-2060	55
12	8여	금학(여)	동천동 732	772-2060	68
13	9-10여	동명	성동동 112-15	744-5039	98
14	2-5남	용황	황성동 370	742-8283	90
15	3-6남	사정	사정동 101-4	772-7945	150
16	4-7남	동천	동천동 733-320	749-4102	144
총 16개 경로당				총인원	1130

(나) 샬롬바자회

여전도회원들이 다음해의 행사를 위해 해마다 9월 3째 주 금·토요일에 교회 마당에서 음식과 생활용품과 용품들을 수집·판매하는 샬롬바자회를 개최하여 수익금 전액을 다음해의 샬롬행진을 위해 사용한다. 수익금의 약 3백만 원 정도이다.

104) 1999년 경주중앙교회 샬롬행진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다) 이웃사랑주일 헌금

담임목사의 목회신학에 근거하여 매월 4째 주일을 이웃사랑주일로 정하고 저녁 예배에 이웃사랑주일 헌금을 한다. 이날 헌금은 살롬행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교회내의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 사용하는 데 1년 동안 모아진 헌금액은 약 7백만 원 정도이다. 이 중 절반은 교회내의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살롬행진을 위해 사용한다.

(라) 교회재정보조

교회 제직회의 보조금으로 매년 1천만 원을 사회봉사위원회에 편성하여 살롬행진 전반기에 5백만 원, 후반기에 5백만 원을 보조한다. 이는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을 통해 교회적으로 살롬행진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 위함이고,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이다.

(3) 자원봉사자(105) 교육

자원봉사란 원래 '자유의지'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voluntas'를 어원으로 하는 말로 자발·자주·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나아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발정신, 자주적·민주적 사상으로 확대 해석되어 이를테면 '인간성'이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괄하고 있다.¹⁰⁶⁾

최근 우리나라는 도시화 및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과거 농경사회 때와는 달리 지역공동체는 약화되고 이익과 업적 그리고 개인능력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우리 지역사회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소외된 삶을 살아가기 쉬운 여러 계층의 사회적 약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은 제각기 자기중심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어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물결을 수용하되 새로운 삶의 창출을 위해 경주중앙교회는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 봉사할 자원들을 모집·교육·봉사로 이웃사랑의 본을 보였다.

105) 여기서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내의 남·여 선교회원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 살롬행진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의미한다.

106) 강성도, 오정옥, 조성철,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부산: 도서출판 동남기획, 1999), 3.

(가) 봉사자 모집

경주중앙교회는 특별한 행사를 위해 봉사자를 모집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기관이 자원하여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سالم행진의 경우는 다르다.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봉사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하고 정기적인 봉사를 위해 남 선교회와 여 전도회원들 중에서 신체가 건강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노인들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거쳐 선발된 교우들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한다.

(나) 봉사자 교육

교회는 경로당봉사에 임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아무런 준비가 없이 봉사에 임하게 하지 않는다. 교육받지 않고 봉사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자질이 없이 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노인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표 14>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주	교육내용	주	교육내용
1	자원봉사이해 1	7	노인에 대한 이해
2	자원봉사이해 2	8	노인복지이해
3	외국의 자원봉사	9	노인과 신앙
4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10	시설노인이해
5	지역사회와 교회	11	노인과 상담
6	교회와 이웃사랑	12	미래의 사회봉사

(다) 봉사자 활동과 평가

봉사할 때는 교회의 사회봉사위원회에서 각 선교회에 재정을 지원하고 각 선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음식이나 반찬을 만들어 가기도 하며 기타 노인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물품을 구입하여서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음식준비나 물품구입 차원의 단순한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음식이나 물품이 아니라 애정이요, 관심이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전 이

해를 가지고 찾아가서 노인들의 말동무가 되어 주기도 하고,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는 친히 그 일을 감당해 주는 자원봉사자가 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역할도 수행한다.

효과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봉사자들을 매 주일 저녁예배 후 모임을 소집하여 봉사자에게 있어야 할 기본소양과 봉사자의 자세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말과 행동 그리고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주의를 요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한 주간 봉사활동에 임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가 느끼게 된 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방법들을 토론하고 다음주에 있을 봉사의 대상자들과 봉사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평가회를 갖는다.

제 3 절 노인목회 대상자 설문조사 및 분석

1. 설문조사

본 연구자는 경주중앙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위해 실시한 지역사회에 대한 선교적 측면에서 노인목회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경제생활, 건강상태, 경로당이용, 복지서비스 차원의 설문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범위는 샬롬행진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한 경주지역의 16개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00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경로당의 어른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작성하도록 하여 총 200부를 배포, 188부를 회수하여 94퍼센트의 회수율을 보였다.

2. 설문분석

가. 일반적인 질문

먼저 일반적인 질문으로 경로당 노인들의 성별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성별분포를 보면 <표 15>에 나타난 것처럼 남자가 32.5퍼센트, 여자가 66.5퍼센트, 무 응답이 1퍼센트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지역적인 정서로 양반기질을 가지고 살아가

는 경주지역의 남자노인들이 사회적인 활동이나 경로당이라는 특별한 시설에 잘 다니지 않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평균연령이 긴 것도 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15〉 성별분포

문항	빈도	퍼센트
남	61	32.5
여	125	66.5
무 응답	2	1.0
계	188	100.0

응답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표 16〉에 나타난 것처럼 60-64세가 13.3퍼센트, 65-69세가 29.3퍼센트, 70-74세가 27.7퍼센트, 75-79세가 14.9퍼센트, 80세 이상이 14.4퍼센트, 무 응답이 0.5퍼센트로 나타나 70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의 과반수(56.7퍼센트)를 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평균수명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경주가 지방의 소도시요, 도시라 하지만 행정구역상 전체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기에 노령화된 인구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표 16〉 연령분포

문항	빈도	퍼센트
60-64	25	13.3
65-69	55	29.3
70-74	52	27.7
75-79	28	14.9
80 이상	27	14.4
무 응답	1	0.5
계	188	100.0

응답자의 종교분포를 보면 〈표 17〉와 같이 개신교가 12.2퍼센트, 불교가 55.9퍼센트, 천주교가 1.0퍼센트, 유교가 29.3퍼센트 기타가 1.6퍼센트로 나타났다. 기독교에

비해 불교와 유교인이 많은 것은 경주지역의 종교적 특성을 잘 반영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주의 역사와 불국사의 상징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문중을 중요시하여 유교가 발달한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표 17〉 종교분포

문항	빈도	퍼센트
개신교	23	12.2
불교	105	55.9
천주교	2	1.0
유교	55	29.3
없다	3	1.6
계	188	100.0

가정구성형태는 〈표 18〉에서 보는 것처럼 혼자 사는 노인이 16퍼센트, 배우자와 같이 사는 노인이 29.3퍼센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노인이 33.5퍼센트, 자녀와 같이 사는 노인이 18.6퍼센트, 기타(손자, 어머니, 며느리)가 2.7퍼센트로 나타났다. 경주지역은 아직 여러 세대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교의 지역적 정서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설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50퍼센트가 넘는 다른 세대와의 구성분포가 교회로 하여금 봉사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된다.

〈표 18〉 가정구성형태

문항	빈도	퍼센트
혼자	30	16.0
배우자	55	29.3
배우자자녀	63	33.5
자녀	35	18.6
기타	5	2.7
계	188	100.0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거형태는 <표 19>와 같다. 본인의 집이 83.5퍼센트, 전세가 5.9퍼센트, 월세가 2.7퍼센트, 친척집이 5.3퍼센트, 기타 1.6퍼센트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 집이 많은 것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지키며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9> 주거형태

문항	빈도	퍼센트
본인 집	157	83.5
전세	11	5.9
월세	5	2.7
친척집	10	5.3
기타	3	1.6
무 응답	2	10.0
계	188	100.0

나. 경제적인 질문

월 생활비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표 20>에 나타난 것처럼 10만 원 이하가 22.9퍼센트, 10만~20만 원이 23.9퍼센트, 20~30만 원이 18.1퍼센트, 30~40만 원이 12.2퍼센트, 40만 원 이상이 19.7퍼센트, 무 응답이 3.2퍼센트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 중에서도 생활비의 대부분은 약값이나 병원비로 지출되는 형편이어서 노년의 삶은 더욱 무겁다.

생활비 조달방법에 대한 설문내용은 <표 21>에 보는 바와 같이 모아둔 돈이 13.3퍼센트, 연금이 4.6퍼센트, 자녀에게가 56.4퍼센트, 일을 해서가 24.퍼센트, 대책이 없다가 0.5퍼센트, 무 응답이 1.6퍼센트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국가와 자녀를 위해 희생해온 대부분의 노인들의 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준 것이다. 선진국처럼 연금에 대한 인식이 없는 노인들은 본인이 일을 하거나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표 20〉 월 생활비

문항	빈도	퍼센트
10만 원 이하	43	22.9
10-20만 원	45	23.9
20-30만 원	34	18.1
30-40만 원	23	12.2
40만원 이상	37	19.7
무 응답	6	3.2
계	188	100.0

〈표 21〉 생활비 조달방법

문항	빈도	퍼센트
모아둔 돈	25	13.3
연금	8	4.6
자녀	106	56.4
스스로 일해서	45	24.0
대책이 없다	1	0.5
무 응답	3	1.6
계	188	100.0

노후의 생활비 조달을 위해 취업여부에 관한 설문에 〈표 2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매우 절실하다가 5.9퍼센트, 절실하다가 25.5퍼센트, 절실하지 않다가 12.8퍼센트, 생각이 없다가 9퍼센트, 전혀 없다가 43.1퍼센트, 무 응답이 3.7퍼센트로 나타났다. 생활기반이 없는 노인들로서는 생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뚜렷하게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도, 의욕도, 받아 주는 곳도 없이 순수하게 자녀들에게나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취업에 대한 욕구가 다른 세대 못지 않게 강한 것은 삶에 대한 의욕을 보여주는 것인데 온전히 자녀들을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음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표 22〉 취업여부

문항	빈도	퍼센트
매우 절실하다	11	5.9
절실하다	48	25.5
절실하지 않다	24	12.8
생각이 없다	17	9.0
전혀 없다	81	43.1
무 응답	7	3.7
계	188	100.0

어떠한 형태의 취업을 원하느냐에 대한 설문에 대한 응답은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직이 4.3퍼센트, 단순노동이 22.9퍼센트, 식생활 해결이 7.5퍼센트, 소일거리가 17.6퍼센트, 기타가 0.5퍼센트, 무 응답 47.2퍼센트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단순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무 응답의 비율이 의외로 높은 것은 어떠한 노동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위치와 형편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3〉 취업 시 원하는 일

문항	빈도	퍼센트
전문직	8	4.3
단순 노동	43	22.9
식생활 해결책	14	7.5
소일거리	33	17.6
기타	1	0.5
무 응답	89	47.2
계	188	100.0

급료에 대한 욕구는 〈표 24〉와 같이 일한 만큼이 26.1퍼센트, 생활비가 9.6퍼센트, 용돈이 12.2퍼센트, 형편에 따라가 6.9퍼센트, 소일거리 정도가 31.4퍼센트, 무 응답 13.8퍼센트로 나타났다. 평생을 성실하게 그리고 거짓되지 않은 토지와 살아온 노

인들인지라 일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며,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노인들도 10퍼센트에 가깝다.

다. 건강에 대한 질문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25>와 같다. 건강하다가 18.6퍼센트, 보통이다가 39.4퍼센트, 거동이 어렵다가 20.7퍼센트, 도움이 필요하다가 3.2퍼센트,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가 17.6퍼센트, 무 응답이 0.5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취업급료

문항	빈도	퍼센트
일한 만큼	49	26.1
생활비	18	9.6
용돈	23	12.2
형편에 따라	13	6.9
소일거리 정도	59	31.4
무 응답	26	13.8
계	188	100.0

<표 25> 건강상태

문항	빈도	퍼센트
건강하다	35	18.6
보통이다	74	39.4
거동이 어렵다	39	20.7
도움이 필요하다	6	3.2
정기 치료 필요하다	33	17.6
무 응답	1	0.5
계	188	100.0

노인들이 질병이 났을 때 이에 대처하는 주된 방법을 묻는 질문에 <표 26>과 같이 병원이용이 44.7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소가 24.5퍼센트, 한의원이

11.7퍼센트, 약국이 11.2퍼센트, 그대로 참는다가 6.9퍼센트, 무 응답이 1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실시됨을 볼 수 있고 보건소 이용이 높은 것은 이용료의 저렴함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다는 이유이다.

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질문

노년의 생활현실과 거동불편으로 부양가족이 없을 때 조사 대상자들에게 노인복지시설 입소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표 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입소한다고 18.6퍼센트, 생각해 보겠다고 33.5퍼센트, 안 한다고 40.4퍼센트, 할 수 없다고 3.7퍼센트, 기타 0.5퍼센트로 나타났다.

<표 26> 질병에 대한 대처방법

문항	빈도	퍼센트
약국	21	11.2
병원	84	44.7
한의원	22	11.7
보건소	46	24.5
참는다	13	6.9
무 응답	2	1.0
계	188	100.0

현대식으로 잘 갖추어진 복지시설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것은 사실이나 지역적으로 유교문화가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경주지역의 형편과 그에 맞게 평생토록 생활을 해온 노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자식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신의 노후는 자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를 벗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재정적인 형편이 어려운 것이 하나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 갈수록 실버사업이 왕성해지고 곳곳에 실버타운이 조성되고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

〈표 27〉 노인복지시설 입주

문항	빈도	퍼센트
하겠다	35	18.6
생각해 보겠다	63	33.5
안 한다	76	40.4
할 수 없다	7	3.7
기타	1	0.5
무 응답	6	3.3
계	188	100.0

만약에 노인들이 노인복지시설에 입주하기를 원한다면 원하는 곳을 묻는 질문에 〈표 28〉에서와 같이 유료양로원이 9.6퍼센트, 무료양로원이 45.2퍼센트, 종교양로원이 20.6퍼센트, 지역복지관이 5.9퍼센트, 기타 5.9퍼센트, 무 응답이 3.3퍼센트로 나타났다.

무료양로원이 가장 많은 것은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응답으로 볼 수 있으며, 종교적인 양로원에 수용되기를 원하는 응답자도 20퍼센트가 넘는 것을 보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그로 인해 자기가 신앙하는 종교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의 전형적인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8〉 노인복지시설 입주형태

문항	빈도	퍼센트
유료양로원	18	9.6
무료양로원	85	45.2
종교양로원	39	20.6
지역복지관	11	5.9
기타	11	5.9
무 응답	24	12.8
계	188	100.0

경로당에 출입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표 29〉에서는 출입한 적이 있다가

71.8퍼센트, 출입한 적이 없다가 27.7퍼센트, 무 응답 0.5퍼센트로 분석되었다. 이는 노인들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덜기 위해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같은 형편의 노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싶어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9〉 경로당 출입경험

문항	빈도	퍼센트
있다	135	71.8
없다	52	27.7
무 응답	1	0.5
계	188	100.0

경로당을 이용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 〈표 3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4~6시간이 26.5퍼센트, 2~4시간이 23.4퍼센트, 1시간 이내가 9.6퍼센트, 8시간 이상이 8.5퍼센트, 6~8시간이 5.3퍼센트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 응답자도 26.7퍼센트나 되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많은 노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경로당에서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노인들에 대한 놀이문화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0〉 경로당에서 보내는 시간

문항	빈도	퍼센트
1시간 이내	18	9.6
2-4시간	44	23.4
4-6시간	50	26.5
6-8시간	10	5.3
8시간 이상	16	8.5
무 응답	50	26.7
계	188	100.0

주로 경로당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표 31>에서는 장기, 바둑, 화투 등 놀이가 35.6퍼센트, 담소가 31.9퍼센트, TV 시청이 28.2퍼센트, 창작활동이 0.5퍼센트, 무 응답이 2.7퍼센트로 나타났다. 놀이와 담소가 전체 응답의 3분의 2가 되는 것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경로당이 사랑방 개념으로 이해하는 문화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노년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거나 프로그램의 부재가 그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다.

마. 노인대학에 대한 질문

경로당 노인들이 경주중앙교회뿐만이 아니라 경주시내의 교회에서 실시하는 노인대학(경로대학)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한다고 28.7퍼센트, 참여하지 않는다고 37.2퍼센트, 생각해 보겠다고 22.3퍼센트, 모르겠다고 8.5퍼센트, 기타가 1.1퍼센트, 무 응답 2.2퍼센트로 나타났다.

안 하겠다고 응답자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교회에 대한 익숙하지 않은 것과 교회에 대한 편견, 그리고 교회가 사회를 향해 개방적이지 못함과 지역에 대한 사회봉사 부족에 대한 책임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표 31> 경로당에서 갖는 프로그램

문항	빈도	퍼센트
담소(이야기)	60	31.9
장기, 바둑, 화투	67	35.6
신문, 잡지 구독	2	1.1
TV 시청	53	28.2
창작 활동	1	0.5
무 응답	5	2.7
계	188	100.0

〈표 32〉 교회 노인대학 참석여부

문항	빈도	퍼센트
한다	54	28.7
안 한다	70	37.2
생각해 보겠다	42	22.3
모르겠다	16	8.5
기타	2	1.1
무 응답	4	2.2
계	188	100.0

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표 33〉에서는 건강교실이 49.5퍼센트로 으뜸이었고, 여행이 16퍼센트, 운동교실이 12.2퍼센트, 취미교실이 8퍼센트, 기타가 9퍼센트, 무 응답 5.3퍼센트로 나타났다.

노인교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인데 노인들의 최대의 관심은 건강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교실, 건강진료, 건강세미나에 관한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해야 할 것이고 노인들의 요구사항을 귀담아 들었다가 목회의 실천사항으로 행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표 33〉 노인대학에 원하는 프로그램

문항	빈도	퍼센트
건강교실	93	49.5
취미교실	15	8.0
운동교실	23	12.2
여행	30	16.0
기타	17	9.0
무 응답	10	5.3
계	188	100.0

바. 지역복지와 자원봉사에 대한 질문

노인들이 속한 경주시의 사회복지체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해 <표 34>에서와 같이 응답하였다. 다른 도시보다 좋다가 9.6퍼센트, 비슷하다가 52.1퍼센트, 뒤떨어진다가 18.6퍼센트, 형편없다가 6.4퍼센트 기타가 7.5퍼센트, 무 응답이 5.8퍼센트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경주시의 노인에 대한 정책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유럽의 영향으로 어른들에 대한 효와 공경의 삶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경주시가 재정적인 자립도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정책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심의 터전으로 뛰어난 지역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다.

자원봉사자들로부터 가정봉사서비스를 받는다면 가장 원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표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미용 봉사가 31.3퍼센트, 집안 청소가 21.8퍼센트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초라해지고 거동이 불편하여 평소에 하지 못했던 집안 일에 대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타(말 벗, 건강 등)가 13.3퍼센트, 목욕세탁이 12.8퍼센트, 개인적인 심부름이 11.7퍼센트, 무 응답도 8.5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 경주시의 노인복지에 대한 만족도

문항	빈도	퍼센트
좋다	18	9.6
비슷하다	98	52.1
뒤떨어진다	32	18.6
형편없다	12	6.4
기타	14	7.5
무 응답	11	5.8
계	188	100.0

※ 기타 : 잘 모르겠다(12)

〈표 35〉 무료로 필요한 도움 항목

문항	빈도	퍼센트
이·미·용	59	31.3
목욕세탁	24	12.8
집안 청소	41	21.8
심부름	22	11.7
기타	25	13.3
무 응답	16	8.5
계	188	100.0

※ 기타 : 말벗(10), 건강(2), 필요 없다.

경로당과 교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경로당봉사를 실시하는 교회가 경로당의 노인들을 위해 실시했으면 하는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 대해 〈표 36〉에서와 같이 시설방문봉사가 46.8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교회공간의 노인쉼터 제공을 원하는 것이 22.3퍼센트, 경로대학 실시가 11.2퍼센트, 경제적 도움이 9.6퍼센트, 점심제공이 8퍼센트, 간호서비스가 2.1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교회의 여유공간을 노인들을 위한 쉼터로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볼 때 지역의 교회가 노인들에게 열려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교회가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 베푸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6〉 지역노인들이 교회를 향한 요구사항

문항	빈도	퍼센트
경로대학	21	11.2
노인쉼터	42	22.3
점심제공	15	8.0
경제적 도움	18	9.6
시설방문봉사	88	46.8
간호서비스	4	2.1
계	188	100.0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문제의 해결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가’는 질문에 대해 <표 37>에서는 교회가 41.5퍼센트, 정부가 30.4퍼센트, 자녀가 11.3퍼센트, 스스로가 8.5퍼센트, 사회단체가 6.3퍼센트로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응답은 교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사회의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크고 소망이 교회에 있음을 교회는 알아야 한다. 물론 교회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사회를 향한 청지기 사명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7> 노인문제해결의 주체

문항	빈도	퍼센트
스스로	16	8.5
자녀	21	11.3
정부	61	30.4
사회단체	12	6.3
교회	78	41.5
계	188	100.0

교회에서 자원봉사자가 방문하여 봉사할 때 일주일에 어느 정도의 봉사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표 38>와 같이 매일이 3.2퍼센트, 주 4~5회가 19.7퍼센트, 주 2~3회가 22.9퍼센트, 주 1회가 23.9퍼센트, 월 1회가 12.2퍼센트, 필요시 언제나 19.7퍼센트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봉사도 많이 원하지만 노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일도 20퍼센트에 가까운 것을 보면 늘 언제나 노인들이 삶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교회가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든 교회가 힘써야 할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교인이 자원봉사자로 섬긴다면 이와 같은 어려움과 어른들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 교회에 자원봉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에서도 필요한 영역에 자유롭게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8〉 자원봉사자의 봉사횟수

문항	빈도	퍼센트
매일	6	3.2
주 4~5회	37	19.7
주 2~3회	43	22.9
주 1회	45	23.9
월 1회	23	12.2
필요시 언제나	37	19.7
계	188	100.0

제 4 절 자원봉사자 설문조사 및 분석

1. 설문조사

본 연구자는 실제적인 효과와 보다 발전적인 방향성을 위해 직접 일선에서 봉사자로 체험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봉사자들의 일반적인 상황과 목회자가 지역을 향한 비전을 갖고 실시하는 노인목회에 대한 이해 정도, 경로당봉사의 방향성과 경로당봉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끝으로 전문적인 사회봉사제도에 대한 설문의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범위는 سالم행진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주중앙교회의 각 여전도회 8개 기관과 남선교회 4개 기관에 각각 10명씩 120명의 회원들이 각 회장들의 안내로 설문에 응하였으며, 역시 200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 연구자와 함께 경주중앙교회에서 함께 노인목회 프로그램에 동참한 각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회장들을 통해 설문지를 나눠주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120부를 배포하여 103부를 회수하여 85.8퍼센트의 회수율을 보였다.

2. 설문분석

교회내의 자원봉사자의 성별을 묻는 질문에 대해 〈표 39〉에서는 남자가 13.6퍼센트, 여자가 86.4퍼센트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현실로 대부분의 봉사

활동이 여성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9〉 봉사자 성별분포

문항	빈도	퍼센트
남	14	13.6
여	89	86.4
계	103	100.0

봉사자의 연령을 묻는 질문에는 〈표 40〉에서와 같이 30대가 24.2퍼센트, 40대가 46.7퍼센트, 50대가 26.4퍼센트, 60대 이상이 2.7퍼센트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봉사자의 연령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40대는 가장 왕성하게 교회 내·외적으로 활동할 시기이다. 이들의 연령층이 많다는 것은 교회의 봉사자가 활동력이 있는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쉬운 것은 남자들의 힘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남성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교인분포가 70퍼센트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이겠으나 자원봉사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으며 남성들이 할 곳은 남성들이, 여성들이 할 곳은 여성이 봉사해야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0〉 봉사자 연령분포

문항	빈도	퍼센트
30대	25	24.2
40대	48	46.7
50대	27	26.4
60대 이상	3	2.7
계	103	100.0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봉사자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표 41〉에 보는 바와 같이 모시고 산다가 46.7퍼센트, 모시지 아니한다고 53.3퍼센트로 나타났다. 모시고 산다는 응답이 46.7퍼센트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

히 높은 비율인데 지역의 여건이 3대가 사는 세대수가 많고, 유교의 영향으로 어른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표 41〉 부모님과 동거여부

문항	빈도	퍼센트
예	48	46.7
아니오	55	53.3
계	103	100.0

노인문제가 점점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주중앙교회가 실시하는 노인목회에 대한 봉사자들의 지지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표 42〉와 같이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가 85.4퍼센트, 실시해야 한다가 4.9퍼센트, 생각하지 않았다가 5.8퍼센트, 해서는 안 된다가 2.9퍼센트, 무 응답 1퍼센트로 나타났다. 봉사자들 스스로도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의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세대에 대해 성경의 진정한 효 사상을 가르쳐 주고 지역사회에 사랑을 베풀고 목회자가 처음부터 의도한 것, 즉 교회와 지역이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든지 목회자의 의지가 결정적이다. 목회자의 의지가 없이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원만하게 진행하기가 어렵다. 부 목사에게 맡긴다든지 교인들에게 일임한다든지 하면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겠으나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모든 프로그램은 담임목사의 목회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현재의 노인목회를 포함하여 교회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일에 대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표 4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학교가 11.7퍼센트, 경로잔치가 12.6퍼센트, 휴식처 제공이 5.8퍼센트, 경제적 지원이 5.8퍼센트, 가정방문 서비스가 16.5퍼센트, 양로시설 봉사가 46.6퍼센트, 무 응답이 1퍼센트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노인들에게도 같은 질문의 문항을 삽입하였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같은 수와 같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 특이하다. 현재 조사 대상자가 참여하여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현재의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2> 목회자의 노인목회 실시에 대한 지지도

문항	빈도	퍼센트
적극적으로 실시	88	85.4
실시해야 한다	5	4.9
생각하지 않았다	6	5.8
해서는 안 된다	3	2.9
무 응답	1	1.0
계	103	100.0

<표 43> 노인목회에 중점을 둘 사항

문항	빈도	퍼센트
노인학교	12	11.7
경로잔치	13	12.6
휴식처 제공	6	5.8
경제적 지원	6	5.8
가정방문 서비스	17	16.5
양로시설 봉사	48	46.6
무 응답	1	1.0
계	103	100.0

‘교회의 경로당에 대한 봉사를 통해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표 44>에서처럼 교회의 사회에 대한 봉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가 66퍼센트, 보통이다가 31.1퍼센트, 적다가 2.9퍼센트로 나타났다.

봉사가 절대적으로 전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봉사는 봉사자체로 끝나야 되지만 한국인들의 정서적으로 보면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기에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며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그를 통해 생활전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44〉 경로당봉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문항	빈도	퍼센트
크다	68	66.0
보통이다	32	31.1
적다	3	2.9
계	103	100.0

경로당봉사를 연중행사로 확대할 경우 봉사에 임할 수 있겠는가의 의견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도표 45〉와 같이 찬성이 84.5퍼센트, 반대가 9.7퍼센트, 무 응답 5.8퍼센트로 나타났다.

이는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현실로 볼 때에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가장에게만 떠맡기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자원봉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자원봉사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표 45〉 경로당봉사 연중확대실시

문항	빈도	퍼센트
찬성	87	84.5
반대	10	9.7
무 응답	6	5.8
계	103	100.0

경로당봉사를 연중으로 확대한다면 계속해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표 46〉에서는 참여한다가 75.7퍼센트, 안 한다가 24.3퍼센트로 나타나 위 항목보다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과 개인의 신상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여성 교인들이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일거리를 찾아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외에는 별도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형편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표 46〉 연중확대실시 경우 봉사참여도

문항	빈도	퍼센트
참여한다	78	75.7
안 한다	25	24.3
계	103	100.0

경로당봉사를 통해 1주간 동안 봉사하는 시간을 묻는 항목에 대해 〈도표 45〉에 나타난 것처럼 2시간 미만이 12.6퍼센트, 2~3시간이 51.5퍼센트, 3~4시간이 16.5퍼센트, 4~5시간이 12.6퍼센트, 무 응답이 1.9퍼센트로 응답되었다.

〈표 47〉 주간봉사시간

문항	빈도	퍼센트
2시간 미만	13	12.6
2~3시간	53	51.5
3~4시간	17	16.5
4~5시간	13	12.6
5시간 이상	5	4.9
무 응답	2	1.9
계	103	100.0

한국교회가 사회를 위해 실시하는 사회봉사 참여에 대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48〉과 같이 매우 적극적이다가 50.5퍼센트, 조금 적극적이다가 31.1퍼센트, 조금 소극적이다가 15.6퍼센트, 아주 소극적이다가 2.9퍼센트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선교역사를 볼 때에 일제시대나 6-25를 겪었을 때 다른 나라들로부터 한국교회를 향한 원조에 대한 바른 자세는 이제 이웃에 대한 것으로 시각을 돌려

야 할 때이다. 받은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회가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봉사를 행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표 48〉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참여정도

문항	빈도	퍼센트
매우 적극적	52	50.5
조금 적극적	32	31.1
조금 소극적	16	15.6
아주 소극적	3	2.9
계	103	100.0

복음전도와 사회봉사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표 49〉는 분리될 수 없다가 61.2퍼센트, 중요한 가교역할을 한다가 17.5퍼센트, 둘은 별개이다가 18.4퍼센트, 무응답이 2.9퍼센트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주안점을 가지고 실시해온 사회봉사가 사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봉사를 통한 복음전도가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49〉 복음전도와 사회봉사와의 관계

문항	빈도	퍼센트
분리될 수 없다	63	61.2
가교 역할	18	17.5
별개이다	19	18.4
무응답	3	2.9
계	103	100.0

교회가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표 50〉에 나타난 것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46.5퍼센트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교회의 사명이 이웃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회 이미지 쇄신이 31.1퍼센트로 나타났는데 현재 교회의 실추된 명예를 지속

적인 봉사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이 전도의 수단이라고 응답한 것이 11.7퍼센트로 의외로 낮았으며, 무 응답이 5.8퍼센트로 봉사를 통한 자기행복추구가 4.9퍼센트로 나타났다.

〈표 50〉 교회의 사회봉사 참여목적

문항	빈도	퍼센트
전도수단	12	11.7
교회이미지 쇄신	32	31.1
사랑의 실천	48	46.5
자기행복추구	5	4.9
무 응답	6	5.8
계	103	100.0

전체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봉사를 위해 사회봉사를 전담할 목사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표 51〉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58.3퍼센트, 필요하다고 17.5퍼센트로 전체의 74퍼센트에 가까운 상당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의 틀을 교회도 수용해야 하며,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의 도입이 교회도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필요치 않다가 14.5퍼센트, 무 응답이 2.9퍼센트로 나타났다.

〈표 51〉 사회사업 전담목사의 필요성

문항	빈도	퍼센트
매우 필요	60	58.3
조금 필요	18	17.5
필요치 않다	15	14.5
반대	7	6.8
무 응답	3	2.9
계	103	100.0

제 5 절 요약 및 결론

본 장에서는 이 장에서는 경주시의 일반적인 현황과 경주중앙교회의 노인목회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배경에 기초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형성되기까지의 전반적인 목회신학과 전략들을 검토하였다. 이는 본 연구주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경주중앙교회의 샬롬행진과 유사한 목회 프로그램인 몇몇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사례로 들었다. 대구 남산교회의 목회간호선교회와 목요선교회, 영세교회의 실로암부, 정릉교회의 경로대학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논문의 핵심인 경주중앙교회의 샬롬행진을 다루었다. 경주시의 일반적인 현황과 설문을 통해 드러난 경주시 노인들의 의식을 근거로 하여 샬롬행진을 실시하게 된 이유와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회 내의 남·여 선교회 회원들의 활동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설문내용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경주지역의 노인들도 여타 지역의 노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객관적인 통계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힘들게 살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경주시의 노인들은 지역적인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데 유림과 불국사라는 대표적인 불교 사찰의 영향으로 전도가 힘들고 전도를 시도한다 해도 마음의 문을 열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열어 보고자 실시한 프로그램이 '샬롬행진'이다.

샬롬행진은 지역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목회 프로그램이다. 불교와 유림이 강한 지역에서 교회가 지역 주민들, 특히 노인들의 삶 속 깊숙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두 번 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오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기도하며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경주라는 특수한 지역적 상황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다. 굳어진 사고와 문화적인 삶의 형태가 쉽게 바뀌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노인들의 인식의 전환을 통해 후손들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한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21세기 더욱 늘어나게 될 노인인구의 증가를 교회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교회에도 노인 교우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교회밖에도 노인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퇴색되어지는 효 사상의 감소에 대한 대책과 지역에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목회적 전략으로의 노인에 대한 관심, 교회에 잠재되어 있는

활동력 있는 평신도 봉사자들의 적절한 활용자원을 통해 지역사회선교를 담당하는 교회,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평화를 심는 교회가 되어 부흥을 이루는 것이다.

제 6 장

노인목회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

5장에서 본 연구자는 경주중앙교회가 샬롬행진을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한 기초 작업으로 지역 노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의 설문을 가지고 조사·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가지고 실시한 샬롬행진이 교회 내·외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당사자들인 지역의 경로당 노인들이 바라 본 샬롬행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2차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전체적으로 설문분석을 통한 긍정적인 평가와 보완해야 할 부분을 통합하여 전체적인 평가를 내린 후 샬롬행진이 한국교회에 대표할 만한 지역사회선교를 위한 노인목회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성숙하고 보완된 목회 프로그램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설문조사 및 분석

1. 설문조사

본 연구자는 경주중앙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위해 실시한 지역사회선교 측면에서 노인목회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경주에서의 생활기간, 경주중앙교회에 대한 인식,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샬롬행진에 대한 만족도, 앞으로 신앙생활의 여부에 관한 설문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범위는 1차 설문과 같이 샬롬행진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한 경주지역의 16개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001년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조사하였다. 각 경로당(양로원)에 10부씩 대상 경로당 16개소에 160부를 배포하여 114부를 회수하

여서 71.3퍼센트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1차 설문 당시보다 비율이 낮았다.

2. 설문분석

일반적인 설문의 내용은 1차 설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주에서 생활한 시간의 길이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대해 경로당의 노인들의 응답은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주에서 생활한 노인들이 대부분으로 평생을 경주에서만 보내온 노인들도 상당수 있었다.

가. 일반적인 질문

첫 번째 질문으로 지역의 노인들이 경주에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표 52>에서는 오랜 세월을 경주에서 보낸 분들이 많았다. 특히 20년 이상을 살아온 분들도 상당수 있어서 50.8퍼센트에 이르렀고, 전체 95퍼센트 정도의 노인들이 경주에서 평생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52> 경주에서 생활한 시간

문항	빈도	퍼센트
5년 이하	4	3.5
10년 이하	2	1.8
15년 이하	14	12.3
20년 이하	36	31.6
20년 이상	58	50.8
계	114	100.0

나. سالم행진의 영향력에 관한 질문

이 항목에서는 سالم행진이 노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가? 에 관한 항목으로 첫째, ' سالم행진에 대해 들어보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53>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들어보았다가 76.4퍼센트로 절대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지역의 경로당에 속한 노인들과 함께 한 سالم행진을 통한 홍보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표 53〉 샬롬행진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문항	빈도	퍼센트
들어보았다	87	76.4
못 들어보았다	21	18.4
무 응답	6	4.4
계	114	100.0

‘경주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경주중앙교회에 대해 들어보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들어보았다가 93.8퍼센트로 이는 아마 교회에서 실시한 샬롬행진의 주체가 경주중앙교회이기 때문에 얻어진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행사를 오랜 시간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노인들에게 각인시킨 것은 노인들을 선교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표 54〉 경주중앙교회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문항	빈도	퍼센트
들어보았다	107	93.8
못 들어보았다	7	6.2
계	114	100.0

‘노인들이 접한 샬롬행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노인들은 〈표 55〉에서 알 수 있듯이 샬롬행진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응답한 노인이 45.6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노인을 돕는 것이 27.2퍼센트, 단순히 봉사하는 것이 14.9퍼센트, 전도하는 것이 10.5퍼센트, 무 응답이 1.8퍼센트로 나타났다.

갈수록 성숙하고 좋아지는 봉사는 봉사를 받는 노인들로 하여금 마음을 즐겁게 한다. 샬롬행진은 단순한 봉사나 남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사랑이 동반된 봉사, 복음이 동반된 봉사가 샬롬행진이다. 샬롬행진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이미지를 바꾼다는 진리를 터득하게 된다.

〈표 55〉 살롬행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항	빈도	퍼센트
단순히 봉사하는 것	17	14.9
노인을 돕는 것	31	27.2
전도하는 것	12	10.5
사랑을 실천하는 것	52	45.6
무 응답	2	1.8
계	114	100.0

경주지역에서 실시한 살롬행진이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었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표 56〉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데 대다수의 노인들이 흡족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우 영향이 크다가 40.1퍼센트, 어느 정도 영향이 크다가 53.1퍼센트, 부정적인 효과로 본 노인들도 있어서 영향력이 없다가 3.4퍼센트, 전혀 관계가 없다가 2.5퍼센트, 무 응답이 0.9퍼센트로 나타났다.

〈표 56〉 살롬행진이 지역 노인들에게 주는 도움의 정도

문항	빈도	퍼센트
매우 영향이 크다	46	40.1
어느 정도 크다	60	53.1
영향이 없다	4	3.4
전혀 관계가 없다	3	2.5
무 응답	1	0.9
계	114	100.0

〈표 56〉과 연계하여 살롬행진이 지역의 노인들에게 어떤 종류의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표 57〉에서 드러난 것처럼 골고루 분포를 보였는데 민생고 해결이 6.1퍼센트, 불편 해소가 18.4퍼센트, 복음을 접함이 23.7퍼센트, 노인들의 고민을 해결한 것이 28.1퍼센트, 교회를 알게 되었다가 23.7퍼센트로 나타났다. 이는 살롬행진이 복합적인 요소를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봉사를 통해 노인들

의 불편함 해소 그리고 이를 통한 교회와 복음을 접하게 하였다는 것이 샬롬행진이 매우 효과 있는 목회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표 57> 샬롬행진이 지역노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가

문항	빈도	퍼센트
민생고 해결	7	6.1
불편함 해소	21	18.4
복음을 접함	27	23.7
노인들의 고민을 해결	32	28.1
교회를 알게됨	27	23.7
계	114	100.0

‘샬롬행진을 몇 번이나 접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노인들은 <표 58>와 같이 1회가 3.5퍼센트, 2회가 13.2퍼센트, 3회가 17.5퍼센트, 4회가 19.3퍼센트, 5회가 46.퍼센트로 나타났다.

<표 58> 샬롬행진을 접한 횟수

문항	빈도	퍼센트
1회	4	3.5
2회	15	13.2
3회	20	17.5
4회	22	19.3
5회	53	46.5
계	114	100.0

몇 년에 걸쳐 경주중앙교회가 실시한 샬롬행진이 해를 거듭할수록 내실이 있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표 59>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매우 좋아졌다가 41.2퍼센트, 좋아졌다가 33.2퍼센트, 보완해야 한다가 19.5퍼센트, 미흡하다가 6.1퍼센트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으나 20퍼센트가 넘는 노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개선된 방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다 전문적이고 훈련된 봉사를 원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취향을 달리하는 노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59〉 샬롬행진이 해를 거듭할수록 내실이 있다고 보는가

문항	빈도	퍼센트
매우 좋아졌다	47	41.2
좋아졌다	38	33.2
보완해야 한다	22	19.5
미흡하다	7	6.1
계	114	100.0

아래의 두 가지 항목이 본 목회 프로그램과 설문에 있어서 가정 역점을 두고 있는 질문일 것이다. 앞서도 밝힌 것처럼 샬롬행진의 목적은 지역사회, 특히 유림과 불교의 강한 영향력이 있는 지역에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샬롬행진과 경주중앙교회의 부흥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표 60〉에서 나타난 것처럼 밀접하다가 56.1퍼센트, 별개로 보는 노인들이 30.7퍼센트, 모르겠다가 13.2퍼센트로 나타났다.

〈표 60〉 샬롬행진과 경주중앙교회의 부흥과의 관계

문항	빈도	퍼센트
밀접하다	64	56.1
별개이다	35	30.7
모르겠다	15	13.2
계	114	100.0

오랜 세월 다른 종교환경의 지배를 받아온 노인들에게 획기적인 기대를 거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하루아침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도 불구하고 경주중앙교회가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실시한 샬롬행진이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표 61>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그렇다고 응답한 노인들이 36.9퍼센트, 조금은 그렇다가 37.7퍼센트로 74.6퍼센트의 노인들이 샬롬행진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61> 샬롬행진이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었는가

문항	빈도	퍼센트
그렇다	42	36.9
조금은 그렇다	43	37.7
바뀌지 않는다	20	17.5
무 응답	9	7.9
계	114	100.0

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질문

이제 본 항목에서는 봉사자의 태도를 묻는 질문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앞장서서 노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교회와 복음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식을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의도와 목회신학이 잘 진행되게 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봉사자의 태도에 대해 어떻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표 62>에서는 성실하다가 50.9퍼센트, 열심히 한다가 27.2퍼센트, 노인들을 사랑한다가 18.4퍼센트, 형식적이다가 3.5퍼센트로 나타났다.

사람에게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봉사를 통해 점검을 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생각하는 봉사자들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샬롬행진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더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표 63>와 같이 시간봉사가 56.2퍼센트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물질봉사가 1.85, 말동무가 18.4퍼센트, 의료봉사가 17.5퍼센트, 기타가 6.1퍼센트로 나타났다.

〈표 62〉 봉사자의 태도에 대해 어떻다고 보는가

문항	빈도	퍼센트
성실하다	58	50.9
열심히 한다	31	27.2
노인들을 사랑한다	21	18.4
형식적이다	4	3.5
계	114	100.0

〈표 63〉 봉사자에게 더 원하는 것

문항	빈도	퍼센트
시간봉사	64	56.2
물질봉사	2	1.8
말동무	21	18.4
의료봉사	20	17.5
기타	7	6.1
계	114	100.0

라. 교회출석에 관한 질문

‘교회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는 노인들로 하여금 옛날에 대한 막연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쯤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부활주일에 계란, 성탄일에 사탕 등이 아련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도 교회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표 64〉에서는 교회출석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들이 29.8퍼센트, 없다가 65.8퍼센트로 나타나서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조금 예외였다.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봉사자들에 의해 전도를 받을 경우에 ‘봉사자들이 교회출석을 권유한다면 출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표 65〉에서는 출석하겠다 30.7퍼센트, 못한다고 56.1퍼센트, 고려해 보겠다고 12.3퍼센트, 무응답이 0.9퍼센트로 나타났는데 56.1퍼센트의 노인들이 아직도 교회 출석에는 부정적이

며 마음의 동요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30.7퍼센트의 노인들, 고려해 보겠다는 노인들의 비율을 볼 때 그래도 سالم행진이 효과가 있으며 조금씩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64〉 교회에 출석한 경험

문항	빈도	퍼센트
있다	34	29.8
없다	75	65.8
무 응답	5	4.4
계	114	100.0

〈표 65〉 교회출석을 권유한다면

문항	빈도	퍼센트
출석하겠다	35	30.7
못한다	64	56.1
고려해 보겠다	14	12.3
무응답	1	0.9
계	114	100.0

그러면 ‘교회출석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경로당 노인들은 〈표 66〉와 같이 가지고 있는 종교 때문이라는 응답이 25.4퍼센트, 자녀 때문이라는 응답이 21.15퍼센트, 생활양식의 변화가 두려워서가 38.6퍼센트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는 노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격이 7.9퍼센트, 기타가 6.0퍼센트로 나타났다.

이 항목의 질문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다. 틀에 박힌 노인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 틀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삶의 정신적인 지주로 생각하고 살아온 지금까지의 신앙적인 삶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표 64〉 교회출석의 장애물

문항	빈도	퍼센트
종교	29	25.4
자녀	24	21.1
생활양식	44	38.6
성격	90	7.9
기타	8	6.0
계	114	100.0

살롬행진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노인들의 인식의 변화를 통한 후손들에 대한 전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교회출석이 어렵다면 후손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표 67〉와 같이 보내겠다가 15.7퍼센트, 본인들이 원한다면 보내겠다가 41.3퍼센트, 보내지 않겠다가 30.7퍼센트, 절대 보내지 않겠다가 10.5퍼센트로 나타났는데 노인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자신들과 자녀들의 세대의 생활방식과 사고 사이에 변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7〉 본인의 교회출석이 어렵다면 후손들은

문항	빈도	퍼센트
보내겠다	18	15.7
본인들이 원한다면	47	41.3
보내지 않겠다	35	30.7
절대 보내지 않겠다	12	10.5
무 응답	2	1.8
계	114	100.0

제 2 절 평가

살롬행진에 대한 평가를 단적으로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어느 지역, 어떤 형편,

어떠한 환경에서 행한 것인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는 것도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부정적으로 보면 수많은 재정을 투자하고도 1년에 겨우 40명 내지 50여명을 전도한다는 것은 낭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교인들 가운데 하나의 행사에 너무나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가능성이 없는 노인들에 대한 투자 보다 앞으로 21세기를 이끌고 나갈 교회내의 교육부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을 투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가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두고만 평가한다면 실패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인원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이고 올바른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설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것을 보면 효과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봉사자들에 의해 뿌려진 복음의 씨가 후손들을 통해 결실 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에 행사의 초기 목적을 위해 묵묵히 지역사회에 평화를 심기 위해 그리고 지역사회와 화목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살롬행진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첫째, 담임목사의 목회신학에 발맞추어 온 교회가 합심하여 이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교회와 지역사회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에 온 교우들이 동참했다고 본다. 둘째,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경로사상이 퇴색해 가고 있는 시점에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회내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개발하여 적절하게 세워 주었다는 점이다. 점점 평신도 사역자를 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세워야 할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한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긍정적인 평가도, 부정적인 평가도 모두가 보다 나은 교회, 보다 나은 하나님나라의 실현, 보다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교회로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교회,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교회로 성장하게 하였다. 여기서 전체적인 평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내부적인 평가

가. 노인대학의 성장¹⁰⁷⁾

우선 대상이 노인층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대학의 숫자가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프로그램 실시 이후의 결과로 연인원 117명의 노인이 전도되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을 당장 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에게 기독교인 되기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점점 이들을 통해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후손들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다.

노인대학은 살롬행진을 시작하기 전부터 운영한 목회 프로그램이다. 아래의 <표 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출석이 75명 정도이던 것이 실시한 이후에 20~30명이 증가한 100여명 정도의 출석을 볼 수 있다. 직접적인 노인학생의 증가로 한층 교사들이 힘을 얻고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표 68> 노인대학 출석과 전도된 노인

구분	행사 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기존 노인대학 인원	평균	평균출석 85명/행사 초반-100명/5년경과						
전입자 수(살롬)	75명	3	7	17	25	31	34	117

나. 교회 인적자원 활용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필수적인 과제이며, 교회로 교회 되게 하는 본질적 사명이다. 초대교회의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외적증가였으며, 이를 위하여 디아코노스를 세울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¹⁰⁸⁾ 교회가 사회를 바라보지 않고 성장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 달려오는 동안 사회는 교회를 외면하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교회의 침체, 혹은 쇠퇴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회내의 인적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107) 경주중앙교회의 노인대학 교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살롬행진을 행한 이후 목회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연말 교육평가서(1999년도)로 제시한 자료를 살롬행진 행사 전과 후의 노인대학 인원을 비교하여 자료화한 것을 본 논문에 도표화하였다.

108) 행 6:1-7.

때 가능하다. 교회에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 성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봉사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성도로 하여금 성경대로 살게 하는 것이 사회봉사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경주중앙교회에는 7개의 남선교회와 10개의 여전도회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노인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다. 노인들은 노인대로 경로당의 노인들과 친근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젊은이들은 젊음을 이용해 육체적인 봉사를 감당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듯이 이들 조직이 없이는 교회가 대내외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숙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몸집만 커지느냐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주중앙교회는 샬롬행진을 위해 이들 남선교회과 여전도회에서 헌신한 약 150명을 봉사요원들로 훈련하여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적절하게 배치하여 노인공경의 삶을 실천하여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바로 교회의 성숙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디딤돌이요, 스스로가 헌신된 교회의 기둥들이다.

2. 외부적인 평가

가.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

본래 샬롬행진의 취지는 지역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있었다. 그런 이후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설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본래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교회는 철저히 지역과 함께 공존해야 한다. 교회만이 따로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와 대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은 “주거지, 즉 사람들의 지리적 소재지도 사회구조의 명백한 부분의 하나로서 교회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¹⁰⁹⁾ 샬롬행진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샬롬행

109) Donald McGavran, 교회성장이해, 전재욱, 이요한, 김종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327.

진은 경주 지역사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였다고 본다.

샬롬행진을 통해서 경주시내에서 경주중앙교회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주중앙교회의 샬롬행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위의 설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택시 기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간접적인 전도와 전도되어 오는 새 가족들의 교회를 선택하게 된 동기 속에서 샬롬행진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표 69>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샬롬행진을 통해 전도되어 온 새 가족들의 숫자가 해마다 결실이 있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인지되고 인정된 목회 프로그램이 단순한 봉사가 아닌 지역 노인들의 가슴 깊은 곳에 복음전파의 힘이 강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9> 샬롬행진을 통해 전도된 새 가족¹¹⁰⁾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총 새 가족	179	184	203	198	221	195	1,180
샬롬 새 가족	39	43	45	56	52	55	290

나. 신앙생활에 대한 의지

전통적인 사고를 통해 자라고 생활한 노인들이 신앙을 소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누구나 신앙에 대한 막연한 동기는 있다. 그러나 그 신앙을 표현하거나 삶 속에 적용하는 스타일은 서로 다르다. 특히 전통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자라온 노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다는 것은 기존생활에 대한 엄청난 변화이다.

노인들의 심리적 요소 가운데 죽음에 대한 불안감 혹은 두려움을 들 수 있다. 죽음이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노년층의 불안은 갈수록 심할 수 있다. 죽음은 최고의 두려움이지만 한편으로 죽음은

110) 본 통계는 1999년 경주중앙교회 새 가족부의 자체 평가서와 사회봉사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전체 새 가족 안에 샬롬행진으로 전도되어 교회에 출석한 노인들이 포함된 것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¹¹¹⁾ 따라서 샬롬행진을 통해 노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미래의 소망을 든든히 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여 영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신앙생활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다는 것이다. 죽음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신앙을 가진 자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다.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

경주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샬롬행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의 진수가 소망이라는 사실, 즉 불안을 극복하게 해주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표 65>에서 본인의 신앙에 대한 의사표시가 30.7퍼센트로 나타났고 <표 67>에서는 본인들의 신앙생활이 불가능 한 것을 전제로 후손들의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57퍼센트의 노인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해 주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흘러 들어간다.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위와 같은 응답의 결과는 샬롬행진이 이제 지역에서 상당한 호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노인들의 삶 속에 활력을 주는 목회 프로그램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노인을 위한 봉사자 유의사항

본 연구자가 '샬롬행진', 즉 지역사회를 위한 노인목회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봉사자와 노인들의 대화나 봉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봉사자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봉사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외모를 짚어보고자 한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심신기능이 저하되고 역할상실 내지 역할혼란을 겪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접하게 된다. 봉사자가 노인들을 위해 봉사할 때 유의할 점 10가지를 수칙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봉사자는 평소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불쾌감을 주지 않는 말과 태도를 항상 명심해야 한다. 둘째, 복장

111) Henri J. M. Nouwen, 죽음, 가장 큰 선물(Our Greatest Gift), 홍석현 역, (서울: 홍성사, 2000), 160.

과 신발 등은 간호활동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것의 하나로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봉사활동을 하기에 적합한가 부적합한가를 먼저 생각해서 선택해야 한다.

셋째, 봉사자는 노인에게 봉사할 때 외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 복장은 봉사활동에 어울리는 것으로 밝고 차분한 색으로 청결하고 활동하기 쉬운 형태의 것으로 치마보다는 바지형이 좋다. 넷째, 방문봉사를 할 경우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한 후 자신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밝힌다. 시종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되 지나친 겸손은 노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한다.

다섯째, 노인과의 대화에는 비언어적 대화도 중요하다. 봉사자가 노인과 대화할 때에는 노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봉사자가 노인과 대화할 때에는 짧은 언어로 천천히 대화한다. 노인의 말과 하소연 중에는 필요 없는 것이 많고 또 청력이 좋지 않아서 대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답답하게 여기지 말고 바른 자세로 들어 드려야 한다. 노인은 눈물을 잘 흘리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에 주의하여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한다. 노인의 꾸밈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린다는 감정으로 가볍게 받아넘기는 것이 좋다. 애매 모호한 것은 무리해서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서 연락하겠습니다'고 하고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

여섯째, 봉사활동은 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봉사는 노인의 욕구가 무엇인가 조사한 후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노인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봉사한다. 일곱째, 봉사는 봉사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실시하지 말고 노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여덟째, 봉사활동으로 노인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없으므로 봉사자의 인적, 시간적, 물질적 한계를 인식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하며 지나치거나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아홉째, 봉사자가 노인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열 번째, 봉사자는 봉사활동 중에 알게 된 노인에 관한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봉사자는 자신의 봉사활동결과를 기록점검·평가하여 참고자료로 남겨야 한다.

제 3 절 발전적인 샬롬행진을 위한 노력

경주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응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샬롬행진을 진행해 왔다.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많은 교우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기꺼이 봉사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지역의 많은 노인들을 접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 복음의 열정을 갖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행진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다 향상된 프로그램의 실현, 보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교회, 지역의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아직도 남아있는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내용과 실제에 있어서 향상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1. 지역교회가 연합하는 샬롬행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여 이 땅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위해 살려내는 구조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목적은 하나이다. 그런데 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경쟁의 상태로 존립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샬롬행진도 경주중앙교회의 단독행사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교회성장에는 여러 가지 성장요인들이 있다. 전도, 교육, 봉사 등 개교회의 실정에 맞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교회들이 연합하여 진행하게 될 때에 더욱 교회성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에 들어서면서 지역의 교회가 연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교회들이 연합하여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무한한 잠재력과 힘 그리고 재정력을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교회가 출원하는 재정에 한계가 있다면 여러 교회가 협력할 때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표출될 수 있고 절약을 통해 새로운 연합사업을 기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주중앙교회의 샬롬행진이 앞으로 발전된 프로그램이 되려면 우선 지역의 교회들이 뜻을 모으고 정보를 교환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연합을 추진해 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득을 생각하게 되고 우선권의 문제가 제기되어 실패한 기억이 있다. 교회의 규모가 비슷하거나 목회신학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지역을 넘어서도 충분히 연합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경주지역의 교회 가운데 경주제일교회, 남부교회 등의 교회는 인적, 재정적 규모도 비슷하고 경주지역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본다.

교회는 더 이상 경쟁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의 관계이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한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위해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룬다면 지역복음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2.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샬롬행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봉사자들의 마음도, 수혜자들의 요구사항도 보다 발전적이고, 전문화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의 사회를 향한 봉사도 마찬가지이다. 선교초기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방법이 다르고, 전쟁시절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르고 현대사회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내용이 다르다.

샬롬행진을 행한 시절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한 가지의 방법을 고수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늘 같은 방법으로 행한 것이다. 이제는 시대도, 사람들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한 번 바뀐다고 하였는데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강산이 바뀌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변화의 형태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샬롬행진도 안식년처럼 심을 통해 재충전하는 심정으로 이제는 새로운 방향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다 전문화된 인력개발과 방법개발을 위해 이를 전담

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교회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각 요소마다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기도 해야겠지만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래의 비전을 위해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공부하게 하고 훈련시켜서 그 분야에 전문사역자로 담당하게 하는 일은 이제 보편화 된 것 같다. 앞으로 교회는 평신도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교회사회사업 혹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도록 하여 많은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봉사의 방법도 훨씬 전문화 될 것이고 교회의 무한한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모범적인 교회를 예로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덕수교회가 사회봉사를 위한 전담목사를 두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¹¹²⁾ 샬롬행진이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담목사 혹은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다양한 틀을 기획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교회의 지역사회에서의 확실한 자리 매김이 이루어 질 것이고 이를 통한 복음선교는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3. 노인수련회로 이어주는 샬롬행진

문제는 봉사를 통해 전도된 노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여 교회에 적응하게 하고 복음의 확신을 심어 주느냐는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새 신자 관리를 잘 하기 위해 이곳 저곳 세미나도 다니고,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해보고 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공통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샬롬행진을 통해 전도된 지역의 노인들, 이들은 역시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특히 평생을 그들의 고유한 생활문화권에서 살아온 노인들이 교회에 적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표 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마다 40~50명의 노인들이 전도되어 온다. 물론 이들이 다 교회에 적응하고 남아 있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인 욕구가 숨어 있고 교회는 이들의 그 욕구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

영적 욕구를 해결할 방법은 노인들을 위한 신앙수련회나 부흥회를 갖는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각 교회마다 아동들을 위한 수련회,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수련회,

112) 2000년 덕수교회 요람.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 장년들을 위한 전교인 수련회 등은 있어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나 부흥회는 없는 듯하다. 전도된 노인들을 한 곳에 모아 하루 기도원이나 수양관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한다면 좋은 동기가 될 것이다.

많은 교회가 해마다 5월이 되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경로잔치를 열어 노인들의 하루를 즐겁게 해준다. 준비한 선물도 하나씩 나누어준다.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해서 관광을 시켜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거나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지는 않는다. 단순히 경로사상과 노인공경의 삶을 실천할 뿐이다.

본 연구자가 부 목사로 있었던 영세교회의 경로대학에서 지난 2000년 가을 동신 기도원에서 가진 '경로대학 수련회'는 좋은 반응을 가져온 하나의 실례이다. 기존의 경로대학 학생들과 지역의 노인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온 교사들이 준비하여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는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고서'(시 90:17)였다. 기존의 교회내의 노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새로 교회에 출석하는 노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일정이었다. 여기에 영세교회 경로대학 수련회를 진행한 일정을 그래서 <표 70>에 그 프로그램의 실재를 실고자 한다.

제 4 절 요약 및 결론

한 교회가 하나의 목회 프로그램에 생사를 거는 것은 매우 무모한 처사요, 한 목회자의 목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교회가 목회 프로그램을 해마다 바꾸어 교회나 교인들에게 혼돈을 일으키고 지속성이 없는 현 시대에서 경주중앙교회의 살롬행진은 교회나 교인,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목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준 프로그램이다.

교회의 선교 혹은 전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고민과 지역의 근본문제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지역주민들이 안고 있는 영적이며 정신적인 문제들, 지역의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가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일들에 대한 이해가 명백해질수록, 우리의 목회와 전도는 초점을 갖게

되며, 그로 인한 복음의 적용도 더욱 침례화 될 것이다.

지역사회를 위한 목회의 방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상황과 구조적 관계성에 대한 사회적 분석이 있어야 한다. 둘째, 신학적이며 성경적인 반성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을 통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목회적, 사회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하나는 목회적 실천이요, 다른 하나는 사회적 실천이다. 끝으로, 피드백(Feedback)을 통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사회적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삶의 스타일이 변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경주중앙교회는 살롬행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이미지를 바로 세웠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경주중앙교회는 한 마디로 지역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형편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것을 목회신학으로 삼아 프로그램을 실천하여 성장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살롬행진은 경주중앙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아 그들에게 자원봉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교회, 자원봉사를 통한 평신도 사역자를 개발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였다.

교회가 성장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의 시대에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성장해 가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단독으로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주중앙교회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지역에서 뿌리를 내린 좋은 본보기가 되는 교회이다. 21세기의 경주중앙교회는 끊임없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돌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삶으로 증거 되는 교회,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교회, 교인 스스로가 봉사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표 70〉 영세 경로대학 수련회 일정표

구분	10일 (화)	11일(수)
05:30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시 90:17)	
07:30		아침 기도회
09:00		아침 식사
10:30	동산으로 출발 (출발 기도: 담임 목사)	체조, 찬양, 율동 시간 김택숙, 송명례, 안규연, 곽미선 교사
11:00	개회 예배 사회 : 이수자 교사 기도 : 박병기 교사 설교 : 담임 목사	성경 역할극 진행 : 곽미선 교사
12:00	점 심 식 사	
13:30	개인 시간	폐회 예배
14:00	(창조 세계와 함께)	사회 : 함형숙 교사
16:00	레크레이션 강사 : 신재환 집사	기도 : 신성호 교사 설교 : 이완종 목사
16:30	숙소 배정	교 회 로 출 발
18:00	사권의 시간	
19:00	저 녁 식 사	
20:30	말씀과 함께 기도 : 이성희 학장 설교 : 이완종 목사	
	캠프파이어 진행 : 이완종 목사	

제 7 장

결 론

본 연구자는 논문을 통하여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통한 지역사회선교의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교회의 존재의미와 앞으로 교회가 지역에서 지역교회로 살아남기 위한 방안과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내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목회 프로그램의 실습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는 점이다.

2장에서 노인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통해 노인들의 심리학적 이해, 기독교교육과 기독교 윤리학적 이해를 시작으로 3장에서는 노인목회를 가능하게 하는, 노인목회의 존재이유를 사회봉사에 대한 성서적, 역사적 이해를 통해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사회봉사의 역사성에 대해 접근했다. 4장에서는 노인목회에 대한 교회의 역할로 노인문제가 발생한 이유와 배경 그리고 노인목회가 앞으로 왜 중요한지를 살폈다. 그 후에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 노인들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직접적으로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살롬행진이라는 지역사회 선교전략인 지역의 경로당봉사에서 찾고자 하였다.

5장에서는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목회적 차원에서 몇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목회 프로그램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주시와 경주중앙교회의 연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의 위치와 교회의 자리 매김과 지역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로의 발돋움을 위한 경주중앙교회의 '살롬행진'을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합당한 근거를 위해 설문을 조사·분석하였다.

6장에서는 살롬행진을 진행함에 있어 나타난 노인들과 봉사자들의 평가를 긍정적이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7장은 결론으로 경주중앙교회의 살롬행진을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러한 노인목

회를 추구하게 될 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의 제안을 정리하였다.

제 1 절 시대적 요청과 노인목회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도와 연결된 교회성장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성장하는 교회라고 해도 신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이동에 의한 성장, 즉 수평이동에 의한 성장이 대부분이다. 그러하기에 순수한 전도에 의한 양적인 성장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지만 쉽지 않다. 오히려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교회, 지역사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본 연구자가 연구주제로 삼은 샬롬행진은 21세기의 한국적인 상황과 한국교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교회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하나의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적인 상황이라 함은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적으로 늘어나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노인문제를 다룬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미 형성된 핵가족화로 인해 소외되고 고립된 노인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매우 유익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의 사명이라 할 수 있는 전도를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의 노인들을 섬기며 꾸준히 봉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교회로의 탈바꿈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전도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체험한 내용이기도 하다.

사회봉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요구는 최근 들어서 강해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 나타난 경제성장의 둔화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국가의 복지재정 위기, 복지국가의 관료화에 대한 비판과 같은 변화는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복지국가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교회와 외부로부터의 사회봉사실천에 대한 요구에 응하여 교회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을 보살피는 보충적 역할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창조적이며 자율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교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현장을 제공해야 한다.

교회는 이를 위해 인적자원, 시설자원, 재정자원, 물질자원, 자원조직을 가지고 있다. 개 교회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활용하고, 인적자원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믿음의 실천을 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설과 물질을 점차로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분산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교회내의 조직된 자원을 활용하여 연대활동을 통한 교회의 지역사회봉사운동 차원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 실시한 샬롬행진은 순수한 봉사와 섬김을 통한 지역사회를 향한 전도 프로그램이다. 여기에서 몇 가지 유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샬롬행진은 철저하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만들기에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교회는 지역을 떠나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역사회를 배제하고는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지역에 세워진 교회,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 샬롬행진은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치밀한 준비와 계속적이고 세밀한 연구 끝에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치장된 것은 아니다. 경주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적인 특성을 분별하여 세운 목회신학이 열매를 거둔 귀한 프로그램이다. 교회는 그 지역에서 선교와 영혼구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을 위한 꾸준한 섬김이 있어야 한다. 일회성의 섬김이 아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자연스러운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샬롬행진을 통해 경주지역에서 경주중앙교회의 위치와 인식은 상당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지역의 주민들로부터도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갈수록 좋아지는 경주중앙교회가 되었다. 경주 지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되 좋은 평가를 주저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

둘째, 샬롬행진은 소외된 노인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한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섬김이 아니다. 노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특징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

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핵가족화로 인해, 사이버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 단절된 대화, 확연한 세대차이로 인한 대화의 단절이 노인들을 소외시켰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과의 이별이 노인들을 슬프게 한다. 평균연령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소외를 끌어안고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며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통한 천국시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샬롬행진이다. 지역의 소외된 노인들이 모인 경로당을 찾아가서 노인들을 대하지만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연인으로, 때로는 전도자로, 때로는 인생의 동반자로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에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샬롬행진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결과 및 제안

1. 연구결과

본 연구자는 '샬롬행진'이라는 노인목회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선교에 관한 방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와 긍정적인 평가를 갖게 되었다. 첫째, 노인목회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섬김과 나눔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계속되어야 한다. 섬김의 정신이 결핍된 유림문화의 가치관과 의식을 바꾸기 위해 지속적인 설교, 성경공부, 사회봉사에 관한 교육, 영성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고, 봉사경험을 나누는 것이 스스로가 결단하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됨을 체험하였다.

둘째, 리더십의 형태가 노인목회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노인목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앞에서 물고 가는 목회방법이 아니라, 양떼를 뒤에서 지원하는 목자의 방법으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리더십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셋째, 목회자와 교인들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노인목회를 비롯한 사회봉사가 더 활성화된다. 평소 교인들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신임을 얻은 것이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목회자의 목회신학을 이해하여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신뢰관계형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봉사를 열심히 실천할 때 교회자체가 활성화되고 견실하게 성장하며 지역사회도 교회봉사를 통해서 발전한다. 각종 노인목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 교인들이 등록하며 교회학교에도 이웃사랑의 실천과 어른공경 프로그램 등 체험적 교육을 통한 많은 유익을 주고 있다. 이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사는 상생(共生)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교인들 스스로가 신앙적 각성에 의해 자발적인 봉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며 동기유발이 자연스러워야 하며, 책망보다는 격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본 연구자는 노인목회를 통한 지역사회를 향한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기점으로 모든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견실히 자라나고, 교회의 조직이 활성화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구명(究明)하였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보다 체계적이고 활성화된 노인목회 프로그램 진행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나눔과 섬김의 사역이 교회와 지역사회를 한 울타리 공동체로 만들어 나간다는 좋은 사례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샬롬행진을 진행해 오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다. 그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욕심과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한 욕심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샬롬행진이 보다 훌륭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느낀 몇 가지의 제안들을 다음에 밝히고자 한다.

2. 제안

가. 사랑의 현장 갖기 운동 실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내부 혹은 외부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호흡을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제71회 총회에서 ‘사랑의 현장 갖기’ 운동을 결의하였다.¹¹³⁾ 이 운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11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교회사회봉사 총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68~69.

자신의 생활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살아가는 복음의 실천운동이다. 사랑의 현장 실천범위는 개인, 가정, 지역사회, 국가, 등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나 각 교회가 중점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사랑의 현장은 교회가 위치한 주변의 지역사회가 되어야 하며 다양한 성격의 단위들이 구체적인 현장이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는 모든 교인들에게 소집단에 속해서 신앙의 표현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이로써 교회는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운동을 교회가 노인목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천한다면 아주 유용한 것이 될 것이다. 교인 한 명이 무의탁 노인 한 명과 자매 결연하여 도울 수도 있고, 한 기관에서 한 명의 노인을 정기적으로 돌볼 수도 있다. 보다 더 범위를 넓혀 샬롬행진과 같이 한 기관에서 하나의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봉사한다면 그를 통한 교회의 위상이 한 층 높아질 것이다.

나. 지역교회연합을 통한 노인선교

한국의 개신교회가 사회를 향한 복지와 구제사업을 상당히 많이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천주교와 비교되는 것은 연합사업의 미흡으로 볼 수 있다. 천주교는 힘을 모아 모아진 힘을 가지고 사회를 향해 제 목소리를 발하는 반면, 개신교회는 자기교회의 이름을 내기 원하고 실력을 과시하기 원하기 때문에 주교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는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서로 경쟁하여 교회부흥에 전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교회부흥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첫째는, 1997년부터 포항지역의 대표적인 3개 교회인 포항제일교회(김광웅 목사), 포항중앙교회(서임중 목사), 포항북부교회(조성기 목사)가 연합하여 매월 1회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교회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실시해오고 있다. 하나의 교회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재정과 인력이 되지만 교회가 연합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는,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일산지역의 10개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산 한 소망교회(류영모 목사)를 비롯한 일산 광성교회(정성진 목사),

일산 행당중앙교회 등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개척교회를 돕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교인들의 잦은 이동으로 교회들은 교인이 감소하고 교회가 서로 경쟁하여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교회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작은 교회들의 반감을 해소하고 교회개척 과정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¹¹⁴⁾

하나의 목회내용을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하여 봉사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재정을 낭비하기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램(프로젝트)을 지역의 교회들이 협력하여 역할을 감당한다면 선교의 차원에서도 효과가 클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싶어도 인력이나 재정이 여력이 없는 교회들이 서로가 협력하면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선교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다. 사회목사제도의 도입

김동배는 사회봉사를 하기 위한 교회의 자원을 실제적으로 동원하여 운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복잡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이제는 사회사업 목사제도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¹¹⁵⁾ 사실 한국교회는 목회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실시하려는 움직임과 어우러져 많은 부분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교육목사제도를 두고 교육목회에 전념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상담목사, 음악목사에 대한 도입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 교회의 사회봉사도 하나의 목회영역으로 볼 때에 그 사역을 전담할 사회목사를 두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사회목사는 교회의 사회봉사적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교회와 교회 연합적인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일하는 목사로서 목회적 관심과 사회사업적 전문성을 함께 갖춘 사람이다.¹¹⁶⁾ 사회목사는 개 교회에서 일반교우들과 함께 일하는 목사로서 교인들의 사회적 필요를 위한 교육자역할을 해야 하며, 교인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지도하고 훈련하며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사회목사는 사회봉사를 위해 마련된 예배나 교회행사를 주관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담당해야

114) 김성진, "지역교회는 경쟁상대 아닌 동반자," 한국기독교공보, 2001년 3월 10일, 4.

115) 김동배, "기독교 사회봉사의 비판적 고찰: 그 한계성과 가능성", 연세 사회복지연구, 제1권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3), 109.

116) 유장춘, "한국교회의 사회목사직 설치를 위한 기초연구", 복음과 실천 19(1996), 7.

한다.

사회목사는 교회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여 지역사회에서도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목사야말로 닫힌 교회를 열어 지역사회로 연결되는 중간통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사회목사직은 새로운 목회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으로부터 출발한다. 제 86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임원회가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다루는 회의에서 사회선교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선교목사제도를 권장하기로 한 것¹¹⁷⁾은 교회가 시대적인 요청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선교역사를 이루기 위한 결단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지역으로부터 외면당하여 침체의 길을 걷는데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길로 가는 방법은 교회공동체 전체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여자가 됨으로 실추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 달려있다.

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만들기 운동

교회는 지역사회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나아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정치변화, 경제변화, 사회변화를 겪었다.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는 전통적 지역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가족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여성문제, 노동자문제, 농촌문제 등의 수많은 사회복지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소용돌이에서도 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좋은 건물과 많은 교인수를 확보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의미 있는 민간 사회단체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노동문제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어려운 복지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사랑의 손길을 주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교회는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별히 지역교회들은 지역주민들의 아픔에 동참하여 그들이 겪는 짐을 덜어주고 복음의 약속을 실제적 생활로 보여주는 사회

117) 안홍철, "새 회기 총회업무 출발," 한국기독교공보, 2001년 11월 3일, 2.

복지적 사명을 담당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장소가 갖추어져 있는 이상적인 기관이다. 앞으로는 모든 교인들이 이웃사랑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인적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교인들이 자신의 삶에 적절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을 하나 이상씩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과 연결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전문적인 기술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노동봉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인 후원을 통해서 저마다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에게 맞도록 적절하게 봉사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교회는 고귀한 가치만을 추구하거나 자태만을 뽐낼 수 없다. 삶이 뒤따르지 않는 이론만을 내세울 수도 없다. 왜냐하면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론은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약 2:26). 한국교회가 이제는 한 번 더 도약해야 한다. 21세기에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상을 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와 이론을 겸하고 그것에 바탕을 둔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바른 실천의 삶을 살도록 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경주라는 특수한 지역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지역교회가 실시한 지역사회선교를 위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 프로그램을 다룬 것이다. 그러하기에 본 연구가 다른 지역에서의 노인들의 상황과 노인들이 아닌 다양한 계층, 즉 청소년, 장년, 공단지역의 근로자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연구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혹은 같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타 지역의 상황과 생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변수는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보완한 경험적 연구를 병행하여 이론적 틀을 통합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부록 1

노인목회 대상자를 위한 설문지 1

- 노인목회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선교에 관한 연구 -

귀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경주중앙교회의 부 목사로 있는 이완종입니다.

본 설문은 경주중앙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노인들(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노인목회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선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참고 자료를 위한 것이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무기명으로 하시는 것이기에 귀하의 신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알 수 없으며 절대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성껏 설문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0월

경주중앙교회 이완종 목사 드림

* 다음 질문에 해당하는 곳에 'V' 표시를 해주시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 ② 여 ()

2. 귀하의 연령은 얼마입니까?

- ① 60~64세 () ② 65~69세 () ③ 70~74세 () ④ 75~79세 ()
⑤ 80세 이상 ()

3.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개신교 () ② 불교 () ③ 천주교 () ④ 없다 () ⑤ 기타 ()

4. 귀하는 누구와 함께 생활하십니까?

- ① 혼자 () ② 배우자 () ③ 배우자·자녀와 함께 () ④ 자녀 ()
⑤ 기타 ()

5.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 ① 본인 집 () ② 전세 () ③ 월세 () ④ 친척집 ()
⑤ 기타 ()

6. 본인 혼자 혹은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경우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 ① 10만원 이하 () ② 10~20만 원 () ③ 20~30만 원 ()
④ 30~40만 원 () ⑤ 40~50만원 이상 ()

7. 현재의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 ① 모아놓은 돈 () ② 연금 () ③ 자녀에게 조달 ()
④ 스스로 일을 해서 () ⑤ 대책이 없다 ()

8. 기회가 되면 취업하고 싶은 생각은?

- ① 매우 절실하다 () ② 절실하다 () ③ 거의 생각이 없다 ()
④ 전혀 없다 ()

9. 취업을 원한다면 어떤 형태를 원하십니까?

- ① 전일제 () ② 반나절 () ③ 시간제 () ④ 소일거리 ()
⑤ 기타 ()

10. 취업을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일은?
 ① 전문직 () ② 단순 노동 () ③ 기타 ()
11. 급료는 어느 정도를 원하십니까?
 ① 일한 만큼 () ② 생활비 () ③ 용돈 () ④ 형편에 따라 ()
12. 귀하의 건강 상태는?
 ① 건강하다 () ② 보통이다 () ③ 거동이 불편하다 ()
 ④ 도움이 필요하다 () ⑤ 정기적인 치료를 원한다 ()
13. 몸이 불편하면 어느 곳을 이용하십니까?
 ① 약국 () ② 병원 () ③ 한의원 () ④ 보건소 () ⑤ 참는다 ()
14.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어떤 도움을 원하십니까?
 ① 물리치료 () ② 한방치료 () ③ 치과 () ④ 외과 ()
 ⑤ 기타 ()
15. 거동이 불편하여 돌보는 사람이 없을 때 복지시설에 입주할 생각은?
 ① 하겠다 () ② 생각해 보겠다 () ③ 하지 않겠다 () ④ 할 수 없다 ()
 ⑤ 기타 ()
16. 복지시설에 들어가신다면 어느 곳에 입주하시겠습니까?
 ① 유료 양로원 () ② 무료 양로원 () ③ 종교시설 양로원 ()
 ④ 지역 노인복지관 () ⑤ 기타 ()
17. 경로당(노인정)에 가보셨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18. 경로당에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시간 이내 () ② 2~4시간 () ③ 4~6시간 () ④ 6~8시간 ()
 ⑤ 8시간 이상 ()
19. 경로당에서 주로 하시는 일은?
 ① 담소(이야기) () ② 놀이(바둑·장기·화투) () ③ 신문·잡지 구독 ()
 ④ TV시청 () ⑤ 창작 활동 ()

20. 다음 사항에서 어느 활동에 주로 참석하십니까?
 ① 종교활동 () ② 사회활동 () ③ 사교활동 () ④ 교통정리 ()
 ⑤ 기타 ()
21. 교회에서 실시하는 경로대학에 참석하겠습니까?
 ① 하겠다 () ② 하지 않겠다 () ③ 생각해 보겠다 () ④ 모르겠다 ()
 ⑤ 기타 ()
22. 경로대학에서 주로 다루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① 건강교실 () ② 취미교실 () ③ 운동교실 () ④ 효도여행 ()
 ⑤ 기타 ()
23. 귀하는 교회가 지역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로대학 () ② 노인의 쉼터(경로당) () ③ 점심제공 ()
 ④ 경제적 도움 () ⑤ 가정방문봉사, 간호 서비스 ()
24. 다른 지역의 노인복지와 비교하신다면?
 ① 좋다 () ② 비슷하다 () ③ 뒤떨어진다 () ④ 불만족스럽다 ()
 ⑤ 기타 ()
25. 무료로 아래의 서비스를 받는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① 이·미용 () ② 목욕 () ③ 세탁 () ④ 집안청소 ()
 ⑤ 심부름 ()
26. 최근 노인문제가 날로 심각한데 이 문제의 해결은 누가 주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① 스스로 () ② 자녀 () ③ 정부 () ④ 사회단체 () ⑤ 종교단체 ()
27. 귀하는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자주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까?
 ① 매일 () ② 주 4~5회 () ③ 주 2~3회 () ④ 주 1회 ()
 ⑤ 월 1회 () ⑥ 도움 필요시 언제나 ()
28. 귀하가 자원봉사자의 도움 중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중복 선택 가능)
 ① 식사 () ② 화장실 사용 () ③ 말벗 () ④ 간호 ()
 ⑤ 시설물 관리 () ⑥ 외출하기 () ⑦ 기 타()

※바쁘신 중에도 정성으로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록 2

노인목회 대상자를 위한 설문지 2

- 노인목회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선교에 관한 연구 -

귀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경주중앙교회의 부 목사로 있는 이완종입니다.

본 설문은 경주중앙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노인들(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노인목회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선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참고 자료를 위한 것이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무기명으로 하시는 것이기에 귀하의 신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알 수 없으며 절대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성껏 설문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0월

경주중앙교회 이완종 목사 드림

* 다음 질문에 해당하는 곳에 'V' 표시를 해주시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1. 경주시에서 생활한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5년 이하 () ② 10년 이하 () ③ 15년 이하 () ④ 20년 이하 ()
 ⑤ 20년 이상 ()
2. سالم행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① 들어보았다 () ② 못 들어보았다 () ③ 기타 ()
3. 경주중앙교회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4. سالم행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단순히 봉사하는 것 () ② 노인을 돕는 것 () ③ 전도하는 것 ()
 ④ 사랑을 실천하는 것 () ⑤ 기타 ()
5. سالم 행진이 지역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영향이 크다 () ② 어느 정도 크다 () ③ 영향이 없다 ()
 ④ 전혀 관계가 없다 () ⑤ 기타 ()
6. سالم행진이 지역 노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다고 보십니까?
 ① 민생고 해결 () ② 불편함 해소 () ③ 복음을 전함 ()
 ④ 노인들의 고민을 해결 () ⑤ 교회를 알게 됨 ()
7. سالم행진을 접한 횟수는?
 ① 1회 () ② 2회 () ③ 3회 () ④ 4회 () ⑤ 5회 이상 ()
8. سالم행진이 해를 거듭할수록 내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좋아졌다 () ② 좋아졌다 () ③ 보완해야 한다 ()
 ④ 미흡하다 () ⑤ 모르겠다 ()
9. سالم행진과 경주중앙교회의 부흥과의 관계는?
 ① 밀접하다 () ② 별개이다 () ③ 모르겠다 () ④ 기타 ()
10. سالم행진이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었다고 보십니까?
 ① 그렇다 () ② 조금은 그렇다 () ③ 바뀌지 않는다 () ④ 기타 ()

11. 봉사자의 태도에 대해 어떻다고 보십니까?
 ① 성실하다 () ② 열심히 한다 () ③ 노인들을 사랑한다 ()
 ④ 형식적이다 () ⑤ 모르겠다 ()
12. 봉사자에게 더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시간봉사 () ② 물질봉사 () ③ 말동무 () ④ 의료봉사 ()
 ⑤ 기타 ()
13. 교회에 출석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14. 교회출석을 권유한다면 출석하시겠습니까?
 ① 출석하겠다 () ② 못한다 () ③ 고려해 보겠다 () ④ 기타 ()
15. 교회출석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① 종교 () ② 자녀 () ③ 생활양식 () ④ 성격 () ⑤ 기타 ()
16. 본인의 교회출석이 어렵다면 후손들은 보내겠습니까?
 ① 보내겠다 () ② 본인들이 원한다면 보내겠다 ()
 ③ 보내지 않겠다 () ④ 절대 보내지 않겠다 () ⑤ 모르겠다 ()

※바쁘신 중에도 정성으로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록 3

자원봉사자를 위한 설문지

- 노인목회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선교에 관한 연구 -

귀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의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설문은 노인목회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선교에 관한 연구라는 저의 목회학 박사 학위논문을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본 설문은 단지 경주중앙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노인들(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노인목회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선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참고 자료를 위한 것이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무기명으로 하시는 것이기에 귀하의 신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알 수 없으며 절대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성도님의 답변은 저의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므로 정성껏 설문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0월

경주중앙교회 이완종 목사 드림

* 다음 질문에 해당하는 곳에 'V' 표시를 해주시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 ② 여 ()

2. 귀하의 연령은?

- ① 10대 () ② 20대 () ③ 30대 () ④ 40대 () ⑤ 50대 ()
⑥ 60대 이상 ()

3. 귀하는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4. 노인이 계시다면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아주 건강 () ② 비교적 건강 () ③ 건강하지 못하다 ()
④ 거동이 불편 ()

5. 노인이 계시다면 가족들이 노인을 모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당연히 모셔야 한다 () ② 마지못해 모신다 () ③ 힘들어한다 ()
④ 모시지 않기를 바란다 ()

6. 귀하는 목회자가 노인목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② 실시해야 한다 ()
③ 생각해보지 않았다 () ④ 해서는 안 된다 ()
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

7. 목회자가 지역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목회를 시행할 때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노인학교 () ② 경로잔치 () ③ 휴식처 제공 () ④ 경제적 지원 ()
⑤ 가정방문 서비스 () ⑥ 양로시설봉사 () ⑦ 기타 ()

8. 교회의 경로당에 대한 봉사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크다 () ② 보통이다 () ③ 적다 ()

9. 교회의 경로당에 대한 봉사를 연중으로 확대한다면?

- ① 찬성 () ② 반대 ()

10. 현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봉사를 연중으로 확대할 경우 봉사자로 참여하시겠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11. 확대하여 실시할 경우 귀하는 어느 정도 봉사할 수 있습니까?
 ① 수시로 () ② 시간제로 () ③ 전혀 참여할 수 없다 ()
12. 귀하는 개인적으로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13.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면 주 몇 시간 봉사하십니까?
 ① 2 시간 미만 () ② 2~3 시간 () ③ 3~4 시간 () ④ 4~5 시간 ()
 ⑤ 5 시간 이상 ()
14. 현재 한국교회가 사회봉사에 어느 정도 참여한다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적극적이다 () ② 조금 적극적이다 () ③ 조금 소극적이다 ()
 ④ 아주 소극적이다 ()
15. 복음전도와 사회봉사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① 교회봉사와 사회봉사는 분리될 수 없다 ()
 ② 사회봉사는 복음전도의 가교 역할을 한다 ()
 ③ 사회봉사는 복음전도와는 별개로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없다 ()
16. 교회가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전도를 위한 수단 () ② 교회의 이미지 쇄신 () ③ 사랑의 실천 ()
 ④ 봉사를 통한 자기행복추구 () ⑤ 기타 ()
17. 교회 사회사업 전담목회자(사회목사)의 필요성은?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조금 필요하다 () ③ 별로 필요치 않다 ()
 ④ 반대한다 ()

※바쁘신 중에도 정성으로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고 문 헌

1. 국내 서적

- 강성도, 오정목, 조성철.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부산: 도서출판 동남기획, 1999.
- 고용수. 사회봉사를 위한 교회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4.
- _____. "노인을 위한 교육과정 작성지침." 윤경남 외. 노년학을 배웁시다. 서울: 홍성사, 1994.
-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서울: 홍익재, 1998.
- 구자현. 한국사회복지사. 서울: 홍익재, 1984.
- 김근홍. 한독 노인복지이해. 서울: 학문사, 1999.
- 김기원. 기독교 사회복지론. 서울: 대학출판사, 1998.
- 김동배. "기독교 사회봉사의 비판적 고찰: 그 한계성과 가능성." 연세 사회복지연구 제 1권 (1993): 109.
- 김성진. "지역교회는 경쟁상대 아닌 동반자." 한국기독교공보, 2001년 3월 10일자.
- 김수진. 영세교회 30년사. 서울: 쿤란출판사, 2001년 발간 예정.
- 김신일. "교회성장에 있어서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1995.
- 김영수. "한국도 이젠 고령화사회." 조선일보, 2000년 7월 11일자.
- 김영모, 남세진, 신섭중. 현대사회복지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2.
- 김용일, 조흥식, 김연옥. 사회사업실천론. 서울: 나남출판, 1995.
- 김익기 외. 한국 노인의 삶. 미래인력연구총서 가족연구시리즈, vol. 3. 서울: 미래인력 연구센터, 1999.
- 김장대. 기독교 사회복지학. 서울: 진흥, 1998.
- 김종수.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야.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8.
- 김종연. "한국교회 사회봉사사역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 1996.
- 김태련, 장휘숙.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1999.
- 남세진 편. 한국 사회복지의 선택. 서울: 나남, 1995.

- 노자준. 한국 개신교 사회학. 서울: 한울, 1998.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교회 사회봉사 총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편. 꿈꾸는 노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_____.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노인교육목회연구시리즈, vol. 1.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덕수교회. 평생교육 커리큘럼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맹용길. 기독교윤리학. 서울: 쿤란 출판사, 1994.
- _____. 노인복지목회론. 노인교육목회연구시리즈, vol. 2.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_____. 미래신학·미래목회 I.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 박광선. “목회자가 본 한국교회의 노인목회 현실과 전망.”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박동현. “성서 마당: 처음 땅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살림, 1992년 2월호, 187.
- 박영호. 기독교 사회복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 박재간. 노인문제와 그 대책. 서울: 이우출판사, 1979.
- 박종삼. “21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와 사회봉사.” 제1회 한국 선명회 목회자세미나, 1992년 6월 29일.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편. 노인복지편람.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5.
- 안홍철. “새 회기 총회업무 출발.” 한국기독교공보, 2001년 11월 3일자.
- 오성춘. “노인문제와 노인목회의 가능성.” 안양원로원 준공기념세미나 자료집. 서울: 예장총회자선사업재단, 1983.
- 원준자. “한국 노인복지정책 개선방안과 교회의 역할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풀러 신학대학원, 1999.
- 유의영.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유장춘. “한국교회 사회목사직 설치를 위한 기초 연구.” 복음과 실천 19집 (1996): 7.
- 윤진. 성인,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 출판부, 1985.
- 이가옥.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이가옥 외. 2000년대를 향한 노인복지정책.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92.
- _____. 노인 생활의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 서울: 한울, 1992.
-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21세기 한국교회 메가트렌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임성빈. 한국교회와 사회적 책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 장인협. 사회복지학 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장인협, 이정호. 사회복지행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조용훈. 지구화시대의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차기천. 지역사회선교를 위한 봉사프로그램 가이드. 서울: 도서출판 좋은생각, 1994.
- 최순남.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교회의 역할." 기독교사상. 1995년 3월호, 67.
-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제8권 고령자, 1993.
- 한미준-한국 갤럽.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과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 서울: 두란노, 1999.
- 홍종각. "노인문제와 그에 대한 교회 참여 방안." 목회학 박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4.

2. 번역 서적

- Clinebell, Howard. J.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5.
- Cox, H. 세속도시. 손명걸 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4.
- G. S. Walker. 칼빈과 교회.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Henri J. M. Nouwen. 죽음, 가정 큰 선물. 홍석현 역. 서울: 홍성사, 2000.
- Hokendijk, J. C. 풀어지는 교회. 이계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 McGavran, Donald A. 교회성장이해. 전재옥, 이요한, 김종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Newman, B. M. 현대 발달심리학. 박아청 역. 서울: 형설출판사, 1995.

- Niebuhr, H. R.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Roland de Voux. 구약시대의 생활풍속. 이양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Wolff, H. W.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6.
3. 외국 서적
- Bonhoeffer, Dietrich.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New York: Macmillan Co, 1967.
- Featherstone, Mike and Andrew Wernick. Images of Aging. New York: Routledge, 1997.
- Friedan, B. The Fountain of Ag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3.
- Gray, R. M. and D. O. Moberg. The Church and the Older Person. Grand Rapids: Eerdmans, 1962.
- Harris, J. G. Old Age,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5. New York: Doubleday, 1992.
- _____. Biblical Perspectives of Ag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 Hendricks, J. and C. D. Hendricks. Aging in Mass Society: Myths and Realities, 4th ed. New York: Harper Collins, 1992.
- _____. and C. A. Leedham, Theories of Aging Implications for Human Services. 1992.
- Kimble, Melvin A. ed. Aging, Spirituality and Relig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Kutza, E. A. The Benefits of Old 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K. Brynolf Lyon. Toward a Practical Theological of Ag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 Mann, Jim. Tomorrow's Global Community. Philadelphia: BainBridge Books, 1998.
- Taylor, Balaine E. The Church with Older Adults. Tennessee: Abingdon Press, 1984

Torres-Gil, F. The New Aging: Politics and Change in America. New York: Auburn House, 1995.

_____. and M. A. Puccinelli. Aging: Public Policy Issues and Trends,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 Washington DC: NASW, 1995.

Winter, Gibson. The New Creation as Metropolis. New York: Macmillan Co, 1963.

Wiseman, D. J. "Age, Old Age." vol. I. The Illustrated Bible Dictionary. Tyndale, 1992.

4. 기타 자료

경주시 홈페이지 자료(www.kyongju.kyongbuk.kr).

경주중앙교회 노인대학 자체 교육평가서(1999년).

경주중앙교회 새 가족부 자체 평가서(1999년).

경주중앙교회 요람(1994년 ~ 1999년).

대구 남산교회 요람(2000년).

대구 남산교회 홈페이지 자료(www.namsan.org).

덕수교회 요람(2000년).

샬롬행진 계획서(1999년).

영세교회 요람(2000년).

영세교회 당회록(1988년 10월 29일).

영세교회 제직회의록(1975년 11월 2일).

정릉교회 경로대학 요람(1999년).

Vita of
Wan Jong Lee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of Pyungchon Presbyterian Church, Anyang City, South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February 15, 1966
 Matrial Status: Married to Hai Jeong Jeong
 Home Address: #431-070, 134-3 Pyungchon-Dong, Dongan-Ku, Anyang-City, Kyungki-Do, South Korea

Phones: Office / (81) 31-421-0205
 Home / (81) 502-843-3927

Education

B. A: Mokwon University, Dajon, 1990
 M. Div: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3
 Th. M: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0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1

Personal Experience

5/2001 to present Pyungchon Presbyterian Church, Assistant Pastor
 5/2000 to 4/2001 Youngsei Presbyterian Church, Assistant Pastor
 3/1995 to 5/2000 Kyungju Jungang Presbyterian Church, Assistant Pastor
 6/1995 to 3/1996 Kyungju Jungang Presbyterian Church, Evangelist
 4/1993 to 6/1995 Pohang First Presbyterian Church, Evangelist

Teaching Experience

4/1993 to 7/1994 Daidong High School, Pohang, South Korea, Philosophy
Teacher